

10

주체103(2014)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10호

(루계 제8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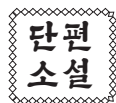
## 차 례

<b>불후의 고전적명작</b>	<b>모향산 가을날에</b> .....(3)
<b>위대한 강이여</b> (시) .....	최 정 용(4)
<b>강에 대한 찬가</b> (시) .....	김 정 삼(5)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6)
<b>강을 노래할 때</b> (시) .....	변 희 철(6)
<b>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이</b> <b>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하자</b> (론설) .....	고 철 훈(7)
<b>강</b> (시) .....	김 순 석(9)
<b>주체문학의 대강</b> .....	(10)
<b>화권의 가을밤</b> (시) .....	문 동 식(10)
<b>단편소설</b> <b>집에 대한 이야기</b> .....	김 준 학(11)
<b>나의 첫 강제로</b> .....	백 의 선(25)
<b>어머니 생각</b> .....	황 성 하(25)
<b>시원수님의 황하신 웃음</b> .....	김 덕 선(43)
<b>권사의 입강형원서알에서</b> .....	박 근 원(43)
<b>인간의 향기</b> .....	한 원 희(26)
<b>병사의 재능도 소원도 꽃피난</b> <b>상봉의 세계</b> (평론) .....	김 선 일(40)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글독탄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우리 군대 ..... 박 혜 란(27)

사랑에 대한 이야기 ..... 리 희 찬(45)

따뜻해지는 계절에 ..... 리 명 호(55)

두견화전기(사화) ..... 리 빈(66)

소박하고 참신한 목소리로 당정책을!(연단) ..... 김 청 송(73)

## 시

분조장의 새 모습 ..... 김 경 석(44)

잊지 못할 밤이여 ..... 박 명 출(65)

미곡벌의 가을풍경 ..... 한 옥 란(75)

아들과 함께 ..... 박 성 일(77)

수의를 입힐수 없다! ..... 한 동 선(78)

얼마야 ..... 원 영 옥(79)

《또 취했군...》(작가일화) ..... 리 경 명(74)

소설가가 찾은 새 《령마루》(작가소개) ..... 강 영 운(76)

고리끼, 막썸(외국작가소개) ..... (79)

성구, 속담 ..... (24), (39), (42)    상 식 ..... (78), (8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 묘향산 가을날에

로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절경이야 래고부러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내려퍼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만산에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로동당 새시대에 해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와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 수놓누나 이 나라 새 역사를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주체68(1979)년 10월 15일

# 위대한 당이여

최 정 용

더는 없어라  
세상에 나라 많아도  
당을 우러러  
어머니라 부르며  
그 품에 천만이 하나같이  
온갖 사연 품은 소원 다 말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더는 없어라  
세상에 당은 많아도  
당을 따라 전민이 숨결을 같이하며  
일심단결 기치높이 운명을 같이하는  
그러한 당 그러한 인민이

조선로동당  
진정 그대 말고 또 어디 있으랴  
장장 69년력사가  
승리로만 빛나는 당  
쌓아올린 고귀한 업적으로  
그대처럼 세상에 존엄높은 당

아, 그대의 아들된  
자랑에 겨워  
행복에 젖어  
가슴속에 깊어지는 생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항일전의 그 나날  
당창건의 초석을 마련하시려  
헤쳐오신 피어린 길은 그 얼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 당력사의 새장을 펼치시며  
당중앙집무실에서  
새날을 맞으신적은 그 얼마

주체의 기치높이 이끌어온  
우리 당이 아니었다면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우리 인민의 궁지  
행복의 상상봉에 오른 인민의 이 기쁨  
선군조선의 그 당당한 위훈을

생각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현명하신 령도를 떠나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조선속도의 불바람 일으키며  
신심에 넘쳐 최후승리에로 달음쳐가는  
우리의 장엄한 이 진군을

우리 노래를 불러도  
당의 사랑을 노래부르고  
우리 꿈을 꾸어도  
당의 품을 먼저 그리거니

그때문에  
당을 받드는 인민의 마음엔  
가식도 없고 변심도 없고  
그때문에  
인민을 이끄는 당의 결심엔  
오직 믿음만이 넘치여라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세상에 없어라  
그대처럼 불패의 힘을 지닌 당  
그대처럼 걸어온 자욱자욱에  
걸어갈 그 앞길에  
승리만이 영광만이 빛나는 당

아, 위대하여라  
위대하여라  
부러워 세상이 칭송하는  
주체의 당  
조선로동당이여

# 당에 대한 찬가

김 정 삼

마를줄 모르는 정갈한 샘처럼  
내 삶의 뿌리를 적셔주는 그 사랑  
더욱더 목메이게 사무쳐오는  
내 나라의 생각깊은 10월입니다

안다고 해도 다 알수 없는것  
어머니의 사랑이라지만  
어머니보다 더 소중히 이 몸을 품어준  
아,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

새벽노을속에  
송이송이 추억의 꽃이 피입니다  
어린시절 해바라기꽃문양속에  
《세상에 부럼없어라》 빨간 굴이 웃던 유치원  
앞가슴에 붉은넥타이 날리던 학교길  
조명등 눈부신 소년궁전무대들

사랑에 젖어있는 당의 손길  
해빛으로 별빛으로 수놓아온 내 인생  
저 웃음 비긴 대학의 창가도  
창조의 보람넘친 일터도  
아기를 안고 안해가 미소짓는 정든 집도  
노래합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을

당이며 내 운명의 어머니시여  
태어나 마음껏 내 누려가는  
삶의 이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다름아닌 그대가 안겨주었습니다  
열화와 같이 땀어넘치는 그 사랑으로  
세기의 숙망이 어린 이 강토우에  
으뜸가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펼쳤습니다

그대 사랑의 빛발을 안고  
남모르는 마음속 한점 그늘마저 가시고  
새날의 행군길에 오른 환희에 찬 가슴들  
그대 부어준 고결한 넋  
량심과 의리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의 화원이 대지우에 만발한것 아녘니까

저 백두의 눈보라 헤쳐  
불타버린 폐허의 재더미를 헤쳐  
그대 걸어온 험난한 로정이어  
그대 지새운 로고의 천만밤들이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들고  
철령과 오성산 검푸른 서해전역 날바다우에  
오늘도 새겨가는 신념의 자욱이어

백학이 날아들고 오펙백과 주렁지는  
내 나라의 정깊은 산천을 둘러봐도  
선경의 새 거리 멋쟁이 새 공장들  
뜨거운 걱정속에 어려오는 당의 그 사랑

수천도 이글거리는 쇠물에 비기리까  
구름발 뚫고 솟아오른 산봉우리에 비기리까  
인민을 존엄의 상상봉에 떠받들고  
조선을 세기적강국으로 펼쳐준  
위대한 그 사랑 불멸의 그 업적을

해빛처럼  
공기처럼  
물처럼 그렇듯  
인민의 생명이 되고 넋이 된 당의 사랑

세상천지 하 넓어도  
우리예겐 우리 당의 그 품이 제일입니다  
그 품을 떠나면  
순간에 설움의 눈무지속에 파묻힐  
그것이 다름아닌 나의 생이기에

진함없는 샘처럼  
내 삶의 뿌리를 적셔주는 그 사랑에  
충정의 더운 피 뿌려갈 한생이어  
인민이 위대한 당을 우리러  
영광 영광을 삼가 드리는  
아, 내 나라의 영원한 10월이어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당이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혁명이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당을 중시하고 당을 꾸리는 일에 그처럼 큰 심혈을 기울이는것이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래아였고 씨앗이었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었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종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 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왔다.》

## 당을 노래할 때

변 희 철

그리도 위대하고 숭고함  
그리도 존엄있고 위엄높음  
하여 그대앞엔 못별같은 인생도  
그대를 우러러 조용히 불러보면  
온 세상을 다 안은듯 가슴부푸는  
조선로동당

그리도 친근하고 인자함  
그리도 너그럽고 다감함  
하여 내 어머니라 부르며  
그대 품에 안기니  
이 나라 어머니들도 만시름 잊고 안긴 품  
조선로동당

이런 위대한 당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조직하신다!  
이런 자애로운 당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향도하신다!  
온 누리를 향해 웨치면  
내 숨결은 세계를 호홉하고  
바라보는 모든것 그려보는 미래도  
가장 가까이 보여온다

우리 어찌 우러러따르지 않으랴  
세월의 눈비를 다 막아주는 품  
인민을 위해 걸으시는 그 험난한 자욱따라  
바다를 밀어낸 옥토에 황금물결 설레고  
덧없이 흐르던 강줄기들은 전기강되어  
행복을 노래하고  
날새의 울음소리 처량하던 곳엔

구름도 타고가는 스키장의 넓은 주로

우리 어찌 그대의 품에 운명을 맡기지 않으랴  
철비 불비 품은 전쟁의 검은구름  
이 땅에 몰아쳐와도  
그 하늘아래 솟구치는 거리와 거리  
세계를 굽어보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들어 가슴후련한 로켓발사훈련소식

당과 인민 혈연의 정으로 가를수 없고  
당의 리상과 미래는  
우리 인민의 리상이며 미래이기에  
그대가 손들어 가리키는 길  
우주 한끝에라도 신념의 나래 활짝 펴고  
폭풍처럼 곧바로 곧바로 나아가거니

어찌 그대가 가꾸는 이 땅에  
오곡백과 주렁지지 않으랴  
그대가 지켜주는 자유의 강산에  
행복의 노래 우렁차지 않으랴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부귀영화는  
그대가 안겨줄 리상이며 꿈  
인민은 그 꿈속에서도 바라는 꿈이 있나니

오,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들고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조선  
이 조선을 이끄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만을  
천만년세월 높이 받들어모실  
그 한마음뿐이어라

# 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하자

고 철 훈

오늘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격사적인 서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높이 받들고 명작폭포로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창작가, 예술인들앞에 제시하여주시었다.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함으로써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당이 제시한 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하여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면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작이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고 잊혀지지 않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말한다. 사상예술성이 높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의 명작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시대와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서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훌륭한 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주체시대, 선군시대 문학예술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문학부문에서만 보아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서사시적화폭에 담은 총서 《불멸의 역사》와 《불멸의 향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중의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생명수》(변희근), 《새봄》(김규엽), 《녀당원》(김보행) 등 수많은 장편소설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얼굴과도 같은 멋진 단편소설들을 내놓아 《조선단편집》에 수록하였다.

시가문학분야에서도 서사시 《백두산》(조기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김만영)를 비롯한 서정시 《날이 밝는다》(정서춘)와 《어머니》(김철), 《나의 조국》(김상오) 등과 가사들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리정술), 《동지애의 노래》(리종순),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안호근), 《높이 들자 붉은기》(송찬웅)와 같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매한 풍모를 격조높이 노래한 서사시들과 서정시, 가사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반만년의 력사우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이 칭송되고 주체의 태양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긍지와 영예가 유감없이 노래되고있다. 또한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 의도가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구현되어있으며 인민들이 좋아하고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지난 시기 소설가, 시인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훌륭한 명작들을 내놓은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당의 요구에 비추어보면 아직 명작창작사업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서한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문학예술부문 사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의 부름에 따라지지 못하고있으며 창작가들은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들,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을 창작해내지 못하고있다.

문학예술부문이 주저앉아 일떠서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은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의 문예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는 사상적각오와 립장이 투철하지 못한데 있다.

원래 창작은 창작가의 신념과 열정의 산물이다. 창작가의 사상이 발동되고 정열이 활화산처럼 분출될 때 창작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지난 세기 60년대말 70년대초에 걸쳐 우리의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영화혁명의 포성을 울리며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화면에 옮기어 영화예술의 전통을 마련하고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친위대, 돌격대가 되어 그이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우리 당문예정책을 결사판철의 정신으로 받들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조건타발을 하면서 현실에 몸을 잠그지 않고 시대의 부름에 외면하고있으며 명작창작을 위하여 사색과 열정을 다 바치지 않고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있다.

문학예술부문이 침체상태에 빠져있는것은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수준과 실력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주체혁명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시대이며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을 추켜세워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어 피끓는 심장으로 군대와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혁명전략관을 안겨주는 시대적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아가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작품창작에서 주체적문학예술건설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의 문학예술을 수령의 문학예술로, 당정책화된 문학예술, 인민의 문학예술,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주체적문학예술건설원칙이다. 이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관철하는 길에 명작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비결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옹호하고 길이 빛내어나가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첫째가는 본분이고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수령형상창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평도, 풍모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품위있게, 체취가 생생히 느껴질수 있도록 진실하고 절절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속에 수령님과 장군님, 원수님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의 정을 채워주며 수령의 문학예술로 빛을 뿌릴 시대의 명작들을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작품들마다에 우리 당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며 창작과 창조, 예술활동 전과정이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로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작품이 아무리 재치있고 착상이 기발하다 해도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명작이 될수 없으며 그러한 작품은 열백이 있어도 쓸모가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 의도를 제때에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감정정서적으로 파악시키고 깊이 심어주는 작품이야말로 우리 당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전문가들이나 이해하고 향유하는 문학예술이 아니라 인민들이 요구하고 좋아하는 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천만군민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인민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은 노래가 참다운 명작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벅찬 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속에 들어가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감화력있고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 대중의 심장을 광광 울리는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현시기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데서 가장 빛나는 교본, 힘있는 원동력인 김정일애국주의를 생활적으로, 감정정서적으로 깊이 심어주는 시대의 걸작들을 내놓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으로 시대의 명작폭포를 안아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며 특히 문학을 중시하고 문학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이다.

문학은 예술의 사상예술적기초이다. 문학을 확고히 앞세워야 전반적예술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으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제일 결린것이 문학부문이라고 할수 있다. 일부 소설작품들은 지식의 빈곤, 상식의 빈곤, 철학의 빈곤으로 하여 지성도가 높지 못하고 구래의 연한 틀에 매달리다나니 새맛이 나지 않고 읽을 맛도 없어서 독자들의 버림을 받고있다. 시대는 들끓고 현실은 벅찬데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그로부터 분출되는 열정과 감정의 폭발을 붓대로 옮겨야 할 시인들이 주저앉아있으니 시대를 구가하는 시가 나오지 못하고 가사가 나오지 못하고있다. 좋은 영화와 연극들을 만들지 못하고있는 것도 명작이라고 할만 한 영화문학, 극문학들이 나오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인자라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글폭탄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소설가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총서작품들과 함께 구성과 양상이 새롭고 특색있는 혁명소설들을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시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새 세기 가사의 교본으로 창작완성된 가사 《조국찬가》, 《당기여 그대와 함께》와 같은 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에 대한 송가에서는 자그마한 분석과 과장도 필요없다. 작가는 자기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사변과 인간의 아름다운 소행을 직접 보고 체험한 느낌을 그대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엮어야 한다. 우리 인민이 서정시 〈어머니〉를 좋아하는것도 거기에 소박하고 친근한 생활감이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표현되었기때문이다. 당에 대한 송가는 〈어머니〉에서와 같이 꾸민 데도 없고 현란한 표현도 없지만 생활적으로 표상되고 모든 사람에게 지난날의 체험을 깊이 되살려주는 진실한 감정을 펼쳐줄 때 그 어떤 정치적내용도 형상적으로 소화할수 있다.》

## 화전 의 가을밤

문 동 식

밤

화전의 가을밤

계절은 수확의 계절이건만

쭉정이마저 다 빼앗긴 우리 겨레들

눈물젖은 바닥에 잠들어버린 밤

하지만 그밤

잠 못드시는분이 계시었나니

난알도 자유도 권리도 다 빼앗긴

착취받고 억압받는 인민들에게

빼앗긴 그 모든것을 다 주시려

깊어가는 한밤마저 잊으신분

그분이 바로

10대의 우리 수령님

오래도록 심장속에 지퍼오신 불길로

온 세상 암흑을 불태워버리시려

그이께선 10월 17일 그 가을밤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셨거니

그이는 그밤

얼마나 크나큰 걱정을 더치셨던가

휘발하강기슭에서 열혈동지들과 함께

굳게 손잡고 노래부르시며

맹세도 굳게 다지시며

그밤 가슴속에 파도치는

환희의 바다에 리상의 나래펴고

열정에 불타시는 우리 수령님

그이는 벌써 듣고계시였다

《트. ㄷ》가 내뿜는 멸적의 열화에  
천지를 진동하는 해방의 봄우뢰소리

그이는 그밤 보고계시였다

눈석이대하의 격랑에

쨍쨍 깨여지는 얼음장처럼

제국주의아성들이 무너지는것을

력사의 온갖 쓰레기들을

혁명의 대하가 휩쓸어가는것을

《트. ㄷ》의 그 부름속엔

조선의 맑고푸른 하늘이 열려있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뿌리고

공장과 광산 농촌과 전야마다

철채를 풀어던진 해방의 환호성

풍작의 오품백과 물결치고있었거니

그 가을밤부터 기나긴 세월

겨레의 가슴마다에

《트. ㄷ》의 불씨를 심어가꾸시여

짓밟히던 인민들이 주인된 세상

사회주의락원을 이 땅우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오, 그이는 오늘도

《트. ㄷ》의 불멸의 열매를

온 누리에 뿌려 가꾸고계시여라

그날 그밤에 높이 추켜드신 《트. ㄷ》의 기치

자주의 봄노을로 펼쳐가고계시여라



# 집에 대한 이야기

김 준 학  
그림 김 광 석

## 이야기에 앞서

—20세기 초엽 어느 초여름밤의 풍경—

벌그스레 녹물이 오른 낮가락같은 쪼각달이 구름 타래에 걸려있는 캄캄한 밤이다.

하늘에는 가물거리는 별빛 한점 없고 땅우에는 밤새들의 울음만이 소연했다.

부피가 어지간한 집을 이고진 한 일가가 조심조심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밤도적마냥 숲속의 오솔길을 누벼가고있다.

더는 불같은 빛독촉을 달래일길이 막막하여 어둠을 타고 도주하는 이들, 하지만 빛도망이 결코 팔자도망으로는 될수 없는줄을 이들이 과연 모른단 말인가?

《나… 배고파… 흥…》

어느애가 칭얼거렸다.

《조용해!》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나운 입속말로 단박 호령의 매를 들었다.

《진짜 배고프다니까… 히-잉…》

순간 아버지는 우뚝 멈춰선채 몸을 휙 뒤로 돌렸다.

아버지의 눈길은 지레 겁을 먹고 비실비실 뒤로 물러나 황급히 도리질을 하고있는 큰애의 얼굴을 스쳐지나 병긋 검은 섬광을 일으키며 안해의 등에 업혀있는 세살잡이 아들애의 얼굴에 날아가박혔다.

《이 망할자식!…》

그러나 아버지는 들어올린 손을 돌덩이마냥 툼렁떨구면서 후-옥 하고 긴 한숨을 내불었다.

정녕 망할놈은 누구란 말인가?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저 철없는 아들녀석이 아니

라 바로 이놈이 아닐텐가.

개도 사흘을 밥주면 주인을 알아본다는데 장장 20여년을 그 신세속에 살고도 부영이처럼 소리없이 들구편다는것은 아무래도…

(아니, 아니야!)

그는 세차게 머리를 가로 저었다.

하지만 무엇이 정말로 아닌지 이 순간 그자신도 딱히는 몰랐다.

그는 옆구리에 소중히 끼고있던 작은 보짐을 오솔길옆의 풀숲우에 내려놓았다.

뿔썩어진 대가리에도 그 그루터기는 있고 문전결식으로 동냥다니는 비렁뱅이에게도 밥그릇은 있다 그 패가하여 밤도망하는 그의 집에서 50여년전부터 가보라 정히 일러오는것이 바로 그것, 옥돌로 만든 숯돌만 한 크기의 거부기였다.

그 물건은 조선봉건왕조 26대왕인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집에서 청지기를 했다는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물이였다.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봉건정부의 모든 실권을 틀어쥔 대원군은 풍양조씨에 이어 안동김가의 세도정치등쌀에 쇠진해질대로 쇠진해진 왕권을 회복하고 왕가의 권력을 강화하려면 우선 백성들에게 존엄을 보이는데가 급선무라는 생각밑에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린 뒤 200여년동안이나 폐허로 쓰러져있던 경복궁을 웅장화려하게 재건할 결심을 품었다고 한다.

(뭉니뭉니해도 궁궐은 바로 왕권과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자면 경복궁재건을 반대하거나 동요하는 사람들의 온갖지 않는 눈을 가리우고 꺾을 터놓는데로 흐르는 민심을 와락 끌어당겨야 한다.)

소시적부러 장난질을 즐겨온 대원군에게 있어서 그따위 놀음은 별로 문제가 아니였다.

그래서 대원군은 술술 백성들의 눈치를 보가며



그들의 이목을 현란케 하는 몇건의 《기이한 조화》를 연출해냈다고 한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옥돌거부기였다.

어느날 의정부청사를 수리하던 한 인부가 팽이로 땅을 파다가 이상한 돌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부기모양의 돌생김에 흥미가 동한 인부는 혹시나 하여 그 돌을 이리저리 굴러보며 팽이끝으로 껍데기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내니 뜻밖에도 그것은 진귀한 옥돌로 만든 조그마한 거부기였다.

그 거부기의 잔등에는 《임금이 있어 백성이 있고 궁궐이 있어 만백성의 집이 있나니, 경복궁을 다시 일떠세워야 계계승승 나라의 근원도 연장되고 백성들도 흥성해진다. 이 글을 보고 고하지 않으면 너는 동국의 역적이다.》는 내용의 글이 새겨져있었다

그 옥돌거부기에 대한 소문이 서울장안에 파다하게 퍼져나가 경복궁재건공사가 대원군의 제책대로 착착 맞물려돌아갔음은 그후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옥돌거부기는 대원군이 자기의 심복을 시켜 왕궁주변 어딘가에 남몰래 파묻어놓게 한것이라고 한다.

며칠후 옥돌거부기는 땅속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그것은 즉시 대원군에게 바쳐졌다.

대원군은 그 옥돌거부기를 자기의 한 청지기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런 연고로 그 옥돌거부기는 그 청지기의 가보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한밤중의 도망군은 바로 그 청지기의 손자였다.

인적없는 오솔길에 주저앉아 할아버지가 남긴 유물을 쓰다듬으며 지나온 세월을 누벼나가는 그의 눈가에서는 서리서리 엷히고엷힌 저주와 원망이 툭툭떨어 떨어 눈물로 굴러떨어졌다.

봉건정부의 실권을 친지 10년만에 대원군은 모든 권력을 잃고 정계에서 물러났으며 그가 거쳐하고있던 운현궁도 몰락하여 하인들은 마가울의 락엽처럼 바람이 부는대로 뿔뿔이 흩날려버렸다.

그들 일가가 여사여사한 연줄을 툴아 이곳 평양성밖의 산골마을에 정착한지 수년후 나라는 끝내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말았다.

《아, 원통하다! 경복궁은 다시 일떠섰건만 나라는 끝내 망하였구나. ...》

이것은 절명시 그의 할아버지가 옥돌거부기를 두손에 꼭 그러쥐며 터뜨린 울분의 토설이었다.

몇년후 그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아무 미련이 없는 세상에 그래도 그의 아버지가 남긴것이 있다면 빛과 할아버지의 유물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에 쓸 돈을 어디서도 변통할 수가 없었다.

소작지도 얼마 안되어 남의 소꼴이나 베여다주는 풀담살이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에게 누가 선뜻 돈을 꾸준단 말인가.

다행히 이때 그를 도와나서는 고마운분이 있었다.

그 은인으로 말하면 동네에서 여간만 덕망이 높지 않았다.

만약 그가 제기일에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네 일가가 사는 집을 대신 내놓겠다고 런대보증을 해서야 그는 겨우 판넬이나 살 정도의 돈을 꾸수 있었다.

간신히 초상을 치른 뒤 돈을 벌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몸부림을 쳐보았으나 다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주의 빚은 끈돈보다 엄청나게 많은 리자가 붙어 도저히 갚을수가 없었다.

도망은 그래서 결심한것이였다.

했으나 정작 떠나자니 그 고마운분의 진정이 발목을 붙들었다.

가난속에서도 정깊었던 이웃들, 이 세상 그 어디가서 이 고장 사람들처럼 마음씨 착하고 인심후한 사람들을 또 만날수 있단 말인가!

(산당집 큰아버님, 용서해주십시오! 이놈이 도망가면 그 모든 후환이 고스란히 큰아버님한테 얹힐 줄 알면서도 도망길을 잡니다.

그동안의 신세에 결초보은은 못할망정 빚만 남기고 떠나니 이놈을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훌쩍 몸을 일으켜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는 산촌을, 남몰래 등지고 떠나는 정든 고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다시 돌아가고싶었다.

그러나 몇평 안되는 밭마저 떼운 그곳에서 병든 안해와 아들을 빚값으로 지주집부엌데기와 머슴을 살게 하고싶지는 않았다.

(산당집 큰아버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 지주의 빚돈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돌아와 큰아버님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산당집을 향해 와락 무릎을 꿇은 그는 여윈 두볼로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도 않고 오열속에 꺾꺾부르짖었다.

큰아버님, 부디 몸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잘있거라, 만경대야! 너의 일만정치보다도 그 인정이 더 아름답고 으뜸인 정든 고장아, 꿈속에서도 못 잊을 유정한 산천아!

큰아버님, 내 다시 돌아오는 날 이 옥돌거부기를 큰아버님께 드리리다.

죄책과 피로움속에 한겹두겹 어둠속의 수풀을 헤치며 오솔길을 벗어나니 마침내 갈림길이 나졌다.

그것은 운명의 갈림길이기도 했다.

## 1

—1953년 8월 28일 금요일—

이른새벽 마을을 순찰하면서 나는 오늘이 33일째 되는 날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가슴속에서는 그 어떤 신비한 예감과 행복한 기대감이 그물그물 서려돌았다.

전송의 그날로부터 하루하루 셈하여보면 오늘은

33번째가 되는 날이다.

(부디 오늘은 오시었으면 아니, 꼭 오실거야!)

진실로 나는 그렇게 믿고싶어졌다.

오직 그렇게만 믿고싶었다.

길수 《3》이 쌓으로 겹친 이런 좋은 날에 미제를 때려부신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꼭 고향 만경대에 오시지 않을까 하는것이 바라고바라는 나의 애틋한 소원이다.

전쟁때문에 지난 3년간 한번도 찾아보시지 못한 그리운 고향이 아닌가.

여기 대동군내무서아래 한개 단위책임자로 임명된지 2년이 넘도록 나는 아직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지 못했으니 그 간절한 그리움과 기대감은 더 말할 필요없다!

그래선지 어둠을 털고 서있는 만경봉이 한결 우렁차 보인다....

전승의 단상에서 내리시는 그길로 강남요업공장(당시)전설장부터 현지도하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파피된 공장과 살림집들을 하루빨리 복구하자면 뛰니뛰니해도 벽돌이 많아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셨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에는 8년 전 그날처럼 고향집을 지척에 두고 만경대갈림길을 지나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시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마중가는 소년처럼 한달음에 사연깊은 갈림길로 달려갔었다.

혹 돌아오시는 장군님을 뵈올가 해서, 《장군님, 이 갈림길로 꺾어드시면 고향 만경대입니다!》하고 리정표가 되어 아뢰이고싶어서.

그날부터 나의 순찰길은 만경대갈림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루빨리 장군님을 뵈고싶다.

하지만 그 어떤 죄의식이 내 마음속을 유령처럼徘徊하며 그리움을 괴롭히고있는것은 대체 어떤 까닭일까?

...김일성장군님께서 오늘도 고향 만경대에 들리지 않으셨다.

...

-1953년 8월 30일 일요일-

오늘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만경대를 찾으신것은 오후 3시경이었다.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가 고향집에 들어섰다.

지금 만경대에는 김형록삼촌과 삼촌어머니가 살고계신다.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조부모님들을 모시고 멀리 후방에 가계시던 삼촌은 하루빨리 만경대로 돌아가시라는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날로 곧추 길을 떠나 갓 해방된 평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셨다.

그때가 1951년초였다.

《우리 장군이 오셨다구?! 어디...》

동네 늙은이들이 어쩌다 형록삼촌의 말소리를 들으면 《이거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인가보다?》 할 정도로 평소에 말술이 적은 삼촌이 느릿한 성미를 털고 《여보, 장군이 오셨다오!》 하고 부엌에 큰소리치며 부랴부랴 마당으로 달려내려왔다.

《에그머니나!》 삼촌어머니도 젖은 손을 치마자락에 문다지며 부엌에서 나왔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그간 건강하십니까? 전쟁을 겪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장군님께서 허리를 굽혀 삼촌내외분께 인사를 드리시었다.

《우리야 뭘, 전쟁을 이기느라 장군이 더 고생이 막심했지.》

《우린 장군이 계셔 전혀 무섭지 않았단우. 팡팡 미국놈폭탄 터지는 소리도 동네아이들 밤청대할때 밤송이 터지는 소리보다도 못하게 여기며 받고랑을 탔단우. 빨리 인민군대한테 원호미를 보내자구 재촉하는 소리로 들으면서 말이우. 그러면 무섭기는커녕 막 힘이 샘솟듯 했단우. 그것이 무슨 고생이겠수.》

성격이 팔팔하고 무슨 말이든 함용 다양한 손세, 몸짓으로 흥취나게, 구수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삼촌어머니였다.

《작은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울다가도 웃겠습니단.》

중절모를 벗어드신 장군님께서 살뜰하게 삼촌어머니의 해별에 익은 목을 팔벌려 그러안으시었다.

아직도 보조개가 패이는 그이의 존안에서는 이한여름의 습한 무더위를 가져주는 서늘하고 청신한 기운이 함뿍 흘러넘쳤다.

그래선지 숨막힐듯 한 폭양속에서도 나는 전혀 더위를 느끼지 못했다.

《줄창 전선에 나가계셨다더니만 장군의 몸에선 아직도 포연내가 나는것 같소.》 하는 삼촌어머니의 허물없는 통말에 장군님께서 《3년동안 뻔 뻔센데 아무럼 한달사이에 빠지겠습니까.》 하고 겸허히 응대하시었다.

그러자 모두들 따라웃었다.

장군님께서 타고오신 승용차가 서있는 사립문가에서 나는 혈육의 정 뜨거운 그분들의 상봉을 가슴 뭉클함속에 목격하며 긴장하게 경비근무를 썼다. 그때 장군님의 온몸에서는 인자함과 소탈함으로 만사람을 흐뭇하게 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정기같은것이 한낮의 햇빛보다도 더 눈부시게 뿜어져 나오는듯싶었다.

평소에 상상해보았던 그 어떤 절대의 권위와 함부로 범접 못할 위엄같은것을 좀처럼 느끼지 못했다.

던 자신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삼촌과 함께 일행을 거느리고 방으로 들어가시었다.

삼촌어머니가 춤이나 추듯 덩실덩실 어깨를 들썩이며 집근처의 언덕에 있는 자그마한 과일밭으로 달려가 크고 잘 익은 복숭아를 한바가지 따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장군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삼촌내외분이 늦철이 된 오늘까지 합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면서 해별과 바람에 흠뻑 익혀온 복숭아였다.

잠시후 만경대고향집의 굴뚝으로 뭉게뭉게 연기가 솟구쳐올랐다.

나는 그때에야 장군님께서 아직 점심전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삼촌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장군님께서는 새로 점심을 짓겠다는 삼촌내외분을 만류하셨다고 한다.

《옛날부터 우리 집에서 밥투정을 하면 수수라개죽 한사발도 못 얻어먹었소. 내가 어릴 때 우리 형권삼촌이 밥투정을 하면서 집을 뛰쳐나갈 때마다 난 은근히 기뻐했더랬소. 그 멀건 수수라개죽이나 마 우리 어머니가 더 잡수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요. 자, 작은어머님, 강낭밥도 과남하니 있는대로 올려보내주십시오. 아무렴 전쟁이 잦았던 지금 흰쌀밥에 고기국을 바라겠습니까.》

언제 보나 한나름으로 검박하게 생활하시는 삼촌내외분이 강낭밥을 잡수신다는것을, 그래서 몇 년만에 오신 자신께 차마 강낭밥을 대접할수가 없어서 속상해한다는것을 아시고 하는 위안의 말씀이었다.

했으나 맛스런 찬 한가지라도 더 놓아드리려고 삼촌어머니가 아궁불을 지폈다.

《북쪽산골에 가계시는 할아버님과 할머니는 모두 무고하시답니다.》

장군님께서 조부모님의 안부를 삼촌내외분에게 알려드리시었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다우.》 하면서 이내 삼촌어머니가 차려들여온 조촐한 밥상엔 골숨하게 담은 강낭밥과 팽수, 쪽을 낸 생오이와 풋고추에 메주장 그리고 고구마잎줄기로 만든 찬에 삶은 풋강냉이 서너이삭과 젓갈 한보시기가 전부였다.

《자, 동무들, 어서 들기요. 이 밥상우에 단고기장이나 통닭구이가 올랐다면 아마 내가 웅색했을거요. 난 이 삶은 풋강냉이에 건뎡이젓을 찍어먹겠으니 동무들은 이 밥을 한술씩 더 나눠먹소.》

장군님께서는 풋강냉이 한이삭을 집어드시었다. 진한 밤빛으로 탄 오사리가 붙어있는 강냉이이삭을.

《삶은 강냉이나 고구마는 누룽지처럼 가마 맨 밑바닥의것이 더 맛있더구만. 삶은것과 닭은것 두가지를 다 맛볼수 있으니 말이요. 그러니 차꾸만 내 몫을 넘겨다보지 말고 어서 드오.》

하지만 수행원들은 쉬이 밥술을 들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의 마음이 그럴진대 그 광경을 목격하는 삼촌내외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으랴!

속연하고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때늦은 점심식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동무들, 이게 무엇인지 아오?》

장군님께서 문득 수행일군들에게 고구마잎줄기로 만든 찬을 가리키셨다.

그것을 먹으면서도 깊이 생각지 못하고있던 수행원들은 선뜻 대답이 용이치 않아 이 짐작, 저 짐작하며 기웃거리는데 장군님께서는 그 모양이 재미나신듯 웃음을 터뜨리며 《이게 바로 고사리사촌이란거요, 고사리사촌! 그리 맛갈스런 찬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선 굉장한 귀물이요.》 하고 그럴법한 주석을 달으시었다.

짐짓 천연스레 하시는 장군님의 그 말쑥에 부엌에서 방안의 동정을 엿보던 삼촌어머니도 언제 구름이 겹던가싶게 큰소리로 따라웃으실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직한 생각이 들었는지 주위를 둘러보더니 황급히 손으로 입을 가리켰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장군님께서는 삼촌내외분께 마을사람들의 살림살이형편에 대해 물으시었다.

《예로부터 농사가 잘되면 나라에 걱정이 없다고 하루빨리 전쟁으로 령락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워야겠는데...》

그러자면 농업협동화를 해야지 다른 방도가 있을것 같지 않구만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삼촌이 정색하여 《저, 장군... 할아버님과 할머니는 언제쯤 모셔오겠소?》 하고 물으셨다.

《빨리 모셔와야지요. 조부모님들을 못 뵈온지도 벌써 3년이 넘은군요. 지난날엔 왜놈들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분들인데 오늘은 또 가증스런 미국놈들때문에 안하실 고생을 하시고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으니...》

이때 마을로인들이 리일군들과 함께 장군님을 뵈오려고 찾아왔다.

삼촌어머니더러 수행원들이 뒤집에서 설수 있게 안내해주도록 하신 장군님께서는 마을사람들과 허물없이 토방마루에 앉으시여 요즘 시장의 농산물가격이며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돈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의논해주시었다.

퍼그나 시간이 흘렀다....

이야기가 끝나 마을사람들을 배려주려고 사립문 밖까지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승용차가 서있는 우물가주변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있는 나를 보시었다.

《저 동무가 그 소장동무니까?》

장군님께서 뒤따라나온 삼촌에게 물으시었다.

《그렇다네.》

그이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로 다가오시었다.

《소장동무, 수고하누만.》

나의 가슴은 세차게 울렁거렸다.

나는 온몸이 그대로 눈이 되고 기쁨이 되어 장군님을 우러렀다.

차렷하고 경례를 올리는 나의 손을 잡아주신 장군님께서는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하시며 나를 고향집으로 이끄시었다.

고대하던 그 순간이었지만 영광과 행복감보다는 죄송함 비슷한것이 나의 심신을 압박하였다.

장군님의 존안엔 피로의 자취가 력연했기때문이었다.

잠시 서슴서슴 머뭇거리던 나는 사립문안에 들어섰다.

그이께서 나를 기다리셨던것이다.

손수 복숭아를 권하시며 이름이며 나이, 고향에 대해 물으시었다.

《김석현이라? 듣던 이름같은데...》

순간 나는 절로 긴장되었다.

내 이름을 언제 들으셨단 말인가?

《하긴 세상에 같은 이름이 한둘이라구. 아마 내가 누군가와 착각린것 같구만.》

그이께서는 혼연히 말씀하시었다.

그제서야 한껏 당긴 고무줄처럼 팽팽해졌던 긴장이 일시에 느슨해졌다.

《그래 고향은 어디요?》

《저, 고향은...》

나는 뒤말을 잊지 못했다.

장군님과 한고향, 한마을태생이라는 금지와 함께 남모르는 수치가감히 땅우를 배밀이하는 장마철 구름처럼 눈앞을 캄캄하게 메우며 밀려들었기때문이었다.

《여기 대동군입니다.》

나는 말끝을 뭉그쳤다.

《그러면 나와 한고향태생이구만!》

장군님께서는 무등 반가와하며 나를 다정히 바라보시었다.

나의 마음은 더욱 웅송그려졌다.

《그러니까 석현소장동무는 3.1봉기가 일어난 그 해에 대동군에서 태어났구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땅에서 살래야 살수 없어 타향으로, 이국땅으로 정처없이 떠나갔소. 참 험한 세월이었지. 그래 부모님들은 다 계시오?》

나는 머리를 수그렸다.

부지중 눈물이 솟구쳤다.

눈물에 젖은 그날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것이다....

장군님의 조국개선연설이 있는 며칠후에 아버지는 느닷없이 우리 형제를 불러 한자리에 앉히었다.

왜선지 오래도록 입을 열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곱에는 뜻밖에도 눈물이 그렇그렇 맺혀있었다.

고드름같은 그 눈물방울에는 아버지의 그 어떤 고뇌가 깃들어있는것일까?

그밤에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우리 집안의 뗏뗏치 못한 과거사를, 빗독촉에 견딜수가 없어 일가가 도주하던 그 일을...

《그때 네 어미와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못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 끝내 병약한 네 어미는 막내 석영이를 낳구는 쓰러졌구 또 석현이 너보다 세살이나 우이던 형마저 약 한첩 못 써보구 병으로 잃었구나....

만경대를 떠나온지 5년이 더 되던 해에야 나는 겨우 얼마간의 빚돈을 마련해가지고 길을 떠났었다. 가던 길에 나는 만경대에서 함께 살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구나. 큰아버님소식을 들으니 정말 말이 아니더구나.

내가 진 빚을 못 갚았다구 지주놈이 산당집을 빼앗겼다고 하자 둘째아들에게 집안살림을 맡긴 큰아버님은 큰어머님과 함께 가마 하나를 지고 만경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골로 들어가 2년나마 온갖 고생을 겪으며 끝내 빚을 다 갚고서야 집으로 돌아오셨다지 않겠니. 아니할 생고생을 사서 했다고 옆에서 누군가 나를 욕하면 조금치도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은 왜 욕하는가, 내가 마음이 동하여 스스로 한 일이지 그 사람죄는 없다, 오죽하면 그 착한 사람이 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정든 땅을 떠나갔겠는가, 난 그가 이 험한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나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걱정하더라는구나.

세상에 은인도 그런 은인이 또 어디 있겠니?

하면서도 나는 그때 큰아버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만 발길을 돌렸구나. 내 머리털을 잘라 신을 삼아드리고 이제 당장 큰아버님의 집을 지어드린들 내가 어찌 큰아버님과 그 일가분들한테 진 빚을 다 갚을수 있겠느냐. 해방을 맞고보니 고마운 큰아버님 생각이 간절하더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일이 있으면 가까이서 도와드리자구 이 대동땅으로 이사를 온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단다.

헌데 너무도 놀라운 일은 소문그대로 그 만경대 큰아버님의 손자되시는분이 바로 우리 나라를 찾아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이시라지 않겠니! 그런즉 나는 만경대 큰아버님께 빚만 진것이 아니라 본의아니게 김일성장군님앞에도 죄를 진 놈이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래 며칠을 두고 생각하던 끝에 이 아비가 내린 결심이니 석현아, 너는 시인이 되려는 꿈을 버리고 내 뜻을 좇아 김일성장군님을 지켜드리고 만경대가 문을 지키는 그런 총천 사람이 되거라.

은혜는 목숨으로 갚는게 인간의 도리란다. 그리고 둘째야, 너는 앞으로 집을 짓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구나. 집도 초가집서건 기와집서건 그런따위가 아니라 경복궁보다 더 으리으리한 대궐을 짓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제 나라가 서면 온 민족이 김일성장군님을 조선의 나라님으로 높이 받들어 모실터인즉 그러면 그분이 거처하실 대궐이 있어야 하잖겠니. 너의 증조부께서 대원군령감이 준 이 옥



돌거부기를 가보로 정히 전사해오신것도 궁극은 그런 뜻에서였을거다.》

최책감과 함께 보은의 결심이 이 가슴속에 인생의 주춧돌로 들어앉았던 잊지 못할 그밤의 눈물젖은 아버지의 얼굴, 우리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

그후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만경대가문의 혈투를 감히 어찌보려고 피눈이 되어 미쳐날뛰던 원수놈들의 야수적만행으로 불행하게도 장군님의 맏고모님과 맏고모부가 희생되자 솔선 죽음을 무릅쓰고 순화강가로 나가 그분들의 장례를 치르어드렸으며 다음날 놈들손에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김일성장군님과 그분을 낳은 만경대가문의 은혜를 이 목숨으로나마 조금이라도 갚게 되었으니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 사형장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말이었다고 한다.

인민군대의 재진격과 함께 마을로 돌아온 내가 폭격에 무너진 움속에서 아버지가 정히 보관한 옥돌거부기를 찾아낸것은 그후의 일이었다....

장군님께 삼촌이 아버지의 최후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고모와 고모부의 시신을 거두어주고 희생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소장동무의 아버지였구만. 고맙소. ... 내가 동무의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어놓아 정말 안됐소.》

장군님께서서는 비감을 억제하기 어려우신듯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두팔을 엇걸으시고 폭양이 내리쬐는 마당을 천천히 거니시었다.

귀파가운 매미의 울음소리는 기관총소리처럼 아주럽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놀란듯 지붕우에 내려앉았던 참새들은 포르릉 하늘공중으로 흩어져 날아갔으며 웁-웁-벌들의 날개짓소리는 입에 물고 함부로 뱉지 못하는 아이의 울음같았다.

나는 슬픈 추억을 접으며 황급히 토방아래로 내려섰다.

그리고 장군님을 우러러 차렷하고 섰다.

장군님!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이날이때까지 당하신 불행만도 산갈은데 그 산우에 또 하나 슬픔의 무거운 돌을 얹어드렸으니 언제면 그 아픔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겠습니까?

아버지의 몸은 비록 땅속에 묻혔어도 그 령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었을겁니다. 더는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장군님께 근심을 드린 자신이 민망스럽게 여겨졌다.

《작은아버지, 그후 석현동무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보았습니까?》

삼촌은 청명에도 추석에도 찾아가 묘를 손질해주었다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듯 다시 토방마루에 앉으시었다.

《피난갔던 가족은 데려왔소?》

장군님께서서는 화제를 돌리셨지만 나의 대답은 그이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

《다른 동무들도 데려오지 못했소?》

《예. ...》

《부모처자들도 데려오지 못하고 홀아비살림을 하자니 불편이 여간 아닐거요. 아마 소장동무부터 가족을 데려오지 않으니 가까이에 처자를 두고 있는 동무들도 감히 그럴 엄두를 못내지. 내 딸이 틀리오?》

그 말씀은 사실이였다.

《이제 더위나 가셔지면 모두 가족을 데려오도록 하오.》

나는 《예.》 하고 대답을 드렸다. 그리고 아뢰이고싶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면 조부모님들을 고향에 모셔오시겠습니까?

허나 그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뿐이였다.

이때 삼촌어머니가 마당에 들어섰다.

《우리 동무들이 휴식합니까?》

《장군이 쉬시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쉬겠는가 하면서 뵈대는걸 겨우 설복했다우. 그래서 지체했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어머님, 추석이 9월 22일이지요?》

《그렇네. ...》

쫄전에 법석을 놓던 때와는 달리 들려오는 말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뒤이어 고개를 외로 숙이는 삼촌어머니의 안색은 몹시도 흐려있었다.

9월 22일!

언뜻 이날은 김정숙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라는 생각이 예리한 가시처럼 나의 마음을 피나게 찔렀다.

벌써 4년이 되어온다.

《작은어머님, 내 하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삼촌어머니는 대답대신 수궁의 뜻으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목이 짙 잠겨 대답이 나오지 않았으리라.

《이번 추석날에 술이랑 제사음식을 좀 준비해서 이 소장동무가 아버지묘소를 찾아볼 때 들려보내주십시오. 아직 처자도 데려 못 오고 고생을 하는 동무인데... 아마 소장동무는 전쟁통에 아버지의 3년제도 바로 해드리지 못했을겁니다. 그러니 작은어머님, 꼭 부탁드립니다.》

(?!...)

아, 너무도 억이 막혀 숨조차 제대로 내쉬수 없었다.

그때의 내 심정을, 고마움보다도 가슴이 미여지던 그때의 그 충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단 말인가?!

눈앞이 어찢어찢했다.

마치 산마루우로 치달아올라가 바투 해를 마주 보았을 때처럼.

아, 사랑이여, 장군님의 사랑이여.

베풀어주시는 은정이 고마울수록 왜선지 그 은정이 황송하게만 느껴지는 장군님의 햇빛같은 사랑이여!

장군님께서는 이윽하여 우리들의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하나하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다나니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휴식을 마친 수행원들이 송구스런 표정을 지으며 마당에 들어섰다.

어느덧 장군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순간 나는 불시에 밀물처럼 엄습해오는 죄송함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장군님의 귀한 휴식시간을 나때문에 보장해드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때문이었다.

그토록 버리고 별려왔건만 나는 왜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오늘은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다고 나는 굳이 자신을 납득시켜보았다.

그러나 실은 그것만도 아닌것 같다.

나의 마음 한구석 그 어딘가에 조부모님들께 수년간이나 안하심 고생을 시킨 배은망덕한 인간의 아들이 바로 나라는것을 아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혹 나를 달리 보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리기적인 속타산이 은근히 작용했던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긍정할수 없는것처럼 꼭 아니라고 부정할수도 없는 착잡한 마음이다.

언제든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서를 빌리라. 조부모님들께도 그리고 장군님께도!

작별인사를 나누신 후 장군님께서는 불덕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승용차를 타시고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에 발동이 걸린 그 시각에도 장군님께서는 삼촌어머니에게 자신의 부탁을 잊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그 사랑에 나는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나의 귀전엔 장군님을 바래워드리고나서 하던 삼촌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젊어서 너무 무리하면 빨리 늙는다는데 장군이 저렇게 몸을 혹사하시니 정말 안타깝다우. 아마 장군은 이제 더 먼길을 떠나시려는가봐. 언제나 만경대에는 먼길을 다녀오셨거나 떠나군 하실적마다 들리군 했다우. 소장, 어디 내 말이 틀리나 두고보오.》

지금껏 먼길을 다녀오신 장군님께서 이제 그보다 더 먼길을 가신다니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삼촌어머니의 그 말이 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1953년 9월 30일 수요일-

고향 만경대를 다녀가신 이틀후인 9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쏘련방문의 길에 오르시었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어제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오시었다.

그러니 《장군이 이제 더 먼길을 떠나시려는 모양》이라던 삼촌어머니의 예감이 꼭 들어맞은셈이었다.

장군님께서 도착하시자 그날로 평양에서는 쏘련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신 김일성장군님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열리었다.

장군님께서 연설하시었다.

인민들은 그이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머나먼 외국방문의 나날에 쌓이고쌓인 려독과 긴장한 사업상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푸실것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오늘 저녁 라디오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는, 평양시 중심거리 살림집건설장과 모란봉극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는 감격적인 보도를 전하였다.

## 2

-1954년 1월 17일 일요일-

대한전이라 날씨는 몹시도 추웠다.

동장군이 어찌나 기승을 부렸는지 온종일 까마귀 울음소리는커녕 눈독은 마당에 내려앉아 재갈재갈 말치를 까며 공연한 소란을 피우던 참새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고드름이 많고 크게 달리면 풍년이 든다는데 집집의 처마마다에는 바오래기처럼 굵고 길다란 얼음고드름들이 많이도 달렸다.

그러나 아무리 날이 추워도 장독과 아이는 얼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것처럼 6살잡이 우리 집 복남이는 마을의 꼬맹이들을 휘동해서 군사놀이를 하다가 수드름하게 쌓여진 눈속에 구겨박혀있던 새끼매를 한마리 잡아가지고는 우쭐해서 온 동네를 팽이처럼 돌아쳤다.

아이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가족은 작년 가을에 여기 만경대로 이사를 왔다.

감회도 새롭다.

지난해 10월 14일 만경대혁명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학원을 하루빨리 복구할데 대한 대책을 세워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돌아오시는 차안에서 우리 동무들이 가족을 다 데려왔는가고 물으셨다고 한다.

소장동무만은 아직 데려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아마 우리가 조직해주기 전에는 울가울가에도 이사를 하지 못할거라고 걱정하시면서 다음날 아침 친히

우리 가족의 이사와 관련한 운송조직을 해주셨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우리 가족은 이사를 오게 되었다.

《형님, 장군님께서 그러시면 우리 형제는 뭐가 되오? 우린 결국 만경대가문의 은혜만 입었지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그런 불효자가 되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이 말은 도시건설부에서 일하고있는 내 동생 석영이가 나홀전에 우리 집에 들렀다가 터뜨린 열이었다.

《난 형님보다 더한 놈입니다. 전쟁이 끝나 반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장군님께서 전쟁시기의 그 반토굴집에 그냥 계시게 했으니 우리 건설부원 일군들은 어디를 가도 머리를 못 들고 다녀요. 나라의 재부를 다 모으고 심산속의 아름다리나무를 베여 궁궐이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지어드리지 못한다 해도 어떻게 이 추운 한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그런데서 그냥 생활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날 동생이 들려준 이야기는 얼마나 나의 가슴을 아프게 단근질했던가.

늘썹 새벽이 다되어서야 평양시교외에 있는 반토굴집으로 돌아오시는 장군님께 한 일군이 이제는 장군님의 저택을 속히 시내에 옮겨짓자고 말씀드렸다고 한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우리 집을 새로 짓는 일은 바쁜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바쁜것은 하루빨리 인민들을 반토굴집에서 내오는것이다,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 우리도 조밥을 먹으며 생사를 함께 했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우리가 인민들과 달리 살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인민들이 반토굴집에서 다 나와 지상건물에서 살게 될 때 우리도 지상건물을 짓고 살아야 한다고 타이르셨다고 한다.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이해 설도 전쟁시기에 계시던 그 춥고 눅눅한 반토굴집에서 새해를 맞으셨대요!》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신이 마치 또뜻한 온돌방에 앉아있는것이 아니라 바늘방석에 앉아있는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어둠이 깃드는 창밖을 내다보던 나는 승용차경적소리를 듣고 별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장군님께서 오시는것이 아닐까?

이번 설에도 장군님께서서는 국사가 다망하시여 고향 만경대를 찾지 못하셨던것이다.

사전련락은 없었지만 나는 곧 비상소집을 하여 경비근무를 조직하였다.

그들이 각기 말은 초소로 떠나간 뒤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지금 만경대에 오셨다는것과 나를 부르신다는 련락을 받게 되었다.

나는 달음박질쳐 만경대고향집으로 달려갔다.

사립문안으로 들어서던 나는 방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귀익은 말소리에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인민군대고사총에 맞은 미국놈비행기처럼 말이예요, 저쪽언덕에 떨어질 떨어지는 새끼매를 우리 동무들이 따라가서 기어이 붙잡았지요 뭐.》하고 자랑을 하는 목소리의 입자는 바로 내 아들 복남이었다.

밖에서 놀던 저 애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을까?

아마 마을에 들어서는 승용차를 보고 승벽내기로 예까지 따라온것이 분명했다.

방안에 들어서니 그 애와 함께 놀던 다른 애도 장군님곁에 앉아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온종일 장난으로 어지러워진 복남이를 무릎우에 앉히고 그 애가 하는 말을 즐겨 듣고계시었다.

나는 몸단장을 단정히 하고 장군님께 정중히 새해의 축하인사를 드렸다.

《고맙소. 어서 여기 와앉소.》

장군님께서서는 따뜻한 아래목에 자리를 권하시었다. 방안에는 삼촌내외분과 리내 간부들이 앉아있었다.

《어서 와앉소. 그래 이사를 했는지? 전쟁통에 오래동안 헤어져살던 아주머니랑 이 복남이랑 함께 모여사니 생활이 오붓하겠구만. 아마 신혼생활 못지 않을거요. 그렇지 않소?》

나는 고마움의 인사대신 괜히 멋적어하며 뒤덜미를 긁적거렸다.

《그런데 소장동무, 아주머니랑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혼자 왔소?》

그런 련락은 받았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원수님, 우리 엄마 있잖아요,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요. 병원에 가라는데 가지도 않구.》하고 복남이가 새통스럽게 앞질러 대답올렸다.

《어디 아파 그러오? 대체 무슨 병이요?》

장군님께서 조금전의 화기로운 안색을 거두시고 사뭇 근심스러운 안광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으시었다.

순간 나는 귀밀이 익은 고추처럼 빨개졌다.

《그저 늘 앓는...》하고 나는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말끝을 여물구지 못했다.

《늘 앓았다니 그럼 장기환자요?》

더욱 근심이 되어 다우쳐물으시었다.

《장군... 그건 저... 복남이 에민 지금 아이설이를 하느라 그러는거라우. 첫아이도 아닌데 무슨 입덧이 그리 심한지 잉어국도 뭐도 다 효험이 없라우.》

삼촌어머니가 말씀드렸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 소장동무가 정말 신혼생활을 다시 하는 격이구만. 작은어머님, 얼마나 좋습니까. 승리한 이 땅에 미래의 주인공들이 태어난다는것이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흐뭇하군요.》

장군님의 존안은 기쁨으로 환히 빛났다.

《그런데 소장동무네 집이 초가나 겨우 면한 그런 집이어서 생활하기가 불편하겠구만. 조금만 참

소. 이제 이 마을에도 새집들을 많이 짓게 될거요.》

《장군, 집소리가 나왔으니망정이지 장군은 언제면 그 반토굴집에서 나오시려우?》

삼촌어머니가 울가망이 되어 젖은 목소리로 물으셨다.

《장군이 그 반토굴에서 먼저 나오셔야 아래사람들도 다 떨쳐나올거구 또 그래야 먼저 나온 사람들도 맘이 편할게 아니요.》

《작은어머님, 나도 집을 시내에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내 결심에 달린게 아니라 우리 인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원! 우리 장군이 시내에 새집을 잡구 나오는걸 달가와 안하는 사람이 있다니?!... 도대체 누가?...》

삼촌어머니는 어망처망함에 스스로 놀란듯 어깨를 쉬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방안에 모여앉은 사람들의 눈빛에도 분노와 적의가 번뜩이는듯.

《아직도 토굴집에서 살고있는 우리 인민들입니다. 나는 적어도 평양시민들이 토굴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창문마다에 밝은 햇빛이 차넘치는 지상건물에서 살게 될 때 그때 가서나 시내에 집을 짓는 문제를 고려해볼가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사는가 하는건 전적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달려있는거구 우리 인민이 단 한세대라도 토굴집에서 산다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인 나도 웅당 토굴집에서 살아야 하는건 당연한 리치입니다. 일군들이 시내에 새집을 짓자고 제기할 때마다 나의 눈앞에는 토굴집에서 고생하는 우리 인민들의 모습이 떠올라 반대하군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군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작은어머님, 안 그렇습니까?》

누구도 수긍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의 심장은 세한 격양으로 쿵덩쿵덩 뛴뛰었다.

지금도 그때의 그 박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장군님을 향한 절절한 아뢰임으로, 웨침으로 살아나오는듯싶다.

아, 김일성장군! 그분이 아니시라면 어찌 이 땅이 우리 조선민족의 삶의 터전으로 남아있을것이며 이 땅우에 우리 겨레의 생명의 불꽃과 래일의 희망이 살아있을것인가?!

하늘을 올려다봐라, 하늘의 태양을 봐라, 태양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우에서 빛나고있지 않는가!

땅속에는 개미들의 집이 있고 땅우에는 새들의 집이 있으며 사람들은 빈부귀천에 따라 움막집과 토굴집, 초가집과 기와집 그리고 궁궐에서 산다.

수수만년 굳어져온 인간생활의 이 단순한 리치를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완강하게 부정하고계신다.

그 어떤 선언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실천행동으로 그 수범을 보여주계신다.

《리당위원장동무, 이번에 마을에 군대동무들이 휴가를 받고온 일이 있었습니까?》

장군님께서 화제를 돌리시였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유별히 관심해주는것을, 더우기 그런 문제가 공적인 용건으로 취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화제의 중심에 놓이는것을 제일 싫어하고 질색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예, 한번에 4명이나 왔다갔습니다. 뒤마을에 사는 서령감네 막내랑 또 살구나무집 둘째랑 해서 말입니다. 어찌나 반가워들 하는지 없는 살림에도 돼지를 잡는다, 닭을 튀긴다 하면서 정말 굉장했습니다. 온 마을이 개신장군처럼 맞아들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기 전날까지 저녁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한다 하면서 야단법석이였습니다. 꼭 명절같았습니다.》

나이지숙한 리당일군이 그때의 감흥이 되살아나는지 흥분된 어조로 설명해드렸다.

《그렇습니까? 거 정말 잘했습니다. 원래 우리 만경대사람들이 인심은 후했지요.》

《원수님, 우리 군대삼촌 잔치했어요.》

아까부터 어른들의 오가는 말을 유심히 듣고있던 복남이의 꼬마친구 영호가 이때라고 생각했는지 한마디 끼어들었다.

《오, 그래-》

장군님께서서는 겨울바람에 살갓이 터서 러슬러슬 해지고 사과알처럼 빨개진 그 애의 오동통한 앵두볼을 정답아 다독여주시였다.

《그러니까 휴가기간에 결혼식까지 하고 간 동무가 있습니까?》

《그렇다우. 장군, 내가 소개를 했다우. 처녀총각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도 격식대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가에 내가 난생처음 그런 일을 해보게 됐다우. 말주변도 없는 내가 말이우.》

삼촌어머니가 열적어하며 아뢰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진정으로 기뻐하며 큰소리내어 웃으시였다.

《소장동무는 그런 부탁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 작은어머님보다는 그래도 소장동무가 더 낫겠는데.》

그때 나는 왜 장군님께서 나에게 그에 대해 물으셨는지 그 자리에서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였다.

《저도 받긴 받았는데 일이 바빠 그만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발명이나 하듯 어줍게 말쑤드렸다.

《소장동무가 아무리 일이 바쁘다 한들 소개야 왜 못해주겠소. 름근마을 주민들의 구성상태와 생활을 손금보듯이 알고있는 소장한테야 식은죽먹기 일텐데 말이요.》

두고두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게 내 일처럼 아쉽구만. 일이 바쁜 나도 가끔 훌륭한 처녀총각들을 볼 때면 소개를 해주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어디 그들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야 말이지요. 아마 김일성이란 사람은 일제놈들이나 미군놈을 답새길줄이나 알지 자기 자기하게 처녀총각들의 소개를 하는덴 영 깜깜인



줄 아는 모양이요. 어떻습니까, 내가 소개를 하면 작은어머님보다 잘할것 같습니까?》

통답이라고 보기엔 장군님의 표정과 어조가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이신지 쉬이 분간키 어려웠다.

하지만 장군님과 소개군이라는 개념이 너무도 하늘땅차이여서 통답과 진답을 구분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하하, 호호 웃음의 물동으로 몸들을 들썩거렸다.

어른들이 옷자 복남이네들도 한들거리는 나무가지에 앉아 쫘지를 달씩거리는 작은 새처럼 덩달아 웃음보를 터뜨렸다.

《아무렴 나같은 촌아낙도 하는데 장군이 못하실가? 얼싸하게 하구말구요. 이제 당장이라도 할수 있다우. 정말이지 우리 장군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아무때나 그저 마음이 즐겁다우. 온종일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장군의 말씀만 듣고 싶다우.》

이때 《어험!》하고 삼촌이 헛기침을 낚았다.

누구를 핀잔할 때면 삼촌은 늘 경고사격처럼 헛기침부터 내군 하였다.

《원, 푼수없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래 장군더러 처녀총각소개라니 가당한 일이요? 점점한다는 소리들이, 쫘쯔!》

아마 삼촌어머니의 《독판치기》에 어느 정도 짜증이 나신 모양 끌끌 혀를 찼다.

삼촌의 악의없는 핀잔에 삼촌어머니는 대번에 자라목이 되었다.

《작은아버지, 혼사는 가문의 대사이자 나라의 대사이니 그게 바로 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로부터 싸움은 말리고 혼사는 붙이랬다구 누가 날더러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우정 밥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해주고싶은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나라의 미래가 더욱 창창해집니다. 시집장가는 처녀총각들에게 결혼선물로 가장집물이랑 갖춰진 번듯한 기와집을 안겨주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려운 때이지만 미래를 낙관하는 그들의 인품이 돋보여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서군 합니다. 새가정을 이룬 그들이 당장 거처할 집걱정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 엄동설한에 신혼부부더러 어둡고 비좁은 반토굴집에서 자라구 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가슴아픕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집이 없어 헤어져있게 되면 사람들은 이 김일성이 그들을 견우직녀로 만들었다고 두고두고 욕할거란 말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시름겨운 웃음을 지어보이시었다.

《그렇다고 집때문에 너무 걱정할건 없습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솟아오르는 보름달처럼 밝게 웃으며 신심에 넘쳐 말씀을 이으시었다.

《앞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들에 룬환선거리

가 형성되고 곳곳에 다층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되면 우리 인민들이 토굴집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했지만 도시뿐아니라 농촌마을들에도 문화주택을 대대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소장동무도 그렇고 작은어머님도 혼사가 제기되면 솔선 나서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집은 한두달사이에 지을수 있지만 맘에 드는 배필을 얻는건 집짓기보다 더 힘드니 말이요.》

이날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소개이야기를 통해서도 나는 우리 내무원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면 그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구석구석까지 헤아리며 그들과 언제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것을 심장으로 깨달았다....

밤은 깊었다.

내가 일기를 마감하려는데 아직까지 자지 않고있던 철없는 복남이가 《아버지, 반토굴집이란건 뭐냐?》하고 물었다.

《원수님은 왜 그런데서 사시냐? 아버지, 다음번에 원수님 오시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자고 하세요. 우리 집은 반토굴집이 아니잖나요?》

나는 복남이한테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그저 말없이 그 애의 머리를 쓸어줄뿐.

김일성장군님을 또 언제면 뵈을수 있을까?

《석현동무, 이 땅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는건 미제원썹놈들의 머리우에 폭탄을 떨어는것이나 같소. 아무렴 용광로를 하나 복구한것에 비기겠소. 그러니 동무안해가 몸조리를 잘해서 꼭 순산하도록 하오.》

떠나시면서 남기신 장군님의 은정어린 말씀이 이 한겨울밤에도 나의 마음을 꽃피는 봄날로 이끌어간다.

아지랑이 자글자글 춤추고 온갖 예쁜 꽃이 나를 반기는 따뜻한 그 봄날로!

### 3

—1954년 10월 23일 토요일—

오늘 오후 김일성장군님께서 만경대로 나오시었다.

전쟁기간 한번도 뵈지 못했던 그리운 조부모님들을 만나뵈고 안부를 묻기 위해 삼복철이었던 지난 8월 초하루날에도 시간을 내어 고향집을 방문하시였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한몸을 바치신 아버님, 어머님의 뒤편까지 합쳐 효도를 다 하시려는 장군님의 그 고매한 인간적품모와 소박한 진정은 매번 우리의 심금을 울렸었다....

...김보현할아버님을 만경대로 모셔온 그날 나는 할아버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임자 이름이 김석현이라구?》

지나온 인생의 만단사연이 한점으로 응축되어 있는 듯싶은 정채도는 안광을 가늘게 쪼프리며 나를 찬찬히 더듬어보시던 할아버님께서는 내심 그 무엇인가를 긍정하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힘한 왜놈의 세상에서 죽지 않고 용케도 살아있었구만. 장하네. 자네 아버지도 정말 용한 사람일세 그려.》 하고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었다.

그때 나는 너무도 어리벙벙하여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할아버님께서 나를 누구와 착각리신게 아닐가?

불현듯 장군님을 처음 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장군님께서 내 이름을 들으시고 누구와 혼동한 것 같다고 하셨다. 그것은 십분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장군님께서 직접 만나본 사람만 해도 수천수만을 헤아리거니와 만나지 못하시고 이름만 들어 알게 되신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나를 누구와 착각리셨을 리는 만무했다.

착각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나에 대해 아셨단 말인가?

방금 도착해서 아직 형록삼촌이 나에 대해 이야기할 계제는 못되었을 텐데.

《자네 어릴적 모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구만. 그때 갈아서는 자네가 사람구실은 커녕 목숨이라도 붙어있겠는가 걱정했었는데!》

그 소리에 나는 점차 할아버님께서 나를 그 누구와 혼동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자네 아버지는 참 덕의심이 깊고 어진 사람일세. 옛적에 남의 돈을 몇푼 꺾은 신세를 목숨으로 갚았으니 말일세!》

나는 왈카 눈물이 솟구쳤다.

고개를 수축했다.

그것이 여태껏 버르고 별러운 조부모님들 앞에 엄숙하게 두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리라 다짐했던 사죄의 전부였다.

조부모님을 모시러 떠나기 전날 형록삼촌이 밤새 위가며 편지를 쓰시던 일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분명 할아버님은 삼촌의 그 편지를 통해 나에 대해 알게 되었으리라.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과거, 우리 가정의 그 비밀은 나와 동생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아닌가?

나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할아버님, 할머니, 내 삼촌과 함께 부모님들의 묘소랑 해서 마을을 한바퀴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조부모님들께 공손히 말씀드리고 사립문을 나서시었다고 한다.

쪽빛으로 번들거리는 가을하늘, 그아래 펼쳐진 붉고 노란 단풍과 풍요한 전야, 어디서나 기쁨과

희망이 물결치고 있었다.

내가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갔을 때는 삼촌과 함께 부모님의 묘소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나는 장군님께 다가가 경례를 드렸다.

장군님께서 묵묵히 손을 들어 답례하시고는 《작은아버지, 전쟁때 미국놈들이 부모님들의 묘비를 못쓰게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묘비는 언제 새로 세웠습니까?》 하고 물으시었다.

《할아버님이 미국놈과 원쑤들의 만행으로 력대 조상들의 묘비와 장군 아버님과 어머니의 묘비가 파손된 것을 보고 몹시 가슴아파하셨네.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소.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할아버님을 도와 이번 청명날에 묘비를 새로 만들어 세우고 묘소 주변도 정리하느라 했네. 헌데 갑자기 만들어세우다보니 묘비가 원래 세웠던 것보다 못해서 정말 장군께 미안하게 됐네. 형님과 형수님 볼 면목도 없구... 내 이제 묘비만이라도 다시 잘 고쳐 세우겠네.》

삼촌의 목소리는 자책감에 젖어서인지 침울하게 들렸다.

그때 나의 심정도 삼촌과 다를바 없었다.

나의 눈앞에는 온 만경대사람들이 일가분들의 일을 자기 집일처럼 아니, 나라를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김일성장군 부모님들의 묘소를 꾸리는 이 일이야 명실공히 나라일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떨쳐나 돈과 전설자재들을 아낌없이 기증하며 극성을 부리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일가분들이 그들을 만류하느라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렸는가.

우리 동무들도 가만있을 리 만무했다.

우리 동무들이 주동이 되어 묘소의 비둘만이라도 전보다 크게 만들어세우려고 했지만 조부모님이 이미 마련해둔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극력 만류하셨다.

삼촌은 그때 목이 다 쉬었고 일생에 지금처럼 말을 많이 해본 일은 없었다며 그만 성화를 먹이라고 통사정을 하셨다.

그래서 묘소 주변만 일추 거두느라 하고 그만 공사를 끝냈었다.

《작은아버지!》

장군님의 음성에는 불만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하긴 너무도 당연하신 것이다.

장군님의 부모님 묘소 하나 온전히 꾸려놓지 못한 죄책감으로 삼촌도 나도 정녕 몸둘바를 몰라 했다.

《작은아버지, 지금 전쟁을 방금 겪고나서 인민들이 아직 토굴집에서 다 나오지도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묘소를 이렇게 꾸렸습니까?》

삼촌도 나도 수그렸던 머리를 치어들었다.

뜻밖에도 장군님의 감정은 결코 그런 뜻의 색채가 아니었던 것이다.

《파손된 묘비는 다시 고쳐세운다 해도 묘지는 왜 귀중한 세멘트를 써서 이렇게 꾸려놓았습니까?》

흙바닥의 묘소주위에 새로 차갈을 깔고 그 둘레에 몇개의 세멘트판석을 입힌 것과 돌담을 쌓고 승

승한 구멍을 세멘트혼합물로 메꾼것이 《이렇게 꾸러놓은》것의 전부이건만!

《작은아버지, 이렇게 하는것은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우리 인민을 위한 일도 아니며 더우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작은아버지도 잘 알고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허례허식을 반대했는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한것은 부모님들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집안사람들이나 기와집에서 배불리 먹고 남부러운것없이 살게 하자고 간고한 혁명의 길에 목숨을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온 조선민족이 다같이 행복하게 잘사는 그날을 위하여, 그런 나라를 세우자고 부모님들이 몸바쳐 싸운것입니다. 돌아가신분들의 립장을 봐서라도 이런 일이야 인민들의 생활이 좀 편인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진정으로 가슴아파하셨다.

《내 소견이 짧았던것 같네. 그래도 옆에 일가친척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상한 묘비를 그냥 두고있겠는가 하는 생각에만 움해있다니니...

돌아가신이들에게야 묘소가 집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도 말리지를 못했네. 그래서 이렇게 된거네.》

삼촌이 변명조로 말씀드리면서 길게 한숨을 내었다.

《작은아버지, 앞으론 내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인민밖에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장군님 한평생의 좌우명이 아닐가?

그것이 만민이 장군님을 우러르게 하는 절대적 권위였고 위엄이었다.

그래서 그이에 대한 열화의 충정은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의 심장에서 분출하는 랑심의 결정인것이다.

이윽하여 장군님께서서는 나를 향해 돌아서시었다.

《소장동무, 사람을 세워놓고 안됐소. 집안이야기를 하다나니 좀 길어졌구만.》

랑해를 구하시는 장군님의 표정은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어조는 봄바람처럼 온화했다.

《석현동무, 오늘이 동무의 둘째아들 백날이라지? 안해의 건강은 어떻소?》

나는 삼촌내외분을 비롯한 일가분들이 원심을 써주시며 꼴과 미역 등을 마련해주셔서 몸이 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다.

《아이이름은 어떻게 지었소?》

《복만이라고... 만경대에서 만복을 받아안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안해가 몸을 풀러 친정에 간 사이 우리 가족은 장군님의 은정으로 새로 지은 기와집으로 이사를 했었다.

삼촌과 함께 마을을 돌아보신 장군님께서서는 《작은아버지는 이길로 협동조합에 나가보겠다고 하셨지요?》 하고 물으시었다.

《나가봐야 할것 같네. 장군이 오늘 우리 남리협동조합을 현지지도하면서 주신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토론해야겠네. 아마 모두들 민주선전실에 모여 날 기다릴거네.》

《작은아버지, 그럼 토론을 마친 다음 저녁에 늦지 않게 이 소장동무네 집에 가보십시오. 작은어머님도 복만이 백날이라구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더군요. 난 이제 소장동무네 집에 새집구경을 가려고 합니다. 아이 백날도 축하할겸 말입니다.》

그리하여 장군님을 우리 집에 모시게 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담하고 정갈한 살림방이며 집내부를 둘러보시며 깨끗하게 잘 꾸렸다고 나의 안해를 치하해주시고 허물없이 달려와안기는 개구쟁이복남이의 땀젖은 머리를 어루만져주시었다.

지금도 나의 눈에 선히 안겨온다.

몹소 부엌아궁을 들여다보시며 흐린 날에는 내굴이 내지 않는가, 장마철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가 하시며 물독의 위치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던 장군님의 다심하신 그 영상이.

이윽하여 장군님을 방안으로 안내한 나는 농작에서 옷칠을 한 함속에 보관해두었던 옥돌거부기를 보여드렸다.

《이게 동무네 집의 가보인 그 경복궁 옥돌거부기구만.》

펼친 손우에 올려놓고 대뜸 단정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나는 그만 어안이 병병해졌다.

우리 집에 그런 물건이 있다는것을 장군님께서 어떻게 아셨단 말인가?

의문이 놀람을 낳았고 놀람은 더 큰 의문을 낳았다.

나는 여직 그 누구에게도 이 옥돌거부기에 대한 말을 비쳐본적이 애초 없었기때문이었다.

《석현동무의 눈이 커지는걸 보니 뭔가 의문스러운 모양이구만. 그런것도 모르고서야 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수상을 하겠소? 그렇지, 복남아?》

장군님께서서는 무릎우에 앉힌 복남이의 불을 다독여주며 즐겁게 웃으시었다.

《복남아, 이 거부기등에 써여진 글자가 무슨 뜻인지 넌 모를테지?》

흥미가 동하여 옥돌거부기를 들여다보던 복남이가 대답대신 머리를 끄덕였다.

《이 글의 뜻은 이렇다.》

장군님께서서는 한자한자 거부기잔등의 글을 짚어가며 그 뜻을 풀이해주시었다.

《원수님, 임금이란건 뭐나요?》

복남이가 물었다.

《그건 왕이란 말이다. 왕이 있어야 백성이 있다는 뜻인데 그건 아주 옳지 않은 말이다.》

《그럼 나쁜 소리나요? 그런데 형님들은 날 보고 세상에서 왕이 제일 세대요. 원수님, 제일 센 사

람이 왕이면 우리 나라에선 원수님이 제일 세니까 원수님이 왕이지요?》

철없는 복남이는 저도 뭔가 들은 소리가 있다는 듯 사정없이 재깅거렸다.

《아니다, 그건 틀린 말이다.》

《그럼 그 말도... 나쁜 소리... 나요?》

복남이의 겁기어린 목소리가 누에실처럼 가늘게 이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왕은 바로 너희들, 아이들이란다.》

복남은 무슨 말인가 하여 눈을 동실하게 치뜨고 대꾸없이 깜빡거리기만 했다.

《석현동무, 나라면 말이요, 이 거부기의 잔등에 이런 글을 새겨놓고싶구만. 〈백성이 있어 나라가 있고 임금도 있도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본은 아이들인즉 아이들의 궁전부터 지어야 계계승승 나라도 영구하고 백성들도 흥성해진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대궐부터 짓는다면 너는 역적이다.〉 라고 말이요.》

순간 나는 숨엄한 감동에 휩싸였다.

난생처음 듣는 말씀.

나의 귀전에는 불현듯 동생이 하던 말이 들려왔다.

일군들은 얼마전 장군님께 당장 새 저택을 짓지 못한다 해도 그 설계도면만이라도 보아주실것을 간청드렸다고 한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속담에 시집도 가기 전에 기저귀부터 장만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후날 집을 짓는다 해도 규모를 크게 하거나 화려하게 설계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오금을 박으셨다고 한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평양에 아이들을 위한 궁전을 하나 크게 지으려고 한다고, 동무들이 설계하겠으면 먼저 소년궁전부터 설계하라고, 그걸 설계할 때에는 동무들이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크고 화려하게 설계하라고 이르시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엇그제 있던 일인데...

《석현동무는 내가 어떻게 동무네 집 가보에 대해 알고있는가 하고 의아쩍게 생각할거요. 그러나 여기엔 놀라운게 하나도 없소. 동무를 내무기판으로 떠나보낸 뒤 동무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님을 찾아왔다고. 이 옥돌거북기를 할아버님한테 드리겠다고 말이요.》

아니, 그럼 아버지가 여기 만경대를 찾아왔었다 말인가?!

헌데 아버지는 왜 그에 대해 나에게 귀뜸조차 하지 않았을까?

《그런걸 할아버님은 받지 않고 끝끝내 돌려보내셨다고 하오. 죽지 않고 살아서 나라의 해방을 맞은것만으로도 고망년의 그 빛은 다 갚은셈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요. 그래서 내가 동무네 집 가보에 대해 알게 된거고 또 동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

신가 들은적이 있던 이름이어서 꼼꼼히 기억을 더듬어보았던거요.》

나는 부끄러웠다.

그런줄도 모르고, 숫제 그런줄도 모르고 난?!

《장군님, 그러니 이 가보의 진짜주인은 바로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신 김일성장군님 한분뿐이십니다!》

나는 걱정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웨치며 함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석현동무, 그러니 날더러 동무네 가보를 받으라는거요? 내가 그걸 가져 뭘하겠소. 이 옥돌거북기를 타고 룡궁으로 갈수는 없는거구 그렇다고 소년궁전을 지을 때 대원군령감처럼 거기에다 물어놓을 필요야 없지 않겠소. 이때저때 나한테는 쓸모가 없구만. 조선봉건왕조 말기의 돌가공술을 연구하기 위해 조각가들한테나 보이면 어떨는지 말이요.》

장군님께서는 랑해를 구하는듯 혹은 나를 달래이듯 눈을 깜빡하며 웃으시었다.

그러나 나는 장군님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청이 있었다.

《장군님, 언제면 새집으로 옮겨가시겠습니까?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그리고 조부모님과 삼촌내외분도 초가집에 그냥 계시니 인민들이 저희들을 욕합니다. 왜 너희들만 이렇게 해빛밝은 좋은 새집으로 이사와서 사는가고 말입니다. 죄스럽습니다, 장군님!》

사뭇 격하여 나는 절절히 말씀드렸다.

《집이라?... 동무는 또 집소리를 하누만... 어서 앉소.》

장군님께서는 나의 손을 이끌어 자리에 앉히시었다.

《나에게 있어 집이란 뭘겠소? 내가 만경대를 떠나 혁명의 먼길에 오른 첫날부터 인민은 내리는 눈비를 가려주었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었으며 극진히 돌봐주었소. 그래서 인민과 함께 있으면 배고픔도 추위도 모르고 절망도 죽음도 모른다는것이 나의 신조이며 인생관이요. 그렇게 놓고볼 때 나에게 있어 집은 바로 인민의 품이며 인민은 나를 낳아키워준 고마운 부모형제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

《우리가 피흘려 지킨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누구를 위한 집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을 위한 요람이고 집이란 말이요. 나는 지금 내가 사는 반토굴집이 이 땅의 마지막토굴집이 되고 우리 일가가 사는 초가집이 이 땅의 마지막초가집이 되기를 바라오. 왜냐면 애국애족의 주추와 기둥우에는 헌신의 대들보를 얹어야 하기때문이요. 아무리 견고한 주추와 무쇠기둥이라 해도 그우에 특세와 특권의 룡마루를 지질러놓으면 집은 무너지고마오!》

장군님께서는 조금 흥분한듯싶으셨다.

《소장동무, 나뿐아니라 우리 조부모님과 삼촌내외분도 남달리 대해주려 해선 안되오. 듣자니 동무



들이 우리 집안사람들을 존경해서 어디 갈 때면 보  
집도 들어주고 차도 얻어다준다는데 그건 다 동무  
들이 나와 우리 일가를 갈라놓고 나와 인민들을 갈  
라놓는 행위요. 우리 부모님의 묘소를 꾸러놓은 일  
도 바로 그렇소. 동무네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되  
오. 알아두오, 인민을 위해 내가 있고 우리 가문  
이 있는거요!》

아, 장군님, 장군님 계시여 우리 조국이 있고 만  
경대가문이 있어 우리 인민이 있으며 휘황찬란한  
우리의 미래가 있는것이 아니옵니까!

우리 집안만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온 민족  
이 이날이때껏 만경대가문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  
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의 대가로  
오늘의 우리 민족의 삶이 있고 번영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군님께서는!...

가슴설레이던 그 충격을, 세차게 걸뛰는 감동과  
그이에 대한 산악같은 믿음과 하늘같은 존경, 한  
생토록 오직 그이만을 따르고싶은 그 강렬한 지향  
과 격조를 내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단 말  
인가?!...

...장군님께서는 우리 복만이의 행복한 장래를 축  
복해주시고 온 식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녁길  
을 떠나시었다.

장군님께서 이밤 찾아가시는 곳은 과연 그 어느  
공장일가, 농촌일가? 밤늦어 긴장한 현지지도일정  
을 마치시면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 반토  
굴집으로 향하실것이다.

나는 만경봉으로 올라갔다.

그름이어서 아직 달은 뜰지 않았고 주위는 캄캄  
하지만 만경봉에서 내려다보는 이 땅은 마치 대낮  
처럼 밝아보였다.

느닷없이 언젠가 썼던 일기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하늘을 올려다봐라, 하늘의 태양을 봐라...》

나는 더욱더욱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높고 우주는 가없이 넓어도 그 어디에 태  
양의 집은 없다. 그것은 온 우주가 그대로 태양의  
품이요, 태양의 집이기때문이 아니겠느냐.

그 넓고 따뜻한 집에서 달이 살고 별들이 살고 무  
궁토록 세월이 흐르나니.

아침저녁으로 태양은 우주의 창가에 화려한 노을  
의 꽃바다를 펼쳐놓고 달은 태양의 집을 정히 쏘고  
닥고 별들은 태양의 은혜로움을 길이길이 찬양하며  
축복의 빛을 뿌려 하늘세계를, 우주를, 태양의 집  
을 단장하고있다.

태양이 없는 우주에 빛이 없고 생명이 없듯이 바  
로 것처럼 우리 장군님의 품을 떠나 인민의 삶은  
어디에 있으며 그 삶이 싹트고 자라는 집은 또 어  
데 있단 말인가.

집은 삶의 보금자리이고 행복의 요람이다.

우리 장군님의 아버지품은 바로 우리 인민의 삶  
이 뿌리내리고 만복이 꽃피나는 영원한 집이다!

눈부신 오색광망에 휩싸여있는 길숙이 패인 골짜

기와 우썹우썹 어깨걸고 일떠선 웅장한 산봉우리들  
과 소리쳐부르면 금시 으아— 으아— 호응할듯싶  
은 우중충한 숲과 그리고 산기슭과 평지, 언덕우  
에 서있는 집들을 향해, 태일엔 궁궐로 우뚝우뚝  
일떠서게 될 그 집들을 향해 이밤 나는 그렇게 소  
리높이 웨쳤다!

## 이야기를 끝내면서

—21세기 10년대 만경대풍경—

만경봉에 올라 바라보면 예나제나 고향집은 추녀  
낮은 초가로 이 땅위에 서있다.

그가까이엔 웅장화려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솟  
아있고 사방엔 숲을 이룬 고층살림집들이 겨금내기  
로 키를 솟구며 펼쳐져있다.

거룩한 만경대가문의 애국의 뿌리가 내린 옛 산  
당집, 그나마 빗값에 빼앗길번 했던 이런 초가와  
같은 집은 영영 이 땅에서 사라져 오늘날은 그 흔  
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되었다.

행복과 희열에 넘친 이 땅, 머지않아 강성국가  
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이 땅 어디서나 힘차게  
울려퍼지는 노래 《발걸음》의 의미는 비사히 큰  
것이다.

그것은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만경대가문의 혈통  
이 천추만대로 굳건히 계승되고있으며 세기와 세기  
를 이어 이 나라 인민들에게 영원토록 안겨지는 한  
없는 아버지사랑과 은혜의 계승임을 확신하는 력사  
의 찬가이기때문이다.

2012년 9월 4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평범한 인민들이 만복의 보금자리를 편 웅장화려  
한 창전거리의 살림집들을 찾으시여 베풀어주시는 사  
랑의 화폭을 목격하면서 온 세상이 그것을 절감하  
였다.

### 성구, 속담 (도덕과 레절, 희망)

- 레절은 우정의 표현이다
- 레절은 매력도 있고 리득도 있다
- 남을 존경해야 자기도 존경을 받는다
- 손님에게는 밥을 아끼지 말라
- 실없이 웃는자 존경을 못 받는다
- 좋은 손님은 시간을 안다
-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보다는 주먹을 부  
르주고 고개를 들라
- 겨울을 무서워말라. 그뒤에는 봄이 있다
- 가벼운 교통은 말로 표시된다. 큰교통은  
침묵한다
- 생활을 즐길줄 아는 사람은 불행을 무서  
워 안한다
- 참을성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승리한다

# 나의 첫 당세포

백 의 선

무엇때문인가  
일터와 세포는 바뀐지 오래도  
첫 당세포여  
언제나 내 마음  
그대 가까이 있음은

나에게 처음 망치 쓰는 법을 익혀주던  
다심한 손길 거기 있기때문인가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스러운 당기앞에 다진  
내 삶의 첫 맹세가 거기서 울린때문인가

잊지 못하노라  
태어난 고향집을 못 잊듯  
작업반 당원들이 모이군 하던  
기계화직장의 기름내 풍기는 작은 휴게실을

잊지 못하노라  
아버지의 정겨운 목소리를 못 잊듯  
나에게 첫 분공을 주던  
당세포비서의 석션한 그 목소리를

어디 가도 가슴에 안겨오더라  
내가 짝은 제품의 작은 흠집을 놓고  
당원의 량심을 준절히 타이르며  
반장아바이 같이 걸어주던 저녁퇴근길  
밤하늘에 반짝이던 그날의 별들이

평범하고 수수한 말속에  
가장 빛나는 삶의 뜻을 담을줄 알고  
스스로 일을 찾아  
제 한몫 맡기는 그 사람들속에서  
나의 심장은 커지고  
나의 의지는 강철같이 억세어졌거니

나는 알았노라  
그대의 분공을 수행하던 나날에  
당원이 지닌 심장의 박동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뛰어야 하는가를

첫 당세포여  
어머니와 고향을  
누구나 자기 운명과 떼어낼수 없듯이  
그대 한치도 내 숨결과 떼어낼수 없노라

평범한 나의 삶에  
성실한 로동속에서  
신성한 당의 위업을 내 어깨우에도 떠메워주며  
혁명가의 참된 삶으로 길러주고 빛내준  
그대는 나의 요람 영원한 고향

소박하고 억세인 그 사람들속에서  
내 마음 언제나 함께 살기에  
내 걸음은 드팀없이  
생활의 목표 향해 정보로 걷노라

가장 깨끗한 나의 삶은  
수수한 로동복을 입고 다진  
그날의 첫 맹세와 함께  
가장 참되게 빛나는것 아닌가

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나의 첫 당세포여  
내 량심은 언제나 그대앞에서  
하루를 걸어도  
한생을 걸어도  
그대의 첫 분공을 수행하던  
그날의 첫걸음으로 가리라

# 어머니 생각

황 성 하

별이 돋는 한밤에도  
어머니 생각  
잠을 깬 아침에도  
어머니 생각

자식을 키우며  
머리회고 주름깊고 고생 많던 어머니  
이제는 내 곁에 아니 계시건만  
어인 일인가  
내 어머니를 찾던 그 젖은 목소리

오늘도 이 가슴속 뜨겁게 울리는것은...

가을비 축축히 내리며  
락엽을 적시던 그날  
불현듯 닥쳐온 중병으로  
내 쓰러져  
지겨운 밤의 심연에서 해매일 때

병상에 누운 내곁에  
어머니 되어준 손길이 있었어라  
그 손길은  
꺼져가던 이 몸을 따듯이 감싸안아  
귀한 불사약을 안겨주고  
최상급의 치료대책도 세워주었어라

은혜의 그 손길은  
첩첩 깊어가던 수심의 나락에서  
해빛부신 창공을 향해  
나를 번쩍 안아일으켜주었나니

내 어머니 살아계셨다면  
아서라 어머니 곁에 계셨다면  
눈물로 간장이 썩을지언정  
재생의 빛을 어이 줄수 있었으랴

아, 나를 낳은 어머니도 줄수 없는  
불같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준 품이어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침상의 하얀 베개잇을 적시며  
목메여 불러찾은 어머니 아, 어머니...

아픈 자식을 잠 못들며 쓸어안은  
어머니마음으로  
하나의 작은 생명을 위하여 기울인  
자애로운 우리 당의 그 사랑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바다의 깊이는 져수 있으리  
하늘의 높이는 져수 있으리  
하나 이 나라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  
우리 당의 뜨거운 그 사랑을  
그 무엇으로 다 져수 있으랴

이런 크나큰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발걸음 서둘러지노라  
그대의 뜻으로 내 생각을 넓히고  
그대의 숨결로 내 심장을 끓이며  
아, 나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의 미더운 자식으로 살리라!

## 인간의 향기

### 한 원 희

아침일찍 마을청소에 나가면  
밤사이 안녕한가 서로 물으며  
날마다 다정히 인사를 나눌 때가 좋더라  
그럴 때면 이웃들이 더 친근해지고  
그런 아침이 기다려지더라

아침출근길 버스에 오를 때  
전쟁로병 먼저 오르게 하는  
그런 젊은이 볼 때면 좋더라  
그럴 때면 그 젊은이 돋우보이고  
총각이면 사위로 삼고싶더라

때로는 내가 아는 중앙기관의 큰 일군  
길가에서 옛 담임선생을 만나  
아이적 그때처럼 허리 굽혀 인사드릴 때

그럴 때면 거리가 더 밝아지는것 같고  
무엇인가 모르게 가슴치는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  
지니면 사람마다 혈육처럼 가까워지고  
버리면 사람마다 남남처럼 멀어지는것  
지니면 인간이 인간으로 존경받고  
버리면 인간이 인간으로 못사는것

오, 그것이 그것이 무엇이던가  
그것은 인간사회의 향기와도 같은것  
그것은 량심처럼 귀중한 폐의도덕이더라  
그것은 조국을 받드는 초석이더라  
보이지 않는 억센 기둥이더라





박혜란

보금은 어둠속에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안도현과 무송현의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 흐르는 이도백하강을 옆에 끼고 우중충 늘어선 깊은 골안에 자리잡은 마을로 향한 걸음이다.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겨끔내기로 반짝이고있었다. 그 별들사이로 유유히 헤엄쳐가는 상현달의 모양이 꼭 아들애의 웃는 모습같다. 아들애의 얼굴을 그려보느라니 어제 아침 자기를 향해 불을 패우며 하던 그의 목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엄마, 이제 한밤 자면 내 생일이냐?》

《그래.》

《야, 그럼 나 췌기떡 먹어보겠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수수췌기떡인줄로 아는 수돌이다. 지금도 누덕이불속에 몸을 묻고 췌기떡을 먹는 꿈을 꾸고있을지도 모른다.

보금은 아들애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어제 해종일 산을 뚫으며 곰취와 두릅을 뜯었다. 그것을 팡주리에 담아이고 또 고개를 넘었다. 해가 저물도록 인가를 찾아 헤매였건만 내남없이 풀죽으로 끼니를 예우는 보리고개철이여서 머리에 별을 이고서도 집으로 발길을 돌리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요행 난알을 차고있는 집을 만나 얼마 안되는 수수쌀이나마 산나물과 바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보금은 아들애를 품에 안듯 수수쌀주머니를 가슴에 꼭 그러안았다. 그러자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왔다. 오늘이 아들애의 생일날이라는것을 잊지 않았다면 점점고무신 한켠케라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설지 어이 알라.

불시에 그리움이 북받쳐올랐다. 남편이 집을 떠난지도 인제는 두해가 되었다. 동만을 휩쓸었던 5.30폭동바람이 교하땅에 불어쳤을 때 남편은 샅집지계를 진채로 거리에 나섰다가 왜놈경찰서에 붙들려갔었다. 죽도록 매를 맞고 풀려나오는 길로 부어오른 허리에서 쑥피도 풀지 못한채 독립군을 찾아 길을 떠난 남편이었다.

그이가 지금 어디에서 배를 굶고있지나 않는지...

지금도 집을 떠나면서 남편이 하던 말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여보, 왜놈쳐부시는 총소리가 나거들랑 거기에 내가 있는줄로 알아주요.》

그러면서 왜놈치고 돌아오거들랑 수돌이랑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었다.

보금은 놈들의 행패가 심해질수록 독립군의 총소리를 애타게 기다리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독립군들이 있다는 이도백하쪽으로 마음을 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날 오막집의 세간들을 모아 이사짐을 꾸렸었다. 세간이라야 작은 솔 한개와 누덕이불 한채가 전부였다. 그리고 두살잡이 아들애가 있었다. 독립군들이 있다는 통화지방은 멀고도 넓었다. 몇십밤이 흐르도록 걷고걸어 드디어 여기 이도백하마을에 당도했었다. 보짐을 풀어놓은지도 2년남짓이 되었건만 가물에 콩나듯 했하던 독립군의 총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모연하라는 독립군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그래도 모연군의 발길이 집앞에 멎을 때면 보금은 남편의 소식을 들을것만 같아 남편저 문을 열어주곤 하였다. 시집올 때 남편이 머리에 얹어준 동비녀마저 독립군의 모연배낭에 넣어주면서 남편의 소식을 부탁해보았건만 해가 가도 기다리는 남편소식은 쏜 화살마냥 돌아올줄을 몰랐다.

그런데 마을 가까운 곳에서 마침내 총성이 터져 오를줄이야.

바로 그제였다. 보금은 골안을 들부서대는 총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세차게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소리나는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물방으로 터지는 총소리는 분명 안도에서 무송으로 가는 도로쪽에서 들려오고있었다.

(혹시 수돌이 아버지가?...)

그 총소리가 남편이 보내오는 소식인것만 같아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그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이웃댁과 함께 총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산을 내려 새벽안개가 자욱한 이도백하기슭에 다달았을 때 보금은 너무도 희한한 광경에 숨이 짝 막혀버렸다. 백눈 가까이 되어보이는 왜놈군대가 시체가 되어 락엽마냥 도로주변에 휘뿌려져있었던것이다.

이렇게 많은 왜놈들을 죽인 군대는 도대체 어떤 군대일까.

이 시각 두 녀인은 자기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한 반일인민유격대가 남만으로 가는 길에 소영자령에서 왜놈수송대와의 첫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행군을 계속하던 중 이도백하를 낀 대도로에서 왜놈한개 중대와 또다시 조우전을 벌려 무리로 요정냄으로써 안도—무송현정전투에서의 대승리라는 후세에 길이 전할 빛나는 공적을 이룩한데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술한 왜놈들의 시체가 까마귀밥신세가 되어 길가에 덩굴고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었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놈들의 주검을 통쾌하게 바라보며 이웃댁은 속시원한 울음을 터뜨렸다.

《수돌 에미, 저놈들이 뒤편 꼴을 좀 보라구. 분명 우리 군대가 한 일일거야. 독립군이 내 령감 한을 풀어주자구 한 일이란 말이야. ...》

웅어리졌던 가슴속 상처를 눈물로 씻어내는 이웃댁의 탄식을 듣노라니 모연나온 독립군을 외면한적도 있었던 자신의 처사가 민망스럽게 돌이켜졌다. 한편 허리끈을 조이며 모연한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강한 생각도 들었다.

멀리에서 시체를 거두러 오는 경찰놈들만 아니었

더라면 보금은 이웃댁과 함께 통쾌하게 흐르는 이도백하의 물가에 앉아 해를 지웠을지도 몰랐다. 보금은 집으로 가면서 남편을 금시 만날것만 같아 가슴이 설레었다.

(여보, 당신이 낸 총소리를 들었어요. 우릴 못살게 굴던 왜놈들이 꼴좋게 죽어넘어진것을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나와 수돌이가 여기에 있다는걸 당신이 알면 아마 기뻐서 달려오겠는데...)

이웃댁이 그러는 보금을 재촉하며 입을 열었다.

《수돌 에미, 이런 뎨 날개라도 있으면 좋겠구만. 내 그들이 마을에 오면 종자량곡도 아끼지 않고 대접하겠어. 어서 서두르자구. 수돌 에미서건 우리 군대가 벌써 마을에 들어섰을지도 모르니.》

《아이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발가락이 잡판목가시에 찢려도 걸음은 나는듯 가벼웠다. 마을에 당도했을 때 모연하라고 웨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그들을 기쁘게 했다. 보금이와 이웃댁만이 아니었다. 새벽에 총소리를 들은 마을사람들이 너도나도 달려나와 독립군대원을 에워쌌다.

이웃댁은 다짜고짜 왜놈죽인 부대가 어느 군영사람들이 한 일인가를 그에게 물었다. 그러나 이도백하를 낀 도로쪽에서 왜놈 한개 중대를 요정낸 사변이 저들의 소행이 아니라지 않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들이 한 일이란단다.

이웃댁은 독립군의 배낭속에 온 겨우내 애써 간수했던 종자량곡을 주머니채 털어주고는 그 자리에서 그를 쫓아버렸다. 그리고는 보금을 향해 탄식을 터뜨렸다.

《수돌 엄마, 내 령감은 독립군에서 명줄을 끊었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죽은 사람 피값은 못할 망정 백성들의 피땀절은 쌀을 거둬만가니 숨이 가빠 못살겠어. ...》

보금은 이웃댁의 정상이 남의 일같지 않았다. 화전을 일구어 걷어들인 얼마 안되는 쌀을 모연에 바치고나니 당장 입에 풀칠할것도 없는 자기의 살림이었던것이다. 설상가상이라고 수돌이는 생일날을 손꼽아기다리고있으니...

보금은 가지치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호—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도 한숨, 저래도 한숨뿐이다. 하늘에 총총 떠있는 보리쌀알같은 별들이 진짜 씨앗이 되어줄순 없을까?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팍흫터 실컷 농사라도 지어보련만.

이루지 못할 소원인줄 알면서도 애달픈 심사를 하늘에 부쳐보느라니 궁한 자기 신세가 더 가궁스

럽기만 하다.

그의 마음을 부채질하듯 반디벌레 한마리가 보금의 눈앞에 날아와 춤을 춘다. 어둠속에서 한점 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당기는 반디벌레의 존재마저 그에게는 쌀 한섬만큼이나 부럽게 여겨진다. 암담한 세상에서 한점 빛도 없이 숨가쁘게 살아가는 자기의 신세가 저 반디벌레의 존재보다도 못한 것이다.

짓눌린 그의 마음을 위안하려는지 하늘에서는 동이 흰기 터오고있었다.

보금은 손에 들린 수수쌀주머니를 다시금 가슴에 꼭 그러안았다. 오늘이 바로 아들 수돌이의 생일날인 것이다. 마을쪽에서 장로인의 수탉이 화를 치는 소리가 그의 걸음을 재촉했다.

×

아궁안에서 장작타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오자 보금은 혼곤히 잠든 수돌이한테로 눈길을 보냈다. 날이 선 코마루며 총센 머리카락이 꼭 아버지를 닮은 아들에였다. 궁색한 살림속에서도 탈없이 무럭 무럭 자라는 수돌이를 제 아버지가 본다면 얼마나 대견해하랴.

애틀이 끓어오르는 정을 눈에 담아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도 이런 순간이면 웃음이 찾아드는 것이었다. 그러고보면 기쁨과 슬픔은 한동아리에 묶이워있는 듯싶다. 한되도 안되는 수수쌀을 구하지 못해 벌을 머리에 이고 산골짜기에 들어 박힌 인가들을 찾아다닐 때의 애모쁘던 심정이 바로 몇시간전인데 지금은 뽀얀 김을 뿜어올리는 가마를 마주하고 이렇게 시름없는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다.

보금은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수수쌀을 절구에 찧어 깎대기를 벗겨냈었다. 그것을 끓는물에 불구어놓았다가 가루를 붓아 빻은 후 가마에 익히면 수돌이가 천하별미로 여기는 수수췌기떡을 아들의 생일상에 놓아줄수가 있는 것이다.

가마속에서는 벌써 물이 요글대며 끓어오르고있었다. 하얀 김을 뿜어올리는 물소리마저 정차게 들려온다. 이제 수돌이가 잠에서 깨어나 생일떡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가난속에서도 아들의 웃음을 보는 때가 보금에게는 제일 기쁜 일이었다. 자식에게 차례질 그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 고생도 락으로 삼으며 이겨나가는 것이 어머니의 성정이라고 보금은 생각했다. 아들을 끔찍이 위해주던 남

편도 보금의 이 마음을 알고 어디선가 왜놈들을 죽치고있으리라. 정말이지 간도땅을 피바다로 만든 왜놈들에 의하여 랑집부모들을 한낱한시에 잃고난 후 보금은 혼인잔치상도 없이 머리에 나무가지 하나를 꺾아서 비녀를 얹었었다. 첫날을 보내던 그밤 남편은 온 겨울 샅짐을 저서 번 돈으로 장에 나가 동비녀 한개를 사서 보금의 손에 쥐여주었었다. 보금은 부모잃은 설움과 함께 일생가약한 남편의 그 마음이 너무도 고마와 그의 억센 품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흐느껴울었었다. 그때 남편이 하던 한마디의 말이 지금도 그의 가슴속에 고쳐친다.

《내 왜놈의 종자들을 몽땅...》

랑집부모들을 죽인 왜놈들이 남편마저 경찰서에 끌고갔을 때 보금은 하늘땅이 꺼져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남편이 왜놈들에게 매를 맞은 어혈도 가시지 못하고 집을 나설 때에도 가지 말라고 만류하지 못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보금이네가 여기 이도백하마울에 이사집을 풀어놓았을 때 그는 모연하라고 문을 두드리는 독립군에게 일생가약의 지참품인 동비녀마저 서슴없이 모연배낭속에 넣어주었었다. 그것을 보면 남편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굳이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2년세월이 흐르도록 남편소식은 종무소식인데다 날이 갈수록 살림은 조들려만 가니 지금에 와서 보금이 남편을 그리는 것은 서로 떨어져있다는 그것으로 인한 그리움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의지하여 궁색한 살림을 이겨내려는 마음속의 기등을 애타게 기다리는 녀인의 애잔한 심정때문이었다. 그러나 보금은 자기가 왜 그리도 남편을 그리워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아들의 정찬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에 가마속의 물이 줄아드는 줄도 모르고 부뚜막앞에 서있었다. 손에 바가지를 든채 남편생각에 잠겨있던 보금은 밖에서 들려오는 사나이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모연하시오, 모연이요.》

(?...)

그 목소리는 집앞에서 늘 들려오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모연하라고 연방 웨쳐대는 그 말은 인제는 귀에 너무도 익은 소리였다.

가마속의 끓는물처럼 그의 가슴은 금시 줄아드는 듯싶었다. 부뚜막앞에서 닭알난가리를 쌓지만 앉았어도 대야에는 가마속의 물이 부어져있으려면만.

하지만 낮선 사나이의 발자국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이길 어찌나?)

보금은 저도 모르게 문앞으로 다가갔다. 가슴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그런데 자기 집쪽으로 다가오던 발자국소리는 도중에서 푹 멎어서버렸다.

(혹시?...)

그러나 사나이의 목소리는 다시금 보금의 귀청을 때렸다.

《모연하시오.》

안도의 숨을 내쉬려던 보금의 가슴은 또다시 널뛰듯 했다. 어제도 가마에 메씩을 우러내던 이웃댁이었다. 제발 오늘날은 문을 열어주지 말아주었으면.

그러나 다음순간 찌그덕하고 이웃집문이 열리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아니, 쌍둥이네 어찌자고...)

그는 문설주에 살며시 몸을 기대고 사나이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문틈새로 들려오는것은 사나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웃댁의 청높은 목소리였다.

《이보시우 군대어른, 보아하니 이 마을엔 첫발을 들여놓는것 같은가본데 도대체 어느 군영에서 나왔수? 우리 집엔 부엌방당에 쌓인 먼지뿐이니 그 거라도 쓸어가겠으면 어서 쓸어가구려.》

사나이곁에선 기가 눌린 모양 대꾸가 없다. 이웃댁에게서 통을 맞는 낯모를 군대의 정상을 그려보느라니 불쑥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왜놈들을 두고서는 맘편히 살수 없다면서 샅집지계를 멘 차림새로 집을 나선 남편이었다. 그러자 부끄러운 생각이 은연중 갈마드는것이였다. 집살림이 어렵다고 부모처자결을 떠나 고생하는 사람들을 잠시나마 외면하려 했으니 남편이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섭섭해하랴.

보금은 대야속의 쌀을 주머니에 옮겨넣었다. 텅 빈 대야에 눈길만 가자 불쑥 수돌이의 웃음진 얼굴이 떠올랐다.

《야, 그럼 나 췌기떡 먹어보겠네.》

그런데 인제는 아들애의 그 작은 소원마저 이루어줄수가 없다. 수돌이의 생일상에 수수췌기떡대신 멸건 나물죽을 놓아줄 일을 생각하면 속이 알지근해온다. 아들애가 기뻐할 그 한순간을 위하여 옹근 하루낮, 하루밤을 꼬박 산속을 헤매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렇게 하는것이 남편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손이 떨리지 않았다.

언젠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

지.》 하던 이웃댁의 말도 그의 마음을 채촉하는것이였다.

부엌문을 열고 뜨락에 나섰을 때 군복차림의 키 큰 사나이가 이웃집문앞에 서있었다. 그앞에서 이웃댁은 화를 내지 못해 안달이 나하는 기색으로 사나이에겐 눈총을 쏘고있었다.

보금은 사나이의 등뒤로 다가가 조심히 입을 열었다.

《저, 얼마 안되는 쌀이지만 받아주세요.》

이웃댁의 눈길은 마주선 사나이보다 먼저 보금에게로 향해졌다. 그의 손에 들린 쌀자루에 눈길이가닿는 순간 이웃댁은 또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저 수돌넌 뭐 쌀이 있어 자루채 들고나온줄 아시우? 아들애의 생일상에 수수떡 한짝 놓아주자고 40리길을 걸어 마련해온 쌀인데...》

이웃댁은 억이 막히는듯 말을 끝내지 못하고 저 고리소매끝으로 눈굽을 찌는것이였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보금의 입에서는 여전히 이웃댁을 대신하여 용서를 비는듯 한 조심스러운 말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사양말고 어서 받으세요. 그래도 제 집을 쓰고 사는 사람의 입에 아무렴 거미줄이야 쓸겠나요.》

이때 사나이의 입에서 뜻밖에도 《보금이!》 하고 웨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

보금은 알지 못할 충격에 떠밀리워 자기를 부른 사나이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허름한 군복에 물낱은 모자를 쓰고 발가락이 빠죽이 내밀린 짚신을 신고있는 그의 모습은 눈에 익은 남편의 모습이 아니였다. 동정과 편민의 정에 끌려 다시금 사나이의 얼굴을 바라보던 보금은 그체서야 부끄러움과 반가움이 한데 엉킨 이름못할 격정을 누르며 자기를 애타게 바라보는 남편을 알아보았다.

《수돌이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푹을 터친 샘줄기를 더는 막아낼수 없어 두손을 눈가에 가져다댔다. 억실 억실한 두눈에 넘쳐나던 정경던 웃음은 어디로 사라지고 생면부지의 아낙네에게서 받은 모욕을 참느라 얼굴을 붉힌채 장승처럼 서있는 저 사람이 바로 꿈속에서도 것처럼 그리던 남편이란 말인가.

보금의 가슴을 송곳처럼 아프게 찢러대는것은 빈 배낭을 걸치고있는 남편의 보잘것없는 차림새였다. 2년전 교하에서 샅집지계를 걸쳤던 어깨우에 총을 멘다고 집을 떠났던 남편이 이렇게 빈 배낭을 메고려엄집녀인네들이 퍼주는 쌀줍이나 거뒀들이는 모

연군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상봉의 기쁨에 가슴적서야 할 그의 마음속에 실망을 안겨준 남편이 야속하고 이웃댁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다.

이웃댁은 뒤늦게야 사연을 짐작한듯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보금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보라구 수돌 엄마, 날 용서하라구. 이 못난 년이 수돌 아버지를 욕보이게 했으니 수돌 엄마 마음이 오죽하겠나. 그저 가난이 원쑤지, 원쑤야.》

그리고는 자기의 행동에 분풀이를 하듯 연방 가슴을 두드려대며 집안으로 들어가버리는 것이었다.

뜨락에는 두사람만이 남았다. 동자질을 하느라 달각거리는 소리마저 들려오지 않는 아침이었다.

이 시각 보금은 남편이 무엇을 바라고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자기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쌍이고쌍인 고달픔과 설음을 퍼내고퍼내기를 바라고있을 남편이었다. 그러나 이 시각 그는 어쩐지 이전처럼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슬픔을 퍼내지 못하는 자신이 놀랍게 생각되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속에 슬며시 깃을 퍼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이 아침은 자기 혼자만의 슬픔을 견어낼 아침이 아니었다.

그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자기와 운명을 함께 하고있는 오막집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비쳐오는 오막집들은 하나같이 자기와 같은 시름과 걱정거리들을 안고 혈떡이는듯 하였다. 하지만 아궁안의 재마냥 쌍이고쌍인 그 많은 시름과 걱정거리들을 굴뚝연기로 날려보낼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죽은 듯이 자기들의 불우한 운명을 이 아침에 내맡기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을 녹여주려는듯 남편의 큰 손이 보금의 작은 손을 슬며시 감싸주었다. 순간 보금은 가슴속에 웅어리졌던 슬픔을 끝내 터치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야말았다.

《수돌이 아버지, 이게 웬일이예요?》

그는 자기의 머리우에서 진정 미안한 어조를 감추지 못하고 송구스럽게 되뇌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이런 꼴을 보여 정말 안됐소. 사실 이렇게 당신앞에 서자고 한것은 아니었는데...》

보금은 눈물에 젖은 손을 남편의 입가까이예로 가져가며 서둘러 입을 열었다.

《아니예요, 당신탓이 아니예요.》

그러자 남편이 당한 이 억울함이 과연 누구의 탓일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이웃댁의탓도 아

니였고 남편의탓은 더더욱 아니었다. 불쑥 반발심 같은것이 꼬리를 쳐들었다. 살구꽃 화창하던 고향땅에서 쫓기운 신세, 이국땅에 와서도 상가집개만도 못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 이 가궁한 처지가 과연 누구의탓이란 말인가.

2년전 남편은 집을 나서며 보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이게 다 왜놈들탓이요.》

바로 그놈들을 쳐부시자고 독립군을 찾아떠난 남편이었다. 뜻을 품고 먼길을 떠났던 남편이 옷차림도 마음도 후줄근한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왜놈들이 망할 날은 오기나 할가? 또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오기나 할가?

보금은 남편의 손에 이끌려 수돌이가 자는 방에 들어섰다. 꿈나라에 간듯 보조개를 피우며 잠들어있는 수돌이를 바라보느라니 짧은 가마앞에서 가졌던 생각이 물먹은 벽마냥 스트르 무너져내렸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돌아설가 저어하며 남편을 향하여 급히 말문을 열었다.

《수돌이 아버지, 인젠 가시지 말아요, 네? 저와 함께 화전도 일구고 돌각담도 거뒀내여 농사를 잘지어보지요. 그렇게 되면 수돌이 하나만이라도 배를 굶기지 않을수 있잖나요?》

보금은 지금껏 자기의 손에 꼭 쥐여져있는 수수쌀주머니를 더욱더욱 내려다보았다. 수돌이의 소원이 들어있는 쌀주머니였다. 이제라도 남편이 집에 남아있겠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바라는 췌기떡을 생일상우에 올려놓아줄수가 있었다. 그런데...

보금은 자기의 눈을 피하여 말없이 고개를 떨구는 남편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안해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보금을 향하여 중얼거리듯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 미안하오. 수돌이를 당신손에 맡기고 난 떠나야 할것 같구만.》

보금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방울져내렸다. 아들을 위하여 밤길을 걷고 남들이 깨어나지 않은 새벽까지도 아들과 함께 소박한 꿈을 엮었던 자기였던 것이다. 아니, 그것이 무슨 대수랴. 날이 갈수록 산같이 쌓여만지는 온갖 시름과 고생을 돌이켜서 덜어나간다면 보금에게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일 것이다.

《빈 배낭을 쥐고 내가 온밤을 걸어 예까지 왔지만 누구도 이 모연배낭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만.》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듯 하는 남편의 한숨쉬인 말에 보금은 간청하다싶이 입을 열었다.



《수돌이 아버지, 지금은 어느 집에서나 쌀구경을 못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 군대들을 위해서 봄씨불입할 랑곡까지 서슴없이 내놓았어요. 왜놈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지지, 독립군의 총소리는 들려오지 않으니 누가 독립군을 반겨주겠나요.》

《보금이, 날 이해해주오. 어떤 모욕을 받더라도 난 모연배낭을 채워가지고 군영으로 돌아가야 하오. 이젠 우리 독립군의 군물이요.》

《?...》

보금은 간절한 눈빛을 남편에게 보내면서 방금 그가 한 말을 속으로 되뇌어보았다.

군물, 군물이란 무엇이기에 귀여운 아들에게 깨어나기도 전에 집을 떠나려 하는걸까? 인가를 찾아 몇리를 걸어야 저 배낭에 모연쌀을 채워넣을수가 있을까?

그는 수돌이의 머리맡에 놓인 수수쌀주머니를 손에 들었다. 이 쌀 반되라도 배낭속에 들어가면 남편이 가는 길이 덜어질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여보, 그 쌀은 놔두오. 수돌이가 제 소원마저 아버지가 뺏아간것을 알면 얼마나 원망하겠소.》

《아무렴 수돌이가 아버지를 원망하겠나요. 아버지를 그럴 때면 왜놈치는 총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매일처럼 묻는 수돌이가 정말로 독립군이 내는 총소리를 듣게 되면 자기의 큰 소원을 풀어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길거예요. 그러니 걱정마시고 어서 떠나세요.》

《보금이...》

《이제 어디로 가시겠어요?》

《류가분방쪽으로 갈가 하오.》

《아니, 거긴 백리가 넘는 곳이 아니예요?》

《질러가면 절반길을 줄일수 있으니 걱정마오.》

그들이 동구밖을 나설 때 이웃댁이 헐썩거리며 뛰어왔다. 그는 보금의 어깨우에서 배낭을 내리우더니 그안에 취일에 쓴것을 넣어주었다.

《식사도 못 시키고 떠나보내는구만. 가면서 이 거라도 드시우.》

향긋한 진달래향기가 물씬 풍겼다.

《머칠 있으면 우리 령감 제사날이야. 그래서 평대신 닭이라고 록두대신 메밀 한줌을 남겨두었어. 지짐작을 부치자고 말이야. 급히 망에 갈아 지졌더니 깔깔할거야.》

《쌍둥이 어머니...》

《수돌 애비, 날 용서하라우....》

《!...》

이웃댁앞에서 무슨 말을 더하랴. 나라잃은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라없이 한곳으로 흐르는데야.

×

두 녀인은 반두와 다래끼를 옆구리에 끼고 집으로 돌아가는중이었다. 중천에 떠있던 해는 어느새 발뼉발뼉 서쪽으로 기울고있었다.

《수돌이 엄마, 이거면 오늘 수돌이한테 가재랑을 푸짐히 풀어줄수가 있겠어.》

이웃댁이 흐뭇한 미소를 띠우고 보금에게 하는 말이였다.

《쌍둥이 어머니, 정말 고마와요.》

《고맙긴.》

보금은 이웃댁이 아침에 당한 일로 하여 마음이 가볍지 않아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도백하여울로 자기를 데리고나갔을것이다.

앞에서 잡판목가지를 헤치며 길을 내는 이웃댁을 보느라니 그한테 애꿎은 일을 당하도록 만든것이 자기탓인듯싶어 민망스러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다.

(하필이면 수돌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보금이 종무소식인 남편일을 근심할 때면 이웃댁은 늘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지 않나 두고보라우.》라고 말하곤 했었다. 그 말이 가난뱅이들에게는 이룰수 없는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은근히 희소식이 오기를 이제나저체나 애타게 기다려온 보금이였다. 무송에서 안도로 가는 이도백하도로에서 왜놈치는 총성이 울려퍼지던 그날 새벽에도 그는 번쩍거리는 총을 멘 남편의 군복입은 모습을 꿈에서 보았었다. 그런데 꿈인듯싶게 자기앞에 나타난 남편이 본래의 그 기품있던 모습은 어디에 버렸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 되어 나타날줄이야.

고개우에 올라서니 마을이 바라보였다. 마을이래야 오막집 열채가 버섯처럼 웅기웅기 모여앉은 골안이다.

두 녀인은 약속이나 한듯이 정쟁이우로 걸어들었던 치마를 허리춤에서 풀어내렸다. 이도백하여울목에서 반두질을 하느라고 온통 물주머니가 되어버렸던 치마는 거의 말라들었다.

잡판목가지를 헤치며 앞서가던 이웃댁이 보금을 돌아보며 놀란 소리를 질렀다.

《저게 웬 연기우?》

골안에서는 정말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연기 한점 없던 마을이었다.

《무슨 일일가요?》

《어서 가보자구.》

걸음을 재촉하며 굴뚝들을 보느라니 자기 집의 굴뚝들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하긴 점심도 못 끓인채 이도백하로 나가 가재잡이를 하다가 지금에야 돌아오는 길이니 집이 비어있는것이다. 그들은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급히 산을 내렸다. 동구앞에 거의 다달았을 때 조그만 총각애가 짚신을 벗어 들고 녀인들을 향하여 뛰어오는것이 보였다.

《저기 수돌이가 아니우?》

눈여겨보니 수돌이었다. 저녁에는 생일상을 꼭 차려주마 약속하고 집을 나설 때 기대에 찬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던 수돌이가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보금의 치마자락에 매여달린다.

《엄마, 우리 집에 군대가 왔어.》

수돌이의 말에 두 녀인은 눈길을 마주쳤다. 보금의 머리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오른다.

(혹시 수돌이 아버지일로 군영에서 나온건 아닐가?)

그는 널뛰듯 하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수돌이에게 물었다.

《웬 군대라더냐?》

《총을 멘 군대야요.》

《?...》

문득 《모연배낭을 채워가지고 돌아오라는건 군률이요.》라고 하던 남편의 말이 창끝처럼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수돌이는 신바람이 나서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왔던 군대아저씨 대장이랬어.》

《원,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이웃댁이 한발 먼저 수돌이에게 물었다.

《히, 군대아저씨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뭐. 엄마, 대장아저씨가 가마뚜껑도 열어보구 우리 집문 앞에 이만한 토방돌도 깔아주었어요.》

수돌이는 팔을 량옆으로 짹 펴보였다.

《저런...》

수돌이의 말이 희한하기만 한듯 이웃댁은 감탄을 터쳤다. 그럴수록 보금은 마음이 웅숭그려졌다. 마을을 지나가던 군대들이 요기라도 하고가려고 집에 잠시 들린것이 분명하겠는데 가마안에는 수돌이의 점심참으로 넣어두었던 멀건 나물죽밖에 없었으니

궁색한 부엌살림을 보고 웃지나 않았을가?

제 엄마의 심정은 알지 못하고 수돌이는 연방 입방아를 찼었다.

《엄마, 난 대장아저씨한테 우리 아버지도 독립군에서 싸운다고 자랑했어.》

보금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해졌다. 어떤 군대인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다니.

그러나 내심을 감추며 아들에게 물었다.

《그러니 뭐라시던?》

《장한 아버지를 두었다고 날 칭찬해주었어.》

그리고는 또 자랑보따리를 풀어헤쳤다.

《엄마, 나 대장아저씨 권총도 만져보았어요.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총을 메겠다고 하니까 용타고 날 안아주었거든.》

엄마가 놀라와하는것이 재미있는듯 연송 입방아를 찼어대는 아들을 바라보며 보금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어떤 군대가 마을에 들렀기에 철없는것이 저렇게도 사기가 나서 그럴가?

《수돌아, 무슨 군대라고 하더냐?》

이웃댁이 그제서야 생각이 미친듯 수돌이에게 물었다.

《모자에 빨간 별을 단 군대예요.》

《빨간 별을?》

그리고보면 독립군은 아니였다.

《엄마, 생각나요. 유격대라고 했어요.》

환성을 지르듯 떠들어대는 수돌이를 쳐다보며 보금은 속으로 그 이름을 외워보았다.

(유격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문득 그의 머리속에 이도백하가 흐르는 도로에서 어지럽게 나딩굴던 술한 왜놈들의 시체가 떠올랐다. 모연나왔던 독립군이 하던 말이 뒤미처 떠올랐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장수들이 그들이 아닐가?)

《수돌 엄마, 어서 집으로 가보자구. 모연하러 온 군대같지는 않아.》

한달음을 놓아 트랙에 들어섰을 때 보금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불품없이 기우뚱하게 자빠졌던 냇은 수수바자대신 파아란 물이 함뿍 오른 싸리울바자가 가쁘히 엮어져 트랙에 세워져있었던것이다.

보금은 수돌의 손에 이끌려 문앞으로 다가섰다. 문지방아래 땅바닥에는 넘적한 토방돌이 놓여있었다.

《엄마, 이것 봐.》

수돌이는 토방돌에 올라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듯

제 엄마를 바라본다. 그 웃는 모습이 자기의 마음을 구들목처럼 따뜻이 덥혀준다.

(어쩌면...)

자식을 낳아기르는 어머니도 제 자식한테 문지방 높은것이 흠되는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우리 집에 처음 들린 군대어른은 눈에 띄지도 않는 빈구석을 이리도 다심히 헤아려 메꾸어주시는걸가.

토방돌을 정히 쓰다듬던 보금은 말투레질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짜리바자너머에 밤빛말이 서있었다. 처음 보는 군대가 발구우에서 나무단을 끌어내리고있었다. 빨간 별을 새긴 모자에 어깨에 탄띠를 멘 군복차림을 보니 수돌이가 말하던 유격대라는것이 첫눈에 알렸다. 독립군의 옷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단정한 군복차림새를 한 군대를 보니 저도 모르게 아침에 본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수돌이 아버지도 저런 차림으로 마을에 들어섰더라면 얼마나 반가왔으랴. 새벽녘의 그 애모쁘던 심정이 그의 가슴을 또다시 훑어내리는데 나무단을 량손에 들고 어느새 그의 앞으로 다가온 군대가 보금에게 다정히 인사를 건넸다.

《수돌이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보금은 그의 손에서 황망히 나무단을 받아내리며 물었다.

《저, 뉘시길래 우리 집에 이런걸 다...》

《우린 안도에서 오는 반일인민유격대입니다. 수돌이네 집을 돌아보신 대장동지가 이 집에 땀감이 떨어진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땀감을 마련해주도록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

너무도 놀랍고 뜻밖이어서 보금은 못박힌듯 서버렸다. 술한 독립군들이 집에 드나들었지만 이렇게 애육한 자기 집 살림살이를 두고 마음씨준 나그네가 있었던가. 그런데 대장이라 부르는 군대어른은 남정의 손이 미치지 못한 초라한 집사정을 한눈에 알아보고 군마에 땀감까지 실어보내주시다니.

보금은 물기가 축축히 내배는 눈으로 고삭은 이영을 엮은 볼품없는 자기 집을 새삼스럽게 더듬어 보았다. 한숨만 쌓이고 그늘만 드리웠던 집이었다. 그런데 마을에 온 군대가 추녀낮은 이 오막집에 화기로운을 안겨주는것 같다.

발구에서 내리운 나무단들이 프락에 차곡차곡 쌓이고 이웃집프락에도 쌓아질 때에야 보금은 비로소 자기가 주인구실을 잊고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샘터에서 시원한 물이라도 대접할 생각으로 동이를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던 그의 눈은 부뚜

막우에 가닿았다. 거기에는 군복천과 똑같은 색깔의 천으로 만든 크지 않은 주머니가 놓여있었다.

(무슨 주머니가?...)

주머니에 달린 끈을 풀자 그안에는 하얀 찹쌀이 소복이 담겨져있었다.

《?...》

영문을 알수 없어 주머니를 들고 밖으로 나서는 데 유격대원이 수돌이의 손을 잡고 부엌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싱글병글 웃으면서 사연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수돌이 어머니, 오늘이 수돌이생일날이라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허허... 우리 수돌이가 대장동지께 오늘이 자기 생일날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보금은 얼굴을 붉혔다. 철없는 아들이가 처음 뵈는분에게 어려움도 있고 그런 말까지 하다니.

《그래서 대장동지가 수돌이에게 찰떡을 해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 귀한 쌀을...》

《사실 이 쌀은 우리가 남만으로 진출하는 길에 류가분방에 들렸을 때 제분소집로인이 이제 가야 할 길도 멀고 왜놈들과의 싸움도 험치 않겠는데 대장동지가 건강해야 한다면 몸보양에 써달라고 저의 배낭속에 넣어주었던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동지는 수돌이네 집에 들리셨다가 가마안에 있는 나물죽을 보시고 아들의 생일날에도 밥 한그릇 먹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제 배낭속에 있는 이 찹쌀을 수돌이네 집에 가져가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보금은 눈앞이 뿌예왔다. 군대를 돕지 못할망정 나라찾을 큰뜻을 품고 산에서 고생하는 군대들의 쌀을 러염집아낙네가 받을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를 유격대원의 손에 들려주며 눈물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받는다면 백성이 아닌줄로 알아요. 그러니 어서 배낭속에 간수해두세요.》

《수돌이 어머니, 대장동진 만류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돌이가 찰떡맛을 모르고 자라다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수수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타이겠소.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제 고향땅에서 지은 오펍백파로 갖가지 음식을 맛보며 생일상도 푸짐히 받아안을 수돌이가 아니겠소.〉 그러시면서 이 쌀이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수돌이가 이 찰떡맛을 알게 된다면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할것이라고, 그것이 수돌이에게는 나라찾을 애국의 소중한 마음을 키우게 해줄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금은 쌀주머니를 가슴에 꼭 그러안았다. 어쩌면 그분께서는 수돌이의 손에 쥐여줄 떡 하나에도 그렇듯 소중한 뜻을 부여하시는걸가.

진정 부끄러웠다. 수돌이에게 나물죽이나마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어린 그 애한테 떠나온 고향의 샘물맛이며 어찌하여 비옥한 제땅을 버리고 낫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오지 않으면 안되었던가를 들려준적이 있었던가.

생각할수록 속에 지닌 뜻과 인품이 독립군은 물론 자기같은 사람들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군대였다. 이런 군대를 인솔하시는 대장어른은 또 얼마나 출중한분이실까?

문득 그분을 만나뵙고싶었다. 그분을 만나서 고마움의 절을 드리고싶었다.

보금은 저고리고름으로 눈굽을 훔치고나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속생각을 비쳤다.

《저, 대장되시는분을 만나뵈울수 없을까요?》

《허허... 우리 대장동진 마을을 한바퀴 돌아보시고나서 대오를 인솔하시고 먼저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럼?》

수돌이가 락심해있는 제 엄마의 표정을 띄여보고 제법 위안의 말을 던진다.

《엄마, 대장아저씨 올아버지 만나러 가신데요.》

《?》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보금에게 유격대원이 사연을 설명해주었다.

《수돌이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 유격대는 독립군부대를 만나러 남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놈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자면 반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격대는 대장동지의 인솔밑에 무송을 거쳐 통화로 가는 길에 이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럼 그 도로에서 왜놈들을 쳐부신 군대가 바로...》

《허허... 그렇습니다. 우리 대장동진 유격대가 왜놈들을 쳐부시는 총소리를 내야 도탄에 빠진 인민들이 힘을 얻고 고생을 이겨낼것이라고 하시면서 로상에서 그것도 백주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왜놈 한개 중대와 조우전을 벌릴것을 결심하셨답니다.

다. 그래서 안도-무송현경도로가 왜놈시체로 한벌 덮였었습니다.》

(우리도 총소리를 듣고 산을 내려가서 왜놈들이 죽어자빠진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속으로 대답하는 보금의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인민들의 짓눌린 가슴을 열어주려고 총성을 울린 군대야말로 자기들,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군대, 애타게 바라던 진짜 우리 군대가 아닐까?

속이 후터워올랐다. 그는 두손에 안고있던 찹쌀주머니를 유격대원의 손에 들려주면서 간청했다.

《그런 훌륭한 대장님을 위해 간수한 찹쌀을 어찌 일개인의 생일상에 쓰겠나요. 대장어른이 우리 집 살림살이를 보살펴주신것만도 황송한데 군대들에게 더운 밥 한끼 지어드리지 못할망정 이 쌀을 받으면 어찌 이 나라 백성이라 하겠나요.》

그는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눈굽이 달아올랐다. 제 한살림만 걱정하며 살아온 아낙네에 불과한 자기가 이렇듯 소중한 말을 하게 해주신 그분은 진정 어떤분이실까?

유격대원은 보금의 손에 다시금 쌀주머니를 돌려주며 말했다.

《수돌이 어머니, 어서 받으십시오. 인민들과 생사를 같이하라는것은 우리 대장동지의 명이고 또 우리 유격대의 군률이랍니다. 오늘 대장동지는 수돌이네 집을 찾으시여 손수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군률이요?》

《그렇습니다. 대장동진 길을 떠나시면서 기를 잃고 살아가는 마을사람들에게 왜놈들과 싸우면 꼭 나라를 찾게 된다는 희망을 안겨주고오라고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왜놈들에게서 로획한 밀가루와 천을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지금 좌상택로인의 집에서 물건을 내주고있으니 어서 가보십시오.》

보금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산에서 싸우는 군대들한테 량곡이 얼마나 소중한고 천필이 얼마나 귀한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있는 보금이였다. 그런데 유격대는 자기들 생각에 앞서 마을사람들을 위해 그 귀한 량곡과 천을 선뜻 남겨놓다니.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하는것을 군률로 삼는 군대라고 했지. 세상에 이런 군대가 유격대말고 또 있을까?

불쑥 빈 모연배낭을 들고 이웃댁앞에서 모욕을 당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날이때껏 군대들에게 쌀과 가산을 섬겨바치는 것을 백성된 도리로 여겨온 이도백하마을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자기의것을 내어주는것을 도리로 여기는 그런 군대가 이 세상에 나타났으니 분명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가 아닐가.

아침에 류가분방을 향해 떠난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든다. 수돌이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려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던 그의 머리속에 유격대원이 하던 말이 불쑥 떠올랐다.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찹쌀이 바로 류가분방로인이 대장어른께 드린것이라고 했던것이다. 그렇다면 수돌이 아버지도 유격대소식을 알고있지 않을까?

그이가 지금 어디서 헤매고있을까? 산길을 질러갔으니 류가분방마을에 당도했을지도 모른다.

(수돌이 아버지, 어서 집으로 돌아와요. 우리 마을에 어떤 군대가 왔는지 어서 와서 보세요.)

×

웃음을 잃고 살아온 보금이였다. 어찌 자기뿐이라, 남편을 잃고 두 딸의 소식마저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댁의 얼굴에도 언제한번 웃음이 피어났던 적이 있었던가.

추녀났은 지붕아래 그들만 드리웠던 마을이였다. 그러던 이 마을에 오늘은 어디서나 웃음꽃이 피어나고있는것이다. 참말이지 마을에 들린 유격대가 아니였다라면 이런 광경을 꿈에서나마 볼수 있으랴.

보금이와 이웃댁이 좌상택로인의 집뜨락에 들어섰을 때 그곳도 역시 웃음천지였다. 밀가루를 내주는 곳에서는 남자들이 오지단지며 방구리를 끼고 줄을 서있었다. 그런가 하면 천을 내주는 곳에는 녀자들이 태반이였다. 좌상택으로 유격대가 내주는 물자를 받으러 온 홍원택 오씨가 차례를 기다리는 남자들에게 황소눈을 떠보이며 시까스르는 모양이 사람들에게 더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보라구요 남정님네들,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뜬게지요? 우물가에는 얼썬도 앓던 오래비들이 오늘은 방구리서편 옆에 차고 척 나섰으니 말이에요. 웅이 엄마, 오늘 밤엔 평감시중을 잘 들어주라구요. 그러면 래일 아침 웅이 아버지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나갈지도 몰라. 호호호...》

《어랍쇼, 저 홍원택은 행상간 남편생각에 몸살

이 나는게지?》

《호호호...》

《하하하...》

유격대원들도 웃고 남너어른 한동아리가 되어 웃음 바다를 펼치는데 홍원택의 목소리가 솟구쳐오른다.

《갓난이서편 처녀애들은 무엇이 좋아서 킁킁대는거냐? 애 갓난아, 그 말이 그리도 귀맛이 좋으면 어서 너도 시집을 가렴.》

《애개개.》

갓난이가 웅이 엄마의 등뒤에 숨는 모양이 더 즐거워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렸다.

온 마을이 한데 모여 언제 이렇게 시름놓고 웃어본적이 있었던가. 보금은 자기도 모르게 눈가에 웃고름을 가져갔다.

잠시후 떠나갈듯 하던 웃음판은 이웃댁으로 하여 삼시에 찾아들었다. 쌍둥이딸들의 뒤통까지 세명분의 밀가루와 세갑의 천을 받아가지고나오던 이웃댁이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던것이다. 자기의 가슴을 그들먹이 채우는것이 기쁨인지 설음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혈육의 정을 되찾아준 유격대에 대한 고마움만은 눈을 감아도 잊지 못할것만 같았다.

가슴속을 채웠던 서러움을 동이채로 퍼내고난 이웃댁은 유격대원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자기의 험한 손으로 유격대원의 손목을 잡아주며 말하는것이였다.

《유격대어른, 난 내 딸년들에게 이름 석자도 지어주지 못하고 헤어졌다우. 내가 장질부사로 칠성판우에 올랐을 때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가 딸년들을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부자집 쌍둥이아들 민며느리로 데려간다면 지게우에 얹혀 데려갔다고 하더구만. 이름도 없는 그 애들을 이제 어디 가서 찾겠수? 독립군에서 명을 끊은 남편이 이것을 안다면 땅속에서도 한을 터칠거우다.》

그리고는 보금에게로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수돌 엄마, 난 믿어. 왜놈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족쳐대는 우리 유격대가 내 쌍둥이딸들이 있는 곳도 찾아내줄거라고 말이야.》

보금은 이웃댁이 늘 하던 말을 불쑥 생각했다.

《나야 웅이투성이나무 한가지지.》

상처입은 나무에는 웅이가 앓는법이지만 이웃댁의 가슴속에 박힌 웅이에 대랴. 온 마을에 장질부사가 도래했던 십년전 그날을 이웃댁은 눈에 흠이 들어가도 잊지 못할것이다. 사경을 헤매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어린 두 딸의 생명만은 지켜주려고

마을을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애들의 생사를 부탁했던 그였다. 그런데 저승의 문어구에 한발을 들여놓았던 자기가 다시 의식을 차리게 될줄이야. 처음에 그는 자기만 살아남고 딸들은 죽은줄로 알았었다. 뒤집녀인이 그에게 사연을 알려주었을 때야 그는 자기를 후회하고 또 후회하였다. 베개밑이며 빈 장독까지 살살이 훑어보았지만 딸들이 남긴 쪽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름모를 나그네 역시 그에게 주소조차 남겨놓지 않았었다.

엄마가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울며불며 하던 딸들을 정처없이 다니는 나그네에게 따라보낸 후회가 그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 오늘에 와서 웅이로 박혔던 것이다. 그런 이웃댁의 가슴속에 웅이마냥 들어앉은 상처를 누가 가서주는가. 마을에 들린 유격대였다. 정말이지 남편마저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에게 유격대가 혈육의 정을 부어주지 않았더라면 이웃댁의 한생은 웅이투성이나무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보금은 이웃댁과 함께 집으로 향하면서 달라진 마을의 정경을 차분히 젖어드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굴뚝마다에서 흰 연기가 솟구치고 밀가루 익는 냄새가 구수히 동구안에 떠도는데 어느 집에선가 익지도 않은 칼제비국을 달라고 졸라대는 어린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느때 같으면 청얼대는 자식의 이마를 쥐어박았을 부모들이 이 저녁엔 달래이는 목소리도 즐거움에 싸여있는 듯싶다.

그날만 드리웠던 추녀아래들에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들려오니 마치도 딴 세상에 온듯 한 심정이었다.

좌상댁로인의 딸 갓난이가 어디로 갔다오는지 보금이네쪽으로 뛰어오며 숨가쁘게 뒹굴었다.

《유격대가 마을뒤산에서 그네를 매고있어요.》

《우리도 어서 가보자구.》

이웃댁이 보금의 손을 잡아끌며 하는 말이였다.

그들이 뒤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서는 유격대원들이 키높이 자란 나무우에 가름대를 매고있었다.

《세상에… 총든 군대가 그네매는 법은 어떻게 알았을가?》

허를 내두르며 그네매는것을 구경하는 사이에 어느덧 그네줄도 늘어졌다. 일을 끝내고 땅바닥에 내려선 유격대원이 녀인들을 향하여 소리를 쳤다.

《자, 그네를 타볼분이 없습니까? 자신이 있는분은 어서 그네에 오르십시오.》

그러나 모두가 관청에 온 촌닭마냥 두리번거리며 뒤걸음을 칠뿐이다. 좌상댁로인이 혈금씨금 그네터

에 나타난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의 손에는 황금빛이 도는 소방울이 쥐여져있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로인을 바라보는데 그는 유격대원의 손에 방울을 쥐여주며 입을 여는 것이였다.

《이 방울은 고향떠나 예로 올 때 집가산을 팔아 마련한것일세. 왜놈꼴 안 보이는 곳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느라면 소 한짝 사다놓고 맘편히 살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말이네. 그런데 그놈들은 여기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못살게 구네 그러.

제땅이 없는 백성이 방울은 해서 뭘하겠소. 우리 마을 아낙들이 그네우에 올라 방울을 힘껏 차며 가슴속에 앓은 재를 활활 털어던지게시리 저 높은 곳에 달아주게나.》

《아버님말씀이 옳습니다. 나라가 있구서야 소방울도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저희들이 방울이 달린 황소를 사가지고 아버님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날은 꼭 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곳곳이 사십시오. 생활이 어렵고 고달플수록 그네도 타고 씨름도 하면 기운을 잃지 않고 곳곳이 살아갈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나무우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가름대에 방울을 매달았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로인이 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좀더 높이 달라구.－》

이윽고 공중에서 팔랑팔랑 방울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던 갓난이가 숨가쁜 소리를 내질렀다.

《애개개, 저 높은데 어떻게 오르나?》

주위엔 또다시 웃음꽃이 만발했다. 그러는 속에 좌상댁로인이 이웃댁을 재촉하였다.

《쌍둥이에미, 어서 그네에 선참 오르게나. 그네에 올라 방울을 힘껏 차면 쌍둥이에미들이 제 에미 살아있는 소식을 알고 달려올지 않겠나?》

로인의 말에 이웃댁이 성큼성큼 그네앞으로 나오더니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주버니, 오르겠시다. 그네에 올라 애들이 듣게 방울을 힘껏 울리겠수다.》

이웃댁은 한번도 타본적 없는 그네인지라 보금을 불러왔다. 두 녀인은 발을 엇갈아짚고 그네줄을 넓혔다. 갓난이가 그들이 탄 그네를 밀어주었다.

하늘을 향해 쌍그네가 치달아오를 때 좌상댁로인이 이웃댁을 향해 소리쳐물었다.

《이보게 쌍둥이에미, 애들이 보이냐?》

《보여요. 보이구말구요. 내 딸 큰녀와 작은녀가 에미를 향해 손짓는 모양이 보여...》

그네우에서 이웃댁이 흘리는 눈물방울이 저녁노을빛속에 아롱지며 떨어져내렸다. 보금은 하늘공중에다 눈물을 휘뿌리는 이웃댁의 손을 덧잡으며 기운차게 그네줄을 당겼다.

잠시후 딸랑하고 맑은 방울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웃음이 없이 살아가던 이도백하마을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 방울소리였다.

보금은 이 시각 남편의 귀에도 자기가 찬 방울소리가 가닿기를 간절히 바랐다. 왜놈들에게는 총소리를 울리고 인민들에게는 맑은 방울소리를 울려주는 유격대, 수돌이 아버지도 유격대가 될수 없을까?

(수돌이 아버지, 이 방울소리를 들으시나요? 어서 집으로 돌아와 유격대를 따라가세요.)

×

려명빛이 다가오는 이른새벽 보금은 남편과 함께 유격대가 숙영하는 뒤산으로 갈 차비를 서둘렀다. 류가분방마을에 갔다가 유격대소식을 듣고 급히 마을로 돌아온 남편이었다. 준비를 서두르면서 보금은 남편에게 엿저녁에 있는 일을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뒤산에서 모닥불이 피어오르는것을 보면서 보금은 이웃댁이며 좌상덕로인과 함께 그들을 찾아갔다. 찾아온 사연을 들은 낮익은 유격대원은 난처한 기색으로 보금을 랑해시키는것이였다.

《여러분의 성의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청을 들어줄수가 없구만요. 여기에 숙영지를 잡아주시분은 우리 대장동집니다. 대장동지의 명을 어기면 군를을 어기는것으로 된답니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들 내려가십시오.》

더이상 간청할수 없었다. 아침식사만은 좌상덕로인의 집에서 하기로 겨우 약속을 받아냈다. 보금은 밤새워 찰떡을 치고 헛나물을 무쳐놓았다. 유격대가 준 밀가루로 만두도 빚을 때 뜻밖에도 남편이 집에 들어서는것이였다. 기뻐다. 그리고 신기하였다. 하늘의 별도 보금의 소원을 이뤄주지 못했는데 그네더에 달아맨 방울소리가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남편에게 실어간것은 아닐까?

둘이서 함께 만두를 다 빚고났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보금은 밥함지에 음식그릇을 담아이고 집을 나섰다. 수돌이에게 찰떡맛을 못 보인들 어떠랴. 수돌이에게 정을 주고 맑은 웃음을 안겨준 군대들에게 찰떡을 대접했다는것을 안다면 그 애도

기뻐하리라.

푸름푸름 날이 밝아올무렵 그들은 뒤산에 당도하였다. 그런데 모닥불도 천막도 보이지 않았다.

《?》

보금은 남편과 함께 산을 내려 좌상덕로인의 집으로 향했다. 사립문안에 들어섰을 때 로인은 토방에 앉아 대통을 빼금빼금 빨고있었다. 찾아온 사연을 듣자 로인은 대통안의 재를 툭툭 털고나서 입을 여는것이였다.

《유격대는 벌써 떠나갔네. 마을사람들의 새벽잠을 깨울가봐 조용히 떠나갔어.》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우리를 위해 군량미까지 털어준 유격대한테 더운밥 한끼라도 대접하자고 모두들 아침이 오길 기다리고있는데 그렇게 훌쩍 가버리면...》

뜨거운것이 목안에 흘러들어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로인은 재를 툭 대통안에 써레기를 꼼꼼히 재우기만 할뿐이다. 동안이 지나서 보금은 그에게 자기의 생각을 조심히 비쳤다.

《혹시 우리한테 무슨 섭섭한 마음이 생겨 떠나간건 아닐까요?》

로인은 대통을 한모금 깊숙이 빨고나서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더랬어. 유격대의 말을 듣고서야 우리 생각이 짧았다는걸 알았어.》

《그럼 무엇때문에?...》

로인은 말을 이었다.

《새벽잠도 달아나고 해서 그들이 쉬는 곳으로 가려고 신발을 찾아신는데 그네를 매주던 그 군대가 마당에 들어서는데 아니겠나, 작별인사를 하려고 들렀다고 하더구만. 가마에 물을 뜨곤히 끓여놓고 군대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웬말이냐고 물었더니 내 손을 꼭 잡고 그가 하는말이 〈로인님, 우린 대오를 따라서야 합니다. 대장동지께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계십니다.〉 하는것이겠지.

그래서 이 새벽에 서둘러갈 걸음을 왜 대장과 함께 떠나지 않고 그네랑 씨름터를 만들면서 찬이슬 내리는 밖에서 쉬고 가는가고 물었지.

그는 내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어.

〈로인님, 대장동지께서는 나라를 빼앗긴땅에 살 길을 찾아 이국땅에 와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마을의 실정을 목격하시고 통화로 가는 길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 마을사람들에게 나라를 찾을 그날까지

신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떠나자고 하시면서 우리 몇사람을 마을에 남겨놓으시었습니다. 대장동진 래일 아침이면 이곳 인민들이 유격대를 집에 청할수 있는데 우리가 인민들의 랑박을 조금도 축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첫새벽에 마을을 떠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로인님, 인민을 위해 싸우는 우리 유격대가 인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 진정한 인민의 군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출발시간을 앞당긴것이니 로인님이 마을사람들을 잘 리해시켜주십시오.)

그 말에 더 청을 드릴수가 있더라구.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솟아난 군대들인가, 하늘에서 내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우리 사정을 그렇듯 다심하게 보살펴준단 말인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것이 아니겠나.

〈로인님, 우리는 로인님과 같은 인민의 아들들입니다.〉

수돌 애비, 내 의병노릇을 하다 총을 묻은 사람으루 독립군들과도 수태 상종해보았지만 이런 군대는 처음 보았네그러. 정말이지 세상에 백성을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군대가 또 어디 있을텐가.〉

보금은 자기가 언제부터 남편의 팔을 꼭 끼고 서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군대를 위한 일에 백성된 도리를 다하고싶었다.

그는 남편의 팔을 놓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수돌이 아버지, 어서 떠나세요. 그분들을 따라 유격대에서 싸우는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저도 굳세게 살겠어요.》

좌상대로인이 유격대가 떠나간쪽을 가리켜보였다.

《방금전에 떠났으니 걸음을 놓으면 쉬 따라설 거네. 아무렴, 왜놈들과 싸우려면 유격대에 들어가 싸워야지.》

보금은 밤합지에서 찰떡그릇을 꺼내 남편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다시 밤합지에 넣어주었다.

《여보, 대장님의 말씀대로 이 찰떡은 수돌이에게 맛보여주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돌이가 그분의 부하가 되어 나라찾는 싸움에 나서게 될거요.》

성큼성큼 내짚는 남편의 발자국소리가 새벽어둠속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그 발자국소리는 유격대가 간쪽이 아니라 독립군의 군영이 있는쪽에서 들려오는것이였다. 보금은 놀라운 눈길로 남편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그의 심정을 아는듯 귀에 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새벽대기를 헤가르며 들려왔다.

《여보, 이길로 곧장 군영장을 찾아갈테요. 군영장을 만나 유격대와 힘을 합쳐 왜놈들과 싸우면 나라찾는 길이 앞당겨질거라고 말하겠소. 그렇게 하는것이 대장님의 부하되는 길이 아니겠소.》

새벽안개속에서 빈 모연배낭을 벗어 흔드는 남편의 모습이 안겨왔다. 거인처럼 우뚝 서서 자기를 향해 작별인사를 보내는 남편의 모습을 띄여보는 보금의 눈에도 흰 안개가 서려올랐다. 그는 이 새벽 자기를 향해 웃음을 짓고있을 남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웃음을 잃을번 했던 남편에게 웃음을 안겨준 유격대였다. 그는 눈물젖은 눈길을 남편에게로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작별인사를 보내었다.

(수돌이 아버지, 유격대의 총소리를 들을 때면 나와 수돌이는 거기에 당신이 있는것으로 알고 언제나 당신의 소식을 기다리겠어요.)

어둠을 밀어제끼며 그의 머리우에서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고있었다.

## 속 답(인품)

- 거만한 현자보다 겸손한 둔자가 낫다
- 겸소한 옷차림은 좋은 소개장
- 굶어죽어도 역적이 안되며 억울하게 죽어도 고발하지 않는다
- 못된 개는 소리없이 문다
- 미덕은 마음의 건강
- 미덕은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참된 겸손성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
- 남과는 적게 말을 하고 자신과는 더 많이 말하라
- 상처입은 자존심은 용서할줄 모른다
- 용감성의 왕관은 겸손성이다
- 인간성이 없으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없다



# 병사의 재능도 소원도 꽃피난 상봉의 세계

— 단편소설 《일곱번째 상봉》을 읽고 —

김 선 일

이 땅에 사는 천만자식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희망과 재능, 천백가지 소원을 다 꽃피워주는 위대한 아버지품이 우리에게 있다.

하여 그 품속에 사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의 노래가 가없이 푸르른 저 하늘가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단편소설 《일곱번째 상봉》(최봉무 《조선문학》 2014년 3호)은 이 자랑스런 현실을 감명깊게 펼쳐보인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도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야 한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보좌하시던 그 나날 비범한 예지와 정치적안목으로 한 병사의 재능의 짝에서 그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고 전군과 온 사회에 새로운 전투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풍모를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밝히고 있다.

## 위대한 령장과 병사의 재능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참으로 비상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는 그 거룩한 령도의 갈피갈피에는 얼마나 감동적인 사연들이 깃들어 있는 것인가.

소설은 그 가지가지의 사실들가운데서 전군과 온 나라에 소묘열풍이 일어나게 된 력사적사실을 소재로 선택하고 형상적화폭을 펼쳐나갔다.

인민군대에서 일어난 소묘열풍,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거기에는 어떤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가?

소설에서 형상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

어느 한 녀성구분대를 현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중대직판관에 계시던 연필화를 보시고 높이 평가하신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누구보다도 그 연필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다.

하여 남다른 재능을 가진 황영진병사의 소묘작품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나하나 료해하신다.

그러시고는 그 작품들을 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도록 하신다.

무엇때문이었는가.

《그건 단순한 속사나 소묘가 아닙니다. 아무때나 손에 잡을수 있는 간단한 연필로 즉석에서 교양적이고 선동적인 그림을 그린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전투적인 예술작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참호에 심금을 울리는 시와 노래, 그림이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

《내가 오늘 그 그림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자는것은 거기에 피가 뛰는 병사생활이 있고 숨결이 있기때문입니다.》

그 무슨 형식이나 기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은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그리든간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것은 내용입니다. …》

병사생활을 랑만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한 연필화의 가치가 대번에 밝혀진다.

하여 묻혀버릴번 한 병사의 재능은 위대한 태양의 축복을 받게 된다.

황영진병사의 그림을 화첩으로 만들기 위해 손수 12장이나 되는 연필화에 번호까지 달아주시고 구성안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일군들에게 화첩의 종자도 밝혀주시고 제목도 바로잡아주시며 몸소 병사의 이름까지 써넣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우리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아래 병사의 화첩은 훌륭히 완성되어 전군의 중대들에 보급되게 된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뿐아니라 온 사회에 연필화바람이 불게 하고 연필화축전을 조직하실 구상을 펼치신다.

하다면 연필화바람을 일으키시려는 그이의 숭고

한 뜻은 무엇인가.

《이번에 인민군대는 물론 온 사회에 연필화바람이 일게 하고 그다음 연필화축전도 조직하자고 합니다. 연필화축전을 조직하면 선군시대의 사상정신 세계에 맞게 온 사회에 전투적인 분위기를 세우는 데 한몫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미술도 사람들의 가슴에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울려주는 전투적예술로 될것입니다. 한편 대중의 창작적재능을 적극 조장발전시켜 많은 인재를 키워낼수 있다고 봅니다.》

병사의 재능을 대견하게 여기거나 기껏해서 부대의 자랑으로 여기는 지휘관들의 시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한 병사의 재능의 싹에서 전군과 온 사회에 울려퍼질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발견하시는 그 비범한 예지이며 탁월한 정치적수령의 력도력이다.

위인의 품모는 이렇게 밝혀진다.

소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위인상은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며 모든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해나가시기 위해 모든 사색과 정력을 다 바치시는 고결한 품모와의 유기적결합속에서 빛나게 형상되고있다.

비록 자그마한 력사적사실을 취급하고있지만 수령형상소설의 품격에 어울리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려는 작가의 탐구적노력은 옹당한 결실을 거두고있다.

## 위대한 령장과 병사의 류다른 상봉

아무리 작가의 창작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형상의 옷을 제대로 입히지 못한다면 그 작품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작가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사상미학적주장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인물관계와 이야기줄거리에 대해 깊이 고심하게 되며 생동하고 진실한 생활화폭을 창조하기 위해 탐구를 거듭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형상수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것이다.

작품의 예술적정서와 견인력을 보장하면서 생활을 진실하게 펼쳐보일수 있는 형상수법의 탐구와 활용은 창작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단편소설 《일곱번째 상봉》이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것은 바로 이 문제를 옳바로 해결한데 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있다.

그러면서 러단장 석운룡과 인민군총정치국 박부

국장, 황영진병사를 등장시키고있다.

소설은 황영진병사의 연필화를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시고 그의 재능의 싹을 꽃피우시며 온 나라에 소묘열풍을 일으키시는 과정으로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고있다.

이러한 인물관계와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는데서 작가는 상봉극조직의 수법을 능란하면서도 독특하게 활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상봉극조직의 수법은 극문학작품들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형상수법의 하나이다.

해방후 우리 나라 극문학발전사를 놓고보아도 상봉극조직의 수법으로 극적형상을 펼쳐 가치있는 사회적문제를 해명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영화문학 《세상에 부럼없어라》, 《혈육》,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등이 이룩한 성과만 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황영진병사의 상봉이라는 극적기대를 조성하면서 이야기를 시종 감명깊게 끌고나가고있다.

처음 황영진은 녀성중대병실꾸리기를 도와주러 나갔다가 상급의 명령에 따라 잡자기 철수하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성중대를 찾아주신다.

멀리서 장군님의 야전승용차를 바라보는 황영진은 끝없는 걱정과 흥분, 아쉬움을 금치 못해한다.

총잡고 조국보위에 나선 병사들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간절한 소원은 바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뵈옵는것이였으니 황영진도 그 병사들중의 한사람이었던것이다.

그가 그린 12장이나 되는 소묘작품들가운데서 종자라고 말할수 있는 작품은 《우리 중대 막내의 꿈 이야기 <장군님 오셨다!>》이다.

중대의 막내병사가 갱도공사장에서 함마를 베고 쪽잠을 자면서 장군님께서 부대에 오시는 꿈을 꾸는 장면을 그린 연필화의 주인공이 바로 황영진 그 자신인것이다.

인민군대에 입대한 첫날부터 자나깨나 장군님을 모시는 간절한 소원을 안고있는 황영진, 그 병사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으니 그 아쉬움은 얼마나 크랴, 이제 체대될 날도 멀지 않았는데...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3중대를 찾으시였다.

이날 중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황영진이 그린 그림을 보아주신다. 만족하게 그림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황영진병사를 찾으신다.

그런데 그가 없다. 석달전에 소환되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재간동이병사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금치 못하십니다.

이렇게 감정축적은 한계단 또 한계단 이루어진다.

그후 황영진은 인민군총정치국산하 전문미술창작기판으로 소환되어간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총정치국 박부국장에게 병사미술가를 찾으신다.

그런데... 또 없다. 황영진은 아동미술이 발전한 나라에 가는 참관조의 한 성원으로 떠났던것이다.

상봉의 기대는 또다시 허물어진다.

만날듯만날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위대한 장군님과 병사의 상봉, 그것이 마치도 자신의탓인듯 죄스러워하는 박부국장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국장동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창작가의 작품은 창작가 그자신입니다. 황영진병사의 작품은 장군님께서 일곱번이나 보아주셨고 그에 대해서도 일곱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과 온넛이 그대로 깃든 그림을 통하여 오늘까지 위대한 장군님과 일곱번 상봉을 하였습니다. 참 류다른 상봉입니다. 그 이상 의의있고 뜻깊은 상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령장과 병사의 상봉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최고사령관동지를 뵈고싶은 병사의 소원은 이렇게 실현된다.

여기에는 상봉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동안 헤어졌던 사람들사이의 감격적인 상봉이라든가 눈물겨운 상봉에 대하여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령도자와 전사간의 류다른 상봉, 비록 서로 만나지는 못했어도 온넛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봉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다.

오늘 우리의 천만자식들모두는 위대한 아버이를 직접 만나뵙지는 못한다 해도 매일, 매 시각 심장으로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후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직 령도자를 중심으로 천만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뜻깊은 세계이다.

소설은 위대한 령장과 한 병사의 류다른 상봉을 통해 이러한 우리 시대를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다.

소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황영진병사의 그림을 일곱번 보아주신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중요대목에서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대담하게 비약하면서 이야기줄거리의 탄력을 보강한것이라든가, 첫머리를 인상깊게 떼기 위해 중대집집승우리 불소독사건을 설정한것, 작품의 사상을 정서적으로 살릴수 있게 노래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를 적절하게 리용하고있는것 등도 형상의 견인력을 강화하는데서 효과적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령장과 류다른 상봉속에 병사의 재능도 소원도 꽃피난다고, 그리고 그이와 천만자식모두는 언제나 함께 있으며 위대한 그 품속에 모든 꿈과 이상이 실현된다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비상히 심오하고 의의있는 문학작품창작의 풍부한 원천으로 된다.

이 위대한 시대를 한가슴에 안고 심장의 피를 끓일 때 더 많은 명작폭포가 쏟아지게 될것이다.

## 속 답(우정)

- 가난할 때 사귄 친구 잊지 말라
- 고난할 때의 벗이 진실한 벗이다
- 리별이 오기 전까지는 친구의 가치를 모른다
- 번영하는 동안은 친구가 많다
- 벗은 모든 보물보다 더 귀중하다
- 벗을 가지는것은 두번째 삶이다
- 불행할 때 돕는 사람이 진짜친구이다
- 순경은 벗을 만들고 역경은 벗을 알아본다
- 진정한 벗보다 더 귀중한 보물은 없다
- 친구는 친구의 거울
- 친구를 울리지 말고 원쑤를 웃기지 말라

# 원수님의 환하신 웃음

김 덕 선

우리 원수님께선 환히 웃으신다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았을 때에도  
그리고 유치원과 병원을 찾으실 때에도  
원수님 환히 웃으시는 그 웃음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사랑 아름다운 미래

그 사랑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새 육아원과 애육원으로 솟아오른다  
그 미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행복의 바다가에 웃음으로 펼쳐진다

그이께선 환히 웃으신다  
현지도의 길에서 일군들을 만났을 때에도  
회의장 열렬한 환호에 답례하실 때에도  
그 웃음은  
일군들과 나누시는 그이의 마음속 언어  
인민들과 맺으시는 그이의 뜨거운 약속

그 환하신 웃음은  
아름다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화려한 과학자휴양소로 솟아오른다  
그 환하신 미소는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주시는 사랑  
인민이 누릴 사회주의부귀영화로 펼쳐진다

그이께선 환히 웃으신다  
동서해안 섬방어대병사들의 훈련을 보아주실  
때에도  
진술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실 때에도  
그 웃음은  
병사들에게 안겨주시는 그이의 신심  
병사들에게 안겨주시는 그이의 승리

이 신심  
명령만 내리신다면  
원주의 아성 재가루로 날릴 핵폭탄이 된다  
이 승리  
조국땅에 온갖 열매 주렁지우는 과원이 된다  
풍요한 가을 오곡백과 설레는 전야가 된다

아, 우리 원수님 언제나 환히 웃으신다  
더 밝고 더 환하게  
그 환하신 웃음은  
조선의 영원한 힘  
조선의 영원한 미래  
조선의 영원한 번영이다

# 전사의 입당청원서앞에서

박 근 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유리함의 진렬대우에  
소중히 보관된  
전사의 입당청원서

전사의 땀과 피에 절고  
세월의 눈비에 색은 바랬어도  
천만사람 발걸음 멈추게 하는  
전사의 입당청원서

내 조용히 다가서니  
눈앞에 어려오누나  
화선천리 행군의 실참

희미한 달빛 별빛아래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친 전선의 밤  
가물거리는 수류탄등잔 불심지 돋구며  
어머니당을 우러러  
한자한자 쏘아박듯 쓰고 썼을 그 모습

평시에 당원의 영예 지니고싶은  
그 열망 그리도 불뛴건만  
천만년 당을 받들어갈 신념을 새긴  
입당청원서만은 쉬이 내놓지 못했거니

사선의 고비 수없이 넘고  
불타는 강을 수많은 헤쳤어도



당과 수령께 바치는 전사의 충정  
아직도 모자라서였던가  
언제나 돌격선을 앞장에서 열여간  
당원의 모습에 자신을 비취보며  
그처럼 값높게 지니기를 소원했거니

아, 조선로동당원!  
한없이 고귀한 그 이름으로 불리우고저  
심장으로 맹세한 입당청원서  
그 글발을 품에 안고  
불비 쏟아지는 결전의 언덕을 뚫아올라  
원주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전사  
—나를 조선로동당원이라 불러달라!  
이 말 유언으로 남기고갔어라

그가 누구인지 이름은 모르나  
조국이 보증해준 성실한 전사  
그가 쓴 입당청원서앞에서  
량심에 물노라  
내 것처럼 당앞에 깨끗하게 사는가

말보다 행동으로 당을 받들줄 아는가고

아직은 당앞에 조국앞에  
해놓은 일보다 하리라는 결의 더 많아  
때없이 얼굴 붉어지고  
밤을 패며 일하고 또 일해도  
무엇인가 다함이 없어 가슴 불태우나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앞에  
가장 떳떳한 위훈 없이는  
성실한 삶의 흔적 없이는  
결코 지닐수 없는 고귀한 그 칭호

아, 영웅전사처럼 살리라  
먹을 짚어 펜으로써가 아니라  
조국의 고지우에 피로 새겨  
자신의 깨끗한 량심을 보여준 전사  
그의 입당청원서를 새겨안고  
자신의 영예보다 바치는 값높은 삶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가리라!

## 분조장의 새 모습

김 경 석

어제날의 청춘시절 되돌아온듯  
걸음새도 쉼쉼  
목소리도 쟁쟁  
젊음에 넘쳐사는 분조장아바이

강냉이영양단지 옮겨심을 때는  
한꺼번에 두세이랑 자리를 내면서도  
날마다 넘쳐하는 분조실적 두고서는  
도무지 성차하지 않더니

불이 당긴 모내기철 이 저녁에는  
논머리 한끝 내가 스친 곳에도  
주인된 마음 빠짐없이 심어주며  
포전담당 책임제의 임무를  
다시금 열정속에 깨우쳐주는 분조장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장을 나선 걸음을  
곧바로 들판에 잇대어놓고  
원수님서한의 뜻 자자구구 새겨가며  
새 영농방법도 남먼저 알려줄 뎌  
마치도 스승인듯 박식가인듯

아, 못 잇을 그날에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 때없이 우리르며  
원수님 가까이 서있는 행복  
영원히 그 자리를 빛내갈 한마음이  
낮이나 밤이나 불타올라 불타올라

이제는 분조포전 한이랑한이랑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조선  
우리 혁명의 제1제대 1선참호로  
이삭마다 알알이 총알처럼 영글리며  
이랑마다 포전마다 뿌려가는 땀은  
결전의 나날 영웅분대장  
리수복영웅의 피와 땀인듯

김매기도 풀베기도 언제나 첫자리  
풍년가을 수확고도 단연 첫자릴거야  
원수님뜻에 살아 지지 않은 청춘기를  
대지우에 수놓으며 가슴마다 옮겨주며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가는  
아, 분조장의 새 모습  
우리 분조의 새 모습이어



## 리 희 찬

애들아!

아니, 애들이라니, 이젠 동지들이지.

믿음직한 군인동지들...

끝끝나게 자라난 우리 마을 처녀총각들이 이렇게 군복을 펼쳐입고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이 판리위원장아지미도 마음이 흐뭇해진다, 긍지스럽기도 하고...

자, 우리 여기 파수말의 등판에 잠깐 앉았다가 헤어지자. 보려무나, 너희들이 아이때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아지를 마구 흔들어대거나 돌맹이를 던지기라도 하면 큰소리치며 무섭게 달려오던 저 반장아저씨도 오늘은 저렇게 큼직한 다래끼에 사과를 무독히 담아메고 여기로 달려오지 않니.

실컷들 먹어라.

옥이는 내게 무슨 할말이 있는것 같구나. 아까부터 나를 쳐다보며 자꾸 입을 열려다가 마는걸 보니...

어서 말해, 떠나기 전에 부탁할거라도 있으면 뭐든지 말하려무나.

가슴에 두고두고 남을 좋은 말을 해달라구?

호호... 무슨 말을 해주면 가슴에 오래 새겨질가?

많이들 먹어라. 그리구 고향땅의 이 사과맛과 함께 태를 묻은 이 고향마을을 잊지 말아라....

물론 이러루한 당부도 해줄수 있겠지. 그러나 이런 당부는 굳이 내가 하지 않는다 해도 너희들 자신이 집을 떠난 오늘부터 군사복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어느 한순간도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생각, 모교와 이 풍요한 고향마을에 대한 생각을 늘 가슴속에 잊지 않고 살거다. 그럼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즐겁게 지내고 그런 날들을 가슴깊이 간직하라, 이 말을 해줄가? 물론 그런 당부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것 역시 누가 대주지 않아도 좋은 때 기쁨과 즐거움은 제스스로가 다 누릴수 있고 가슴깊이 간직할수 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아, 우리 이 애들한테도 장차 어려운 때가 있을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있다. 더구나 이제는 총잡은 병사들이니까....

그런 때에 닥치면 그 어려운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을 다들 명심했으면 한다.

너희들도 우리 조국력사에 있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알지?

선생님들이 배워주어서 안다?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던 그 비통한 날이 었그제같은데 세월은 어느새 벌써 그렇게 흘렀구나. 하긴 벌써 20년세월이 지나갔고 그 시기에 태어난 너희들이 이제는 총을 잡고 이렇게 조국을 지키러 나가게 됐으니....

너희들이 배워서 알게 됐다는 그 고난의 행군은 말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일떠선 운명적인 길, 죽느냐 사느냐, 살아도 노예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 하는 사생결단이였다.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쓰러지지 않고 끝내 이겨낼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였겠니? 나는 그것이 사랑이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때는 나도 어려서 다는 몰랐지만.

그러나 내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태를 묻은 고향도 아닌 너희들의 이 마을에 왜 제발로 찾아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렸는지.

오늘 난 떠나는 너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

내가 어머니를 따라 이 고장에 처음으로 왔던 건 너무도 칠이 없던 열세살때였어. 그때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등판도 과일밭이 아니라 고개길이었단다.

렐차가 다니지 않아 걸어올수밖에 없었던 나는 더이상 발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엄마, 난 더 못 견뎌어...》

《그럼 이 고개길에서 밤을 새우자니? 좀 있으면 해가 저물겠는데...》

하늘도 노랗게 보이더라. 그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몇점의 구름도 우리처럼 가는지 마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있는것 같구. 하늘을 쳐다보니 텅 비어놓고 떠난 집생각도 나고 원로기지를 꾸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생각도 나고... 왜 그렇게도 눈물이 나던지.

어머니도 눈굽을 닦으며 내앞에 등을 돌려댔다.

《자, 그 바이올린통을 내게 주구 업자...》

《싫어...》 나는 마지못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때부터 아버지한테서 바이올린을 배웠구 학교에서도 음악소조에 다녔거던. 그때는 그 바이올린통도 괜히 메고 떠났다는 생각이 나더라.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를 달래었다.

《송희야, 이모할머니가 이제 너 좋아하는 당콩밥이랑 해준다. 토끼곰두 해주구... 그러면 우리 송희 요 두볼이 뽕뽕해지거던...》

《이모할머니가 우리 온걸 정말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구! 우리 조카 경실에게 이런 고운 딸이 있은줄을 몰랐구나 하구 송희를 꼭 안아줄거야.》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어린 마음에도 힘이 좀 생기는것 같더구나.

《그럼 엄마두 같이 있자마. 내 볼이 뽕뽕해질때까지...》

《엄마가 말했지? 너를 이모할머니한테 데려오느라구 내가 며칠간만 시간을 받았대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등판을 넘어서는데 뒤에서 《그눔, 그눔을 좀 붙잡으라요!》하는 다급한 고함소리가 들리지 않겠니.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글썽 송아지만 한 염소가 우리 등뒤로 뛰어오더구나.

《어마나...》 하구 내가 길옆에 비켜서니까 그눔이 내앞에서 똑 멎더니 뻥히 쳐다보지 않겠니.

그뒤로는 나보다 나이가 한 서너살 많아보이는 중학생오빠가 소리치며 달려오고있었다. 후에 알고보니 홍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심술쟁이오빠였어.

《야, 그 염소끈을 빨리 좀 잡아라!》

이때 그눔의 염소가 《매-》하며 나를 덮치려

는듯이 두발을 쟁총 높이 드는구나. 나는 그만 《앗.》 하며 뒤로 훌렁 자빠졌다. 그리고는 놀라서 소리쳤지.

《엄마, 이게 나를 묻다!》

어느새 그 심술쟁이오빠가 달려와서 염소끈을 잡았다. 그리고는 《체...》하며 나를 어처구니없는 눈길로 흘겨보더구나.

《염소두 무나? 염살쟁이같은게...》

어머니까지도 나를 일구어세우며 짜증을 뱌다.

《너는 정말... 염소는 왜 무서워하니? 염소는...》

《무섭지 않으문? 내가 뭐 촌아이들하구 같애?》

그 소리에 그 오빠가 《뭐, 촌아이?》하며 획 돌아서더니 나를 쏘아보는데 금시 한대 쥐여박을것 같더라.

그래도 《에익, 내 참았다. 어데 손뭉테나이니...》하고 씹씩거리며 염소를 끌고가더구나.

그러는새 해는 졌는데 마을을 내려다보니 그 마을도 홍수로 인한 참상이 말이 아니더구나. 폭은 터져나가고 버드나무들은 뿌리채 뽑히고... 그래도 강둑을 쌓는 농장원들과 청년분조원들은 웃고 떠들며 벽작 들끓고있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작업장의 속보판에 썩여있는 글발들이 무엇을 말하는 뜻인지 다 몰랐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우리모두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자가 되자!》

나라가 어려우니 모든 가정들도 다 살림이 어려웠고 누구나 다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어느 집이나 가마안에 안칠 감이 부족했고 가마밑에 땀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속상한 마음도 우리 녀인들은 우는 소리로가 아니라 우스개소리로 터놓군 했다. 그래서 참, 어느 녀시인도 《시련과 녀인》이라는 시에 이런 글을 썼댜지.

—에그, 쌀! 불! 물!... 신통히도 《리》받침 달린것들만 우리 녀자들의 속을 태운다니까.

호호... 남들같으면 백번도 нама 주저앉았을 그 어려운 시련을 우리 인민이 무슨 힘으로 웃으며 이겨냈는지를 나는 그때 너희들의 이 고향땅에 와서야 차츰 알기 시작했다.

물론 이모할머니의 집에 들어서던 첫순간에야 우리 어머니도 나도 가슴이 찢렁했지. 만나면 나를 덥석 안아줄거라던 이모할머니는 간데온데 없고 일곱살짜리 총각애를 데리고 혼자 산다는 덕수라는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그 할머니는 아들이 와서 자강도로 데려갔수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내가 살구요.》

내가 울먹거리며 어머니를 쳐다보니 어깨가 축 처져서 발길을 돌리는 우리 어머니의 눈굽은 벌써 축축히 젖어있었다. 어머니의 발걸음은 겨우 길전

너 집 작은 사립문앞에서 떴었다.

《계시나요?》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의 찾아드는듯 한 가는 목소리는 얇은 창 유리 한겹도 뚫지 못했나부더라. 어머니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계시나요?》하고 부르며 한발 다가섰다.

그제야 《누구나요?》 하며 그 집 어머니가 문을 여는데 글썽 아까 그 심술쟁이 염소오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겠니? 다시 만날까봐 겁나던 그 오빠의 얼굴이 말이야. 밥상에 마주앉아 감자를 먹고있더구나.

나는 가슴이 막 왈랑거리는데 어머니는 사정 이야기를 했다.

《안됐어요, 끼니때같은데...》

《무슨 일인데?》

《이제 돌아서서 읍에까지 가자니 이것이 너무 허기져 해서... 아무거나 한끼 좀 신세질수 없을가요?》

《어서 들어오게! 어서...》 하며 그 어머니가 달려나와서 나의 손목을 잡아끌더라. 그리고 그 집 아버지는 홍식오빠의 엉덩이를 툭 쳤다.

《넌 그만 먹구 일어서라.》

그 심술쟁이오빠가 그냥 일어나서 나갈게 뭐야? 어느새 감자 두알을 닥집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투덜거리며 나갔다.

《흥, 촌놈을 깔보더니 촌에 얻어먹으러 왔됐구나.》

《이녀석...》 하며 아버지가 쫓아나가는데 홍식오빠의 어머니는 어느새 내 손에 감자를 쥐여주더라.

《자, 어서! 이거라두 한끼 같이 나누자꾸나. 염마두 빨리 하나 들라구.》

《고마와요.》

《원, 별소리를 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읍까지 가야 하나? 좀 있으면 날이 저물겠는데...》

《이 애를 우리 이모한테 좀 맡겨놓을가 해서 이삼일 휴가반구 찾아왔했는데 판사람들이 살더군요.》

《무슨 직장에 다니게?》

《이 애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 다니던 그 식료공장에...》

《먹구사는텐 좀 낫겠구만...》

《요샌 우리 식료공장두 문을 닫다싶이...》

《하긴...》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나는 내 앞에 차려진 감자 세알을 게눈 감추듯 다 먹어버렸구나. 우리 어머니는 얼른 내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세 많이 졌어요.》

《아니, 이제 어떻게 간다구 그러나?》하며 홍

식오빠의 어머니는 대문밖에까지 따라나와서 우리 앞을 막아섰다.

《이젠 어두워졌는데 이 엘 데리구 사오십리 밤길을 어떻게 혼자 간다구 그러나? 어서 들어가자구. 아무 구석에서 하루밤 끼워자면 될게 아닌가...》

《가야지요 뭐. 끼니때 찾아들어와서 폐를 끼친 것만두...》

이때 《아주머니!》하며 어둑어둑한 길옆에서 누가 찾더구나. 돌아보니 우리 이모할머니네 집에서 산다던 그 덕수아저씨란 사람이었어.

《이거 정말 안됐수다. 아까 내 그만 어디서 왔는지두 미처 알아보지 못하구...》

《아니예요. 조카라는게 이모의 행처두 모르구 찾아왔으니...》

《아주머니! 이왕 이모의 집에 찾아온 걸음인데 이 밤길에 돌아서느라 하지 말구 아이와 함께 하루밤 쉬구 가시우.》

《아니, 원...》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펄쩍 뛰었어.

그래도 그 덕수아저씨는 사정하다싶이 말하더라.

《나는 이제 양수기를 보러 밤일을 나갑니다. 우리 저녀석두 빈집에 혼자 있기가 싫다구 이렇게 따라나서서 애를 맥이는데 마침 됐수다. 우리 애랑 데리구 같이 좀...》

《그렇게야 어떻게?...》 어머니가 미안해하며 중언부언하는데 그 덕수아저씨가 《아주머니!》하고 벌컥 화를 내며 좋지 않아 하더구나.

《여기두 사람사는 동네테 나인을 사오십리 밤길에 혼자 떠나보내면 이 마을사람들은 뭐가 되오? 그러구 이모가 이걸 알면 나를 뭐라구 하겠소? 그 할머니는 그래두 아이 데리구 혼자 사는 나를 생각해서 이 집까지 통채루 주구 갖는데 그래 제 이모가 살던 집에서 하루밤 눈이야 못 불이겠소?》

금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함뱍 차올랐어.

이때 제일 좋아하는건 홍식오빠의 어머니더라. 제 집으로 끌던 우리 손목을 이번에는 덕수아저씨네 집으로 끌어가는 판이었다.

《덕수아주머니의 그 말이 옳수다. 자, 제 이모 집에 들어가는데 새색시처럼 내우는 무슨 내우? 호호...》

덕수아저씨는 홍식오빠의 어머니에게 조용히 귀뽀 해주었다.

《거 우리 쌀독이랑 좀 대주시우. 내 후 늦게 들어와두 아이들에게 아침밥이랑 해먹이게...》

녀자의 손이 없이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는 덕수아저씨네 집은 정말 말이 아니었다. 그 아저씨는 원래 이 농장적으로 일등가는 씨름선수였는데 석축공사에 나갔다가 허리를 다친 다음부터 양수공으로 일하게 되었다누나. 그의 집사람인 철이 엄마도 그 공사에 같이 나갔었는데 큰물이 제방을 치는통에

잘못됐구. ... 참, 고난의 행군시기 가슴아픈 사연들이 적지 않았지. 아마 그래서들 저마다 힘은 들어도 인정은 서로가 더 두려워들 졌는지.

지내보니 덕수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었던것 같애.

남들에게 제가 혹 불편을 주지 않나 해서 눈치를 보고 공연히 제편에서 미안해서 어쩔줄을 몰라하는 그런 사람이였다. 그래서 덕수아저씨만 옆에 있으면 어쩐지 어린 내 마음이 편안해졌고 웃음이 없어졌던 우리 어머니도 배를 그러안고 웃는 일까지 있었단다.

호호... 지금 생각해도 우습구나.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밤일을 마친 덕수아저씨가 집에 돌아오니 제일 좋아서 매달리는건 철이였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가 밥을 안해두돼. 저 큰엄마가 벌써 밥을 다 해놔서던. ...》

우리 어머니는 남의 물건을 채다가 들키거나 한 것처럼 얼굴이 빨개서 어쩔줄을 모르더구나.

《이거 정말 안됐어요. 아이들이 배고파하는것 같아서 내 손으루 쌀독뚜껑까지...》

《원, 무슨 말씀을 하시오? 내대신 아침밥을 지어준게 더 고마운데...》

밥상에 놓여있는 나물밥을 들여다보던 덕수아저씨가 가슴아픈지 작은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두 참, 어찌다 촌에 데리구온 아이에게 무슨 이런 나물밥을...》

《나물밥이면 어딴니까? 지금 형편에...》

우스운 이야기는 그때 서로 나를 걱정하다가 터졌구나. 덕수아저씨가 물었단다.

《이 애의 이름이 송희라구 했지요?》

《예. ...》

《송희를 빨리 추켜세워야겠수다. 보기에두...》

《사실은 그래서 이모한테 이 애를 맡겨놓구 갈려댔는데...》

《이모는 없는거구... 그런데 아주머니! 토끼를 잡아본적이 있소?》

《아이구, 그걸 어떻게?...》

《그럼 내 우리 집 저 토끼를 잡아줄게 아이에게 토끼곰을 좀 먹여봅시다.》

우리 어머니가 필쩍 뛰었다.

《그걸 잡다니요? 새끼를 한창 젖먹이는 엄마토끼를...》

《새끼에게 젖을 먹이다니요? 그건 또 무슨 소림니까?》

《참, 모르시겠구만요. 아침에 마당엘 나가보니 밤새 글썽 새끼를 여섯마리나...》

《하하, 잘못 봤겠지요. 우리 집 토끼는 수토끼인데 수토끼가 어떻게 새끼를 낳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호호 웃었다.

《그게 무슨 개미가 새끼를 낳았다구 눈에 잘 안 보이겠나요?》

《원, 무슨 소린지. ...》 하며 마당을 내다보던

덕수아저씨가 눈이 이만해지더구나. 그럴수밖에... 수토끼의 우리에서 고운 새끼들이 오골거리고있었으니까.

《송희 어머니, 내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예?》

《수토끼두 운수좋으면 간혹 새끼를 낳는 수가 있나요?》

《아니, 수토끼가 어떻게 새끼를 낳겠나요?》

《내 그래서 하는 소리웨다. 우리 집 토끼는 틀림없는 수토끼인데...》

《새끼때 잘못 알구 가져왔겠지요. 암놈인걸 수놈인줄루...》

이번에는 덕수아저씨가 필쩍 뛰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오? 우리 저 수놈의 토끼가 그새 아버지노릇을 얼마나 했다고요. 종자가 하두 좋아서 술한 집들이 암토끼를 안구와서 쌍불임해가지구 갔는데 한달후에는 그 집 암토끼들에게서 어김없이 새끼를 받았지요.》

《그럼 수토끼가 어떻게 새끼를 낳았을가요?》

《그러게 말이우다. 전번 한달전에두 저 건너집 홍식이가 제 암토끼를 우리 집 토끼우리안에 넣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져갔더랬는데...》

《그럼 그때 토끼가 서로 바뀌운게 아닐가요?》

그제야 덕수아저씨가 무릎을 탁 쳤다.

《아뿔싸, 일인즉 그렇게 됐겠구만!》

《그런데 글썽 나보구 자꾸 수토끼두 새끼를 낳는가구 따지니...》

《따지기가 뭐. 현실적으루 수토끼우리안에 새끼가 오골오골하더라니 혹 수토끼두 새끼를 낳는 수가 있나 해서...》

밥상도 채 거두지 않은 자리에서 덕수아저씨는 무릎을 치고 우리 어머니는 손뼉까지 쳐가면서 웃었다. 나는 늘 침울해있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웃는걸 보니 그저 무작정 좋아서 웃구.

얼마나 요란하게 웃어댔으면 우리가 맛 좀 보라고 콩나물국을 들고왔던 홍식오빠의 어머니가 마당에서 깜짝 놀라 되돌아섰겠니. 돌아가서 그 어머니가 또 벅작 떠들었다누나.

《여보! 글썽 내가 마당에 들어선것두 모르구 방문을 활짝 열어놓은채 돌이 좋아서 웃어댄다는데...》

《뭐, 웃어대?》

《그저 웃기나 하게요. 서로 웃다못해서 무릎까지 짹짹 쳐가면서...》

《서로? 그럼 상대방의 무릎을 치딘가?》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채 못 가구 제 무릎을...》

《좌우간 누구의 무릎이건간에 웃음소리 높은것만 해두 경사로구만!》

바로 그때 덕수아저씨가 《경사가 났수다!》하고 마당으로 들어왔다누나.

홍식오빠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것 봐라? 저



쪽에서 먼저 경사소리를 낸다?》하며 내다보니 덕수아저씨가 토끼우리를 통채로 들고오지 않았겠니.

《이제 경사가 아니구 뭐요? 이 집 토끼가 우리 토끼우리안에 틀구앉아서 간밤에 새끼를 여섯마리나 낳았수다.》

《무슨 소리? 보라구. 우리 토끼는 아직 배두 안 볼렀는데...》

《이제 그 집 토끼웨다. 전번에 우리 토끼하구 바뀌었지요. 그런걸 우리는 수토끼가 새끼를 낳았다구... 하하, 우리 집에 나들이온 그 아주머니하구 실컷 웃다가 오는 길이웨다.》

《아니, 그래서 무릎을 치구 손벽을 치며 같이 웃었소?》

《그게 안 우습소?》

이날 아침 덕수아저씨는 콩깍지를 먹어서 똥보토끼로 살찌웠다는 그 수토끼를 도로 찾아다가 나에게 토끼곰을 해주었다.

《자, 좀 봐라! 콩깍지를 먹구자란 놈이 돼서 얼마나 살진 똥보토끼인가?》

《사람두 콩을 먹으면 똥보될수 있나요?》

《되지 않구! 황소두 콩을 먹으면 목이 이렇게 똥똥해져서 발갈이를 씹는 하네 사람이라구 똥똥해지지 않겠니? 이 콩살이 오른 토끼곰을 다 먹으면 너두 요 볼이 똥똥해지거든. 오늘 점심때 이걸 다 먹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못 떠난다.》

콩이란 사람을 똥똥하게 만드는데 그렇게도 좋다는것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날 점심때쯤 거의 되어서 홍식오빠네들이 마을뒤에서 콩청대를 하더구나. 콩청대란 뭐인지 그때 내가 알거나 뭐니. 뒤울안에서 철이와 같이 놀다가 저 오빠네들이 지금 왜 저렇게 불장난을 하는가고 물었더니 콩을 구워먹는데 꽤나 맛있다는것이다. 그 콩을 먹기만 하면 나도 당장 두볼이 똥똥해질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철이를 추겼지.

《너 건너집 저 오빠를 잘 알지?》

《저 홍식형님은 내 하자는대루 해...》

《그럼 우리두 좀 같이 먹게 해달라구 말하러 마.》

철이는 얼른 그쪽을 향해서 소리쳤다.

《홍식형님! 우리두 오라?》

《우리라는건 또 뭐야? 너만 오라!》

철이는 그들에게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우리 집에 온 누나두 좀 주자마.》

그런데 그 심술보오빠가 뭐했는지 아니?

《주긴 뭘 줘? 우리를 촌놈이라구 깔보는 그런 계집애는 배가 고파봐야 해!》

나는 울고싶었다. 그러나 진짜로 울었던것은 그 다음이었다. 흥, 너희들이 안 준다고 내가 못 먹을것 같애? 다 먹고 간담에 채무지를 헤쳐서 콩알을 찾아먹으면 되지. 아무렴 저 애들이 똥똥이야 다

먹을가. 한참후에 내다보니 그 애들이 어느새 실컷들 주어먹고 간데온데 없더라. 그래 내 콩청대자리에 찾아가서 꼬챙이로 채무지를 헤치는데 어데서 《먹지 말라.》하고 소리지르지 않겠니. 깜짝 놀라 살펴보니 글썽 그 심술쟁이가 무우밭에서 소리치고 있구나. 콩청대뒤끝에는 꼭 무우를 먹는다나?

그 애들이 가지 않고 무우밭에 숨어있을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결국 채먹다가 들킨셈이 됐구나. 저희들이 먹다가 남긴것도 못 먹게 소리치는 심술쟁이... 나는 창피스럽기도 하고 뻔나기도 해서 혼자 막 울었다.

점심을 먹자 어머니는 빨리 차비를 해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덕수아저씨가 말리었다.

《며칠 휴가를 받았다는데 이 애를 좀 추켜세워가지고 떠나야지 큰일납니다. 내 이 애한테 보신탕을 좀 먹여볼가 하는데 우리 철이랑 데리구 오늘 밤두 여기서 주무시우. 나는 오늘두 래일두 계속 밤일이니까...》

그때 나는 덕수아저씨를 따라 양수장에 가서 처음으로 미꾸라지탕이라는것을 먹어보았다. 낚시질도 아니고 그물도 없이 손으로 잡는 물고기는 아마 미꾸라지밖에 없을거다. 논판이나 개울 같은데서 미꾸라지를 잡는 재미란 정말 여간이 아니더라.

이 농촌마을에 와서 하루이틀사이에도 처음 보는 재미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지. 그런데 그 홍식오빠의 심술을 견디여내기는 정말 힘들더구나. 글썽 내 모르게 철이를 불러다가 어쨌는지 아니?

《철이야, 너는 어쩌서 네또래의 동무들하구는 같이 놀지 않구 이 형님만 따라다니니?》

《체, 그것들하구 같이 놀아야 배울게 있나? 그 래두 홍식형님을 따라다니야 얻어들을 소리두 있구...》

《요게 똑똑은 해! 그런데 너의 집에 와있는 고것두 내앞에 불러다가 단단히 좀 교양받자는거야.》

《흥, 그 누나가 형님앞에 교양받으러 오겠대?》

《이제 두구보려무나, 제발루 내앞에 찾아오지 않나... 그런데 그 애가 말이야, 바이올린통을 척메구 오던데 좀 하긴 하던?》

《체, 형님이 학교걸 빌려다가 뽀뽀하는것하구는 대비두 안돼.》

뒤에서 내 소리를 하는걸 그때 내가 알기나 했겠니?

갑자기 뒤산에서 종치는 소리가 나더구나. 무슨 소리가 해서 내다보는데 고등중학교 2, 3학년쯤 되어보이는 어질게 생긴 학생이 찾아와서 저 소리가 파외생활반이 모이라는 종소리라는거다.

《내가 뭐 이 마을 아이니?》

그랬더니 막 사정하다싶이 하더구나.

《우리 파외생활반책임자형님이 다른 학교에서

나들이온 아이들두 다같이 참가해야 한다구 꼭 데려오라누나, 거 바이올린통두 가지구.…」

그러는데 어머니가 어느새 내 어깨에 바이올린통을 메워준다.

《송희야, 그건 좋은 일같은데 빨리 가봐라. 제미나는 노래모임두 하는 모양인데 이 마을아이들앞에서 네 숨씨두 좀 보여주구.…」

하긴 좀 본때를 보여주고싶은 생각도 났다.

그런데 그 과외생활반책임자란 바로 심술보 홍식오빠였다. 벌써 스무명쯤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까지 하고있더구나.

《에— 온 마을이 지금 수해복구전투에 펼쳐나섰습니다, 선생님들까지두.…」 이런 때 청년동맹원이건 소년단원이건 장난질이나 하면서 놀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답이 시원치 않아! 알았습니까?》

이번에는 모두가 《예!》하고 큰소리로 대답하는데 나만 아직도 입을 꼭 다물고있었잖나 봐. 하긴 제가 무슨 선생님처럼 노는게 눈꼴사납더구나. 그 심술쟁이오빠도 역시 가만있을게 뭐니.

《아직두 무우먹구 채한것처럼 입을 열지 않는 동무들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학교에서 우리 마을에 나들이온 동무, 하루건 이틀이건 여기에 와있는 동안은 우리 과외생활반에 잘 참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구 농촌에 대한 인식두 똑바로 가져야 하겠습니까.》

뭐, 말이 길다는건… 어느 책에서 본것, 학교에서 배운것까지 총발동시키는것 같애.

《농촌이 있어야 도시두 있는거구. 그래 세상이 생길 때 도시가 먼저 생겼겠는가, 농촌이 먼저 생겼겠는가? 왜 사람의 눈에 푸른색이 제일 편안한지 압니까? 인류가 생겨날 때 이 세상에는 풀과 나무, 온통 푸른 세상이였거던. 이런 상식두 좀 알아두구. 그런데 나들이온 일부 어린 동무들중에는 우리 농촌을 좀 깔본단 말이야. 우리가 먹구사는 난알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 한알한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때 아마 내가 나도 모르게 입을 비죽거렸던가 봐. 홍식오빠가 대뜸 나를 쏘아보지 않겠니?

《왜, 내 말이 잘못됐나?》

나도 툭 내쏘았다.

《누가 잘못됐답니까? 난알 한알한알이 귀중하다구 말하면서 몰래 숨어서 콩청대를 해먹는건 일 없습니까?》

그러자 홍식오빠는 《뭐?》하면서 말을 못하고 갑자르기만 하더구나.

내친 김에 또 한마디 쏘았지.

《그러구 먹다가 버린 난알을 남들이 주어먹지두 못하게 심술을 부리는건 좋은 일입니까?》

《그, 그건 물론 좋은 일이 아니구.…」

급하긴 좀 급했던 모양이더라.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소린지 과외생활반책임자로서 한마디 훈시하는 소린지 두리몽실하게 얼버무리더니 얼른 조직사업이라는데로 넘어가더구나.

《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동무들이 수해복구전투장에 가겠는데 그 바이올린두 소고와 함께 맨앞에 서시오. 행진가요를 연주하면서 앞으로—》

나는 너무도 어처구니없어 저도 모르게 《체…》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었나보더라. 대뜸 그 오빠가 《야.》하며 큰소리를 치지 않았네.

《너 꼬꼬만게 왜 자꾸 토달거려? 앞에서 그걸루 박자를 치라면 칠거지!》

《현악기를 가지구 어떻게 박자를 치나? 그거야 관악기나 저 소고 같은 타악기루 하는거지.》

《너 또 제잘난체 하겠어? 아무거나 가지구 통통 소리를 내면 되는거지. 자, 잔말말구 소고옆에 서!》

그 심술쟁이가 어디 지겠다고 하니? 할수없이 소고수옆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앞으로 행진해나갔구나. 어머니의 말대로 아이들앞에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던노릇이 나는 원, 대렬앞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행진했다는 소리는 아마 너희들도 듣다 처음 일제다.

나도 아이때부터 앙큼한데가 있어서 그 심술쟁이오빠를 기어코 한번 골탕먹일테다 하고 그날 생각했는데 두밤 자고 사흘째 되던 날에 어머니는 끝내 내 손목을 끌고 이 마을을 떠났단다.

그때 우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덕수아저씨가 바로 이 고개길까지 혈떡거리며 따라왔더구나.

《송희야! 너 나하구 약속하지 않았니? 오늘두 이 미꾸라지탕을 해먹자구…》

《엄마가…》

덕수아저씨는 우리 어머니에게 사정하다싶이 하였다.

《송희 어머니, 그럼 이 애만이라두 내게 며칠 더 맡겼다가 찾아가면 안되겠소?》

《그렇게야 어떻게… 데리구 가야지요 뭐.》

하는수없이 덕수아저씨는 비밀통을 우리 어머니 손에 들려주었다.

《그럼 이걸 가지구 가서 한두끼라두 미꾸라지탕을 더 해먹이시오. 여기에다 소금을 한줌만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감탕을 몽땅… 참, 송희두 다 압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덕수아저씨는 이 고개마루에 그냥 서있었다. 나도 자꾸 돌아보게 되더구나. 막상 집에 돌아오니 그 아저씨의 생각이 더 나더라. 그렇게 그해가 지나구 다음해 봄철에 어머니 원료기지에 또 동원을 나갔단다.

다섯밤을 자고 온다던 어머니가 여섯밤, 일곱밤이 지나도 어데 오니? 빈집에 혼자 있자니 그 버드내마를 덕수아저씨의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나는 혼자 타발타발 걸어서 이 버드내마을에 두 번째로 다시 찾아왔단다.

덕수아저씨는 깜짝 놀라더라.

《아니, 송희야! 어머니는 왜 안 보이니?》

《내 혼자 왔어요.》

《혼자 오다니? 이 먼길을 네가 혼자서?》

《어머니는 원로기지에 동원나갔어요. 빈집에 혼자 있자니 무섭구, 갈데는 없구 아저씨의 생각이 나서...》

덕수아저씨는 《내 생각이 나던...》하다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그 말을 또 한번 듣고싶다고 하더구나.

《송희야!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 생각이 나던?》

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 아저씨의 눈썹이 축축히 젖어지더라. 얼마나 정이 그리웠던 아저씨였으면...

그런데 하루밤 자고나서 뜻밖에도 가슴철렁하는 일이 생길줄이야...

덕수아저씨가 리당비서아저씨와 여기 교장선생님까지 데리고오더니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니. 이름이 뭐냐, 어느 학교 몇학년 몇반이냐... 하나하나 물어보고 수첩에 또박또박 적기까지 했다.

그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혼자 곰곰히 생각해보느라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구나. 덕수아저씨가 왜 리당비서아저씨랑 교장선생님이랑 데리고와서 나에 대한걸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가게 했을까.

덕수아저씨가 나를 이 촌학교에 떼다붙이자는 게 아니야? 하긴 교장선생님도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너 어데 가지 말구 있다가 학교에서 찾으면 인차 나와야 한다. 우리 학교를 알지?》

우리 학교란 이 마을 학교였지.

거기루 나오라구? 이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음에도 더이상 참고견딜수가 있어야지. 이 촌학교에 나를 떼다붙이려는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리당비서아저씨에게 알아보자고 달려갔더니 뭐, 알아보나마나 벌써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과 나를 그 학교에서 떼고 이 촌학교에 붙이는 전화를 한창 걸고있더라 말이다.

《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다시 확인합시다. 이름은 한송희, 3학년 1반... 맞지요? 그럼 이자 말한대루 그 학교에서는 삭제하고 우리 학교명단에 넣습니다. 예, 10시현재로 우리한테 등록, 거기서는 삭제...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리당비서아저씨를 만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문밖에서 그 전화거는 소리를 듣다가 그길로 돌아서서 냅다 뛰기 시작했다. 이 고개를 넘어

10리쯤이나 더 갔을 때였는데 뒤에서 툭툭거리리는 소리가 나더니 소형트랙터 한대가 달려와서 내 앞을 막지 않겠니?

덕수아저씨가 운전칸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주먹으로 내 엉치를 힘껏 때려주었다.

《예끼! 말두 없이 도망치다니, 이런 법이 어데 있어?》

《난 아저씨가 그런 사람인줄 몰랐어요...》

나는 너무 서러워서 막 흐느껴울었다.

《몰래 나를 이 촌학교에 떼오자구요? 아저씨가 그럴줄은 정말 몰랐어요. 난 갈래요. 그러구 다시는 여기에 오지두 않겠어요.》

덕수아저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트랙터운전칸에 앉아있는 리당비서아저씨를 쳐다보며 허허 웃더구나.

《이 애가 지금 저를 우리 촌학교에 떼오나 해서 이러누만요.》

그때에야 리당비서아저씨도 트랙터에서 내리더니 내 손목을 잡더라.

《너 이 리당비서아저씨가 욕먹는걸 보구싶어서 그러니? 내가 오늘 선물전달식에 빠져봐라. 이 아저씨는 자리를 내놔야 돼...》

내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있었겠니?

벌써 아이들이 줄지어 서있는 그 운동장으로 트랙터를 타고 툭툭거리며 들어가는 내가 그때 얼마나 우쭐했겠니?

먼저 교장선생님이 우리앞에 척 나섰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아버지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게 되는 학생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요란한 박수와 소고소리가 그때 내 가슴을 어찌나 울렁거리게 하던지...

그 다음번에는 군당책임비서아저씨가 연락에 나섰다.

그때 우리에게 해주던 그 말을 나는 오늘까지 한마디도 잊지 않고있다.

《학생동무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작은 손에 알사탕 한알 제대로 쥐여주지 못하는 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십니다. 이제 크면 후날 다 알게 됩니다. 왜 지금 점심밥을 못 먹는 날두 있구 풀죽으루 끼를 예우기도 해야 하는지, 그러구 오늘 이 사랑의 선물이 어떤 눈물겨운 사연으로 학생들의 가슴에 안겨지게 되는것인지두 지금은 다 모릅니다...》

책임비서아저씨는 목이 짹 메어서 겨우 다음말을 잇더라.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지만 뜻깊은 태양절 선물만은 가지수도 그전보다 더 많이 늘이고 한 아이도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생활이 어려워서 혹 친척집에 가있는 아이가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라도 꼭 안겨주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 달리는 철차칸에서도

우리 일꾼들이 혹 선물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찾고있습니다.…」

그 책임비서아저씨도 끝내 안경을 벗어두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더라.

나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정말 무슨 눈물이 그리도 많이 나던지 아이들이 다 헤쳐간 뒤에도 텅 빈 운동장에 혼자 쪼그리고앉아서 그냥 울었구나.

덕수아저씨도 말없이 나를 내려다보며 말리지 않았다.

철이가 《송희누나, 이젠 가자마.》하고 내 손목을 잡을 때도 덕수아저씨는 《놔둬라.》하면서 눈굽을 닦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철이가 받은 선물을 같이 나눠먹구 네 집에 가지구가서 어머니에게 꼭 보여라.》

그러나 나는 마을길에서 벌써 그 선물구력을 헤치진 않을수 없게 되었다. 저기서 마주 다가오는 심술쟁이오빠를 보니 이번엔 내가 그에게 단단히 골탕을 먹고싶었거든.

그 홍식오빠는 그때 이미 졸업을 했었던단다.

《철이야, 너두 거기서 콩사탕을 꺼내라.》

《왜?》

《글쎄, 빨리.》

홍식오빠와 어기게 되었을 때 나는 일부터 큰소리로 말했다.

《철이야, 이 콩사탕이 더 맛있니, 그 콩청대가 더 맛있니?》

《체, 콩청대같은거야 입에다 검댕이칠이나 잔뜩 했지 콩사탕하구 대비나 돼?》

그런데 골탕을 먹을줄 알았던 그 심술쟁이가 이번에는 나를 또 메사하게 만들어주더구나. 길옆에서 들꽃을 한송이 척 꺾더니 그것을 내 저고리의 웃주머니에 꼭 꽂아주면서 《송희, 축하해!》이러지 않겠니? 거기다 대고 할 소리가 있어야지. 어찌도 메사하던지…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나는 그 들꽃 한송이의 값을 넉넉히 갚아주었던단다. 그에게 화려한 꽃다발을 안겨주었었으니까. …

×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간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 우리 학교 소년단에서는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초모생들에 대한 환송사업이 있었다.

《군사복무 잘하세요!》

《공부들 잘해라!》

꽃다발을 흔들다가 나는 버스창문에서 손을 짓는 홍식오빠를 보았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홍식오빠!》하며 막 달려가서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홍식오빠도 《송희야!》하며 뭐라고 다급하게 말하는데 무슨 소린지 통 알아들을수가 있어야지. 그

저 《그때, 그때…》하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때 어쨌다는거예요? 뭐라고요?》하며 따라가는데 빠스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홍식오빠는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날 얼마나 안타깝던지…

채 듣지 못했던 그 뒤말을 나는 3년후에 마저 들을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군단기동훈련에 참가했을 때였다.

군복바지를 걸어올리고 강물에 들어서서 한창 포차를 청소하고있는데 《너, 송희 아니야?!》하며 홍식오빠가 나한테로 달려오는게 아니겠니. 정말 뜻밖이었다.

《어마나, 홍식오빠!》

《너두 벌써 졸업하구 입대했니?》

《벌써가 뭐예요? 신병훈련을 마치구 이렇게 군단기동훈련에까지 참가했는데…》

《같은 군단인것두 모르구…》

《홍식오빠는 통신병이구나, 무전기를 척 멘걸 보니…》

《넌 포차운전사가?》

《나두 직속포런대…》

홍식오빠는 내 훌륭한 군복차림을 한동안이나 훑어보더구나.

《너 아직두 추서지 못했구나.…」

그 말에 나는 그저 호호 하고 웃는데 홍식오빠는 웃지도 않더라.

《너 입대할 생각 어떻게 했니?》

《오빠, 그렇게 말할수 있어? 군사복무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인데…》

《너 그 신성한 의무를 제대로 지킬것 같지 못해서 그러는거다. 그 몸으로 포차를 끄다는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문득 헤어지던 때일이 생각났다.

《그날 오빠를 바래주던 때 어찌두 안타깝던지. 그때 무슨 말을 하려했어요?》

《이젠 다 지나간 이야긴데 이제 뭘…》

《그래두 말해달라요.》

홍식오빠는 좀 멋적은지 픽 웃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니.

《네가 콩청대자리에서 콩알을 주어먹으려구 할 때 내가 먹지 말라 하구 소리친건 말이야, 네가 먹는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재무지에 불씨가 있는 것 같더라니 철이랑 우리모두 빙 둘러서서 거기에다 오줌을 싸던거란 말이야. 그래서 얼굴에 먹지 말라구 소리쳤었는데 네가 와뜰 놀라 울면서 뛰어가더구나. 사실은 그 말을 하려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걸으로는 실컷 웃고 속으로는 실컷 울었다. 심술보오빠의 가슴속에도 뜨거운것은 있더구나.

그 홍식오빠를 군대에서 두번째로 만난것은 제



대병사들에 대한 축하공연모임때였다. 군사복무의 보람찬 나날을 마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 전선으로 달려나가는 제대병사들을 축하하여 며칠전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보아주신 우리 중대의 예술소조공연을 군단회관의 무대위에 펼쳐게 되었던 거다. 내가 공연을 끝낸 뒤에 바이올린을 안고 무대위로 나오니까 홍식오빠가 어느새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있었구나.

《송희, 축하한다. 최고사령관동지께 너희 중대 예술소조공연을 보여드렸는지?》

《그런데 홍식오빠! 어쩌면 좋아요?》

최고사령관동지께 우리가 걱정을 끼쳐드렸으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공연을 하다가 실수라도 한게 아니야?》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공연을 보시다가 문득 안색을 흐리시었어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우리를 몸가까이에 부르시여 고향은 어디고 나이는 몇살이나 하나하나 물으시고 고난의 행군이 너희들을 이처럼 허약하게 만들었구나 하시며 너무도 가슴아파하시기에 우리는 힘있게 말쑥을 올리었어요.》

《최고사령관동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아버지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랑 똑꼭 받아안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여전히 안색을 흐리신채 너희들에게 군복을 입혀서 총을 메운 어머니들이 고맙다고…》

나는 종내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흐느껴울었구나. 그러고보면 홍식오빠의 말이 맞기도 했지. 약한 몸으로 군대에 나와서 우리 최고사령관동지께 이런 가슴아픈 걱정까지 끼쳐드렸으니…

그런데 그후 우리 중대에 꿈에서도 생각할수 없었던 뜻밖의 경사가 생길줄이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글썽 우리 병사들의 식생활을 추켜세우라고 좋은 콩종자를 친히 보내주시지 않았겠니? 후날 그 기쁜 소식은 홍식오빠를 통해서 이 버드내마을에까지 얼른 날아왔겠구나. 선전실에 모였던 덕수아저씨, 리당비서아저씨네들이 텔레비존앞에서 그 보도를 들으며 모두들 눈물을 흘렸대.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보내주신 콩을 먹고 녀성중대병사들이 체중이 부쩍 늘어난 사진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군대에 나와서 이렇게 몸이 좋아진 딸의 사진을 받아보면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빨리 비행기를 띄워 딸들의 사진을 고향의 부모들에게 보내주라고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었습니다.…》

덕수아저씨는 너무 기뻐서 홍식오빠에게서 나의 군사우편함의 대호를 알아가지고 편지까지 보내주었다.

《나는 끝내 너의 불을 뽕뽕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너를 녀장수로 만들어주시

었구나. 하루빨리 보고싶다.…》

그런데 그 고마운 아저씨가 내가 제대되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났구나. 그전에 다친 그 몸이 끝내… 나는 홍식오빠가 전해준 그 가슴아픈 소식을 받고 얼마나 울었던지…

내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될 때 중대에서는 사랑의 콩종자를 한배낭 지워보냈다. 우리들을 이렇게 장수로 만들어준 그 사랑의 콩종자가 2년후에는 중대의 창고를 가득히 채웠거던. 그 콩종자를 받아안았을 때 나는 이 버드내마을이 먼저 생각나더구나.

잊을수 없는 그 땅에다가 이 사랑의 콩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

나는 너희들이 나서자란 이 땅에 그 콩종자배낭을 지고 세번째로 찾아왔다.

그것을 이 땅에 심어놓고 나는 봄부터 가을까지 짬만 나면 여기로 달려왔구나. 이 콩종자에 맞는 파종법이랑 그 재배방법에서는 중대에서 2년동안이나 경험을 쌓은 내가 실농군이였거던. 마침 나는 식료공장 운전사였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일을 끝내고 밤시간에도 왔다갈수 있었다.

이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니. 이 버드내마을 땅에도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콩종자가 꽃을 피웠다고 모두들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홍식오빠와 함께 이 콩밭에 들어서니 정말 꽃밭속을 걷는것만 같더구나. 홍식오빠는 두루두루 콩농사의 작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송희, 이제는 떠나야 하지 않았겠니?》

《아니, 오늘은 저녁때까지 종일 견졌어요. 미꾸라지를 잡던 그 덕수아저씨의 양수장에랑 한번 가보구…》

《너 그 양수장을 아직두 잊지 않았구나.》

《어떻게 잊을수 있겠어요. 제일 어렵던 때 나에게 밥 한끼 따듯이 먹여준 이 땅, 나는 군사복무의 나날에 단 한번두 여기를 잊지 않았어요. 단 하루밤을 재워주구 단 한끼를 먹여주었다 해두… 나는 못 잊겠어요. 미꾸라지가 꿈틀거리던 실개울, 그 보신탕, 철이 없어서 농촌을 업신여기구 촌사람이라구 깔보다가 심술쟁이 홍식오빠한테서 쫓기던 그 콩청대자리랑 세월이 가두 나는 못 잊어요. 나는 이제 그 자그마한 학교운동장에두 다시 가보겠어요. 여기 먼데까지 나를 찾아와서 이 작은 가슴에 안겨지던 아버지장군의 그 사랑의 선물, 그걸 받아안구 마구 흐느껴울었던 그 작은 운동장… 난 못 잊어요, 그 고맙던 사랑을!》

군사복무의 나날 견디기 힘든 때에두 나는 그 사랑을 안구 이겨냈어요.》

내 이야기를 들으며 홍식오빠두 가슴이 퍼그나



빠근해하는것 같더구나.

《그럼 송희, 같이 다닐까? 동무해서...》

《그때주면 더 좋지요 뭐, 룡청대자리에 가서 홍식오빠는 그때처럼 나한테 또 큰소리두 한번 쳐보구 나는 또 도망두 쳐보구...》

우리는 덕수아저씨가 일하던 그 양수장옆의 도랑에 들어가서 미꾸라지도 같이 잡았다. 잠간사이에 비닐통에 하나 가득히 채더구나. 홍식오빠는 그걸 내 손에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송희! 이걸 가지구가서 어머니와 함께 보신탕을 해먹어라.》

대답대신에 나는 홍식오빠를 뻥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갑자기 어데서 그런 담이 생겼던지...

《그런데 홍식오빠, 나 한가지 말할게 있어요.》

《말하라.》

《왜 나보구 〈송희야, 송희야.〉 해요? 아이대하듯...》

맑은 하늘에서 갑작벼락이라더니 홍식오빠는 뻥해서 나를 쳐다보더구나. 그런걸 또 한번 들이켰지 뭐.

《그때는 물론 홍식오빠 청년동맹원, 나는 소년단원, 아이처럼 보일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젠 같은 제대군인, 같은 당원... 그해야 오빠하구 나하구 나이차이가 세살밖에 더 돼요?》

《아니, 네가 나를 오빠라구 부르니까 나두 너를 동생처럼 야, 자 할수밖에 있지?》

《그럼 어떻게 부르나요?》

《그저 홍식동무 이렇게 부르던가... 가만, 그건 좀 지내 버릇이 없는것 같구 홍식동지라구 부르려무나.》

《그럼 이제부터 내게두 그렇게 불러야 해요!》

《좋아...》

《먼저 부르랴요.》

《내가 왜 먼저 불러? 동시에 같이 부르던가...》

《좋아요. 그럼 하나, 둘, 셋!》

그 순간 우리는 《홍식동지! 송희동지!》하고 동시에 합창하면서 서로 반대쪽으로 뛴다 뛰기 시작했구나. 호호, 지금 생각하면 꼭 아이들의 놀음 같기도 했고...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와 가지런히 누워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버드내마을에 가서 살면 안될까? 철이는 군관학교에 갔다는데 내가 그 고마운 덕수아저씨의 묘주노릇두 하면서...》

말없이 얼굴을 돌리는 어머니의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

《어머니, 우나?》

《네가 10년전 그때 이 말을 했으면 나는 그때 벌써 그 마을을 떠나지 않을수도 있었다.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덕수아저씨두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을수도 있었구...》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 마을에 도착하던 날 제일 앞에서 홍식오빠가, 그뒤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며 이제는 집에 들어온 리당비서아저씨랑 교장선생님이랑 달려나왔다. 그들속에 덕수아저씨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러나 고난의 행군은 그런 가슴아픈 희생도 없지 않았다.

이젠 지나간 세월이구나. 그 심술쟁이오빠도 이젠 기가 다 죽어서 저렇게 좋은 사과를 골라 따가지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섬기고있지 않니? 재간없지 뭐, 그전에는 제아무리 우쭐했어도 이제야 파수작업반 반장도 이 관리위원장의 밑에 있는걸. 호호...

×

너희들을 태우자고 빠스가 벌써 왔구나. 잘들 가거라. 그리고 꼭 명심들 해라. 군사복무의 나날에 왜 어려운 때인들 없겠니. 더구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성업도 앞에 두고있지 않니? 지난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시련이 닥칠수도 있다는것을 우리모두가 각오해야 한다.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겨내겠니? 사랑의 힘일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6월 1일 국제아동절날에도 평양애육원을 찾아 부모없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랑이지!

고난의 행군때엔 아버지장군님의 그 사랑을 안고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으며 그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모두 남남이 따로없이 뜨거운 정을 바쳐 서로 도왔다. 나도 너희들의 고향, 이 땅에서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을 안고 떠났다가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을 안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너희들도 병사들을 한명, 한명 곁에 세우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한장, 한장 찍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군복입은 가슴속에 늘 깊이 간직하고 살면 모범전투원도 되고 영웅도 되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웃으며 이겨낼수 있다. 이것이 너희들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하고싶은 부탁이다.



리 명 호

1

나는 탄광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 존경심은 아마도 아들없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손목잡고 탄광구내를 걷던 그 소녀 시절부터 시작된것이리라.

성적인 생산계획수행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 하도록 탄광을 이끌어오는 완강하고 치밀한 사업전 개력에서나 나이든분들까지 허물없이 《이보라구, 한대 피우고 가라구.》하고 찾을 정도로 탄광마을 사람들을 간격없이 대하는 인정미에서나 모든 면에서 나는 아버지를 긍지와 자랑으로 여겨온다.

더구나 오늘 이렇게 나즈막한 산언덕길에서 서부 갱지구에 새로 꾸러진 마을전경을 내려다보느라 나의 마음은 이름 못할 환희로 끓어번졌다.

서쪽으로 기울던 저녁해마저 마을의 희한한 전경에 취해 봄의 따스한 빛발을 거두기 아쉬운 모양 국사봉마루를 인츰 뜰념 않고있다.

국사봉아래 양지바른 기슭에 터를 잡고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번듯하게 들어앉은 수십동의 살림집들은 방금 회칠까지 해서인지 그 끼끗한 모양이 주변의 송림과 조화를 이루며 숲속에 날아드는 백학의 무리를 방불케 했다.

아롱다롱한 빛을 뿌리는 색기와 엷은 지붕들, 금시라도 주인들을 향해 행복의 향기를 한껏 퍼칠듯 자홍색노을꽃이 어려있는 창가들은 우리 탄부들의 사기를 더욱 돋구어주는듯싶다.

온 탄광이 사기충천해있다. 한것은 탄광사람들모두가 오늘의 이 경사를 체대군인들의 살림집문제가 해결되었다는것과 함께 드디어 서부갱복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간주하기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의 심정이 이러할진대 아버지의 마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서부갱이 침수된 때로부터 지난 몇해 동안 그때의 힘겨웠던 나날들을 떠올리며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들곤 하던 아버지였다.

원래 서부갱은 채굴초기부터 발열량이 대단히 높은 기름진 석탄이 수백만톤 매장되어있는것으로 해서 탄광적으로 크게 중시해오던 곳이었다.

그런데 얼마 굴진해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지배인으로 임명되어온 그해 장마때 침수되고말았다.

내가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탄광기술과에 배치되어와서 들은 소리지만 아버지는 위험에 처한 갱을 살리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레년에 없이 며칠째 계속되는 폭우로 하여 막장의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줄기들... 간단치 않게 높은 수압은 동발목을 메고 육탄마냥 다가드는 탄부들을 허공 갱바닥에 쥐어뿌리곤 했다. 가까스로 물구멍들에 췌기삼아 틀어막았던 나무토막들이 발파에 휘뿌러지는 돌쪼각처럼 튕겨났다.

산사태로 전력망이 끊어지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뿔프마저 몇자 아버지는 인력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바가지로 강물을 퍼내는 격이었다. 갱벽을 따라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있었다.

《지배인동지, 뿔프와 압축기를 옮겨야 합니다.》

발목을 잠근 물속에서 물담긴 바깥쪽을 뒤사람에게 넘겨주던 아버지는 절망속에 부르짖는 기사장에게 평국 사나운 눈썹을 날렸다.

《그러니 막장을 포기하자는건가.》

젊은 기사장이 흠칫했다. 그러나 실상 그 웨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던진 울분이었다.

아버지는 얼빠진 사람처럼 멍청한 눈길로 검은 물이 일렁이는 막장을 둘러보았다. 물먹은 탄벽이 또다시 무너져내리며 막장에 차오르는 물을 덮쳤다. 그 여파에 놀리운듯 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며 탄덩이처럼 꺼먼 주먹으로 검은 기름같은 물면을 내리쳤다.

《아까운 탄을 잃는구나!》...

그후 아버지는 침수된 갯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현존석탄생산을 밀고나가면서도 서부갱을 살리기 위한 준비로 공무직장에서 12인치뿔프설비들을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능력높은 대형전동기도 끌어들었다. 갯에 차있는 물을 퍼낼 준비가 완료되자 탄광에서는 올해석탄생산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낼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의 돌파구를 서부갱 복구에서 찾았다. 탄광의 결심은 지지를 받았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서부갱 복구는 성적인 관심사로까지 되었던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 영서탄광으로 35명의 제대군인들이 탄원하여왔다.

온 탄광이 기뻐하며 그들을 환영했다. 침수갱의 물을 퍼내기 시작한 때여서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골간으로 돌격대를 무어 수위가 내려가는 차례로 석탄죽과 버력죽을 퍼내는 전투를 벌릴거라고 속집작했었다.

그러나 탄광당위원회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제대군인들이 살게 될 35동의 살림집건설전투를 선포했다. 제대군인들을 기본력량으로 하는 건설돌격대를 뜻고 대장으로 리혁이라고 하는 사관장출신의 청년을 임명하였다.

일이 이쯤되자 제대군인들의 불만은 대단했다.

아버지를 찾아가 항의를 들이대는 축들도 있었다.

《지배인동지 지금 우리 제대군인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투원들보고 참호가 아니라 병실을 지으라고 하다니 이건 너무합니다.》

하지만 탄광당위원회 결정이라며 당결정을 흐지부지하려 하는가 하는 일군들의 말에 제대군인들은 꼼짝 못하고 제압당하였다. 일손을 잡으면서도

울퉁불퉁하는 그들에게 아버지는 년장자다운 아량과 리해가 담긴 너그러운 미소를 보내주었을뿐이었다.

살림집건설전투는 시작되었다.

기초파기가 끝나가던 어느날 아버지는 곡괭이를 메고 건설현장에 나타났다.

그런데 할일을 잊은듯 한켠에서 국사봉너머 먼 하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선 한 청년이 아버지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손에 들고있는 종이장이 바르르 떨고있었다.

그는 35명의 제대군인들보다 한달 늦게 탄광에 온 혁진이라는 제대군인이었다. 탄광과 린접해있는 X군이 고향인 그가 이곳에 제대배당을 풀게 된것은 나와 중학동창인 탄광교환수 국화때문이라고 소문이 나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여름 표창휴가기간을 탄광에서 보낼 때 그는 경험을 배운다면서 오랜 탄부출신인 국화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의 집을 자주 찾곤 했었다.

아버지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돌덩이같은 주먹을 툭 건드리고는 흠칫 놀라는 그에게 들고있는 종이장을 눈짓해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종이장을 내밀었다.

《실련당한 사람처럼 왜 그 모양이야? 국화가 싫대?》

편지는 국화가 쓴것이 아니라 그가 복무하던 부대에서 온것이였다. 아버지는 멋적게 웃어버리고는 중얼거리며 아래의 글줄들을 읽어내려갔다.

《...부소대장동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어린 문화오락기재들을 다루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때마다 저희들은 부소대장동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부소대장동지가 캐낸 석탄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그 전기로 우리가 문화오락기재들을 리용하고있으니 말입니다.

조국에 바쳐진 병사의 참된 삶이 어떻게 빛나야 하는가를 오늘까지도 가르쳐주고있는 부소대장동지의 실천적모범은 우리 소대원들의 자량으로 되고있으며 단숨에의 정신으로 명령관철에서 용맹과 위훈을 낳게 하는 힘으로 되고있습니다....

《에익!》

아버지가 편지를 채 읽기도 전에 청년이 울분을 터뜨렸다.

《보십시오, 지배인동지. 나의 전우들은 탄을 캐내는 이 혁진이를 그려보고있습니다. 여기 살림집건설장이 아니라 막장안에서 석수를 맞으며 착암기를 돌리는 탄부로 말입니다. 지배인동지, 전우들앞에 몇몇할수 있게 저만이라두 줘...》

《안돼. 살림집건설은 뭐 아이들 놀음이라던가.》

아버지는 혁진을 꼭 눌러버리고는 편지장을 접어 그의 웃웃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땅에 내려놓았던 곡괭이를 다시 집어 들었다.

혁진의 원망어린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지배인동진 정말 너무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등마는등 아버지는 리혁에게로 다가가더니 녹기 시작한 땅을 까내기 시작했다. 둘은 서로 엇바꾸어가며 곡괭이질을 했다.

《리혁동무, 하나 묻지요. 저 친구들이 날 몹시 원망하는 눈친데... 맞지요?》

《자기들의 요구가 지배인동진때문에 관철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동무도 같은 생각이겠소?》

《글쎄 어떻게구 해알지. 사실 전 우리 제대군인들의 배짱을 제압한 지배인동진의 더 큰 배짱이 마음에 듭니다.》

웃음이 일었다. 리혁이가 휘두르는 곡괭이질에 흙바람들이 사방 뿜겨났다.

그는 남달리 신바람이 난것 같았다. 탄광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배인과 함께 일한다는 생각에서인지 아니면 이제 머지않아 행복의 보금자리가 마련되게 된다는 기쁨때문인지...

《너석들, 다른 생각 말구 빨리 이 집들에서 살게 될 처녀들이나 꺾차구 오래. 가만, 자네 봐둔 처녀 없으면 내 하나 소개해줄가. 저 친구들과는 달리 날 환영해준 값으로 말이야. 우리 탄광처녀들 곁아.》

《지배인동진 딸도 곱게 생겼습니까?》

《내 딸?!... 그럼. 현대 스물여덟이 되도록 아직 눈에 차하는 사내가 없다는걸 알라구.》

《전 제대군인입니다.》

그날 일이 한입두입건너 내 귀에까지 들려왔을 때 나는 웃어버리고말았다. 어이없는 룡으로 여겨졌던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리혁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듯했다. 리혁이가 주택건설을 책임진 중임을 맡았음에도 운수중대에서 복무했다는 경력을 알고는 그에게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간 운전사를 대신하여 탄광운수대의 화물자동차를 끌게 했다.

리혁은 차를 몰고다니며 건설에 필요한 물동량을 실어왔고 때로는 아버지와 함께 배판이나 탄차레루, 쇠바줄과 같은 탄광자재들을 실어오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여불없이 그에 대한 칭찬이었다. 책임성높고 일욕심 많으며 대바르다... 내앞

에서 하는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주위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자 생각에서 깨어나나는 행정청사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오늘 진행되는 탄광참모회의에 우리 기술과 성원들도 참가하게 된것이다. 살림집건설에 동원되었던 돌격대원들도 모두 참가하게 되었다는것을 보면 중요한 회의임이 틀림없다. 모름지기 제대군인탄부들의 살림집완공이 선포될것이고 그것은 서부갱복구를 위한 돌격대탄원모임으로 이어질것이다.

갑자기 뒤쪽이 환해지더니 차경적소리가 울렸다. 나는 얼른 길옆으로 물러섰다. 그런데 옆을 지나칠듯싶던 차가 스르시 벗어섰다.

차문이 열리더니 리혁이가 상반신을 불쑥 내밀었다. 그의 어깨너머로 혁진이가 보였다.

《회의에 가는 길이겠지요. 함께 가지 않겠소?》

리혁은 주춤거리는 나의 태도에서 무엇인가 읽은듯 했다.

《이거 미안하오. 총각의 친절성이 때로는 처녀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는걸 몰랐구만. 내친김에 하나 묻지요. 지배인동진이 회의뒤쪽에 이번 살림집건설의 완공을 선포하고 침수갱복구를 위한 돌격대를 조직한다던데 그게 사실이요?》

그러니 돌격대에 탄원하고싶어 그러누나!

하기는 달리는 될수 없는 이들인것이다. 그들은 탄광에 오자바람으로 탄을 캐낸것이 아니라 저들이 살게 될 살림집부터 지어야 했던 송구스러움과 웅색함을 이제 서부갱을 복구하는 전투마당에서 위훈과 혁신의 불길속에 깡그리 태워버릴것이다.

《글쎄 다들 그렇게 말하긴 하던데... 오늘 회의에서 침수갱복구문제가 토의될거라구 말이예요.》

리혁은 혁진을 뒤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이만 떠나자는듯 차문을 열어놓은채 발동을 걸었다.

나는 웃음속에 사양하며 차문을 닫아주었다.

## 2

《내가 늘 강조해오고있지만 우리 탄광에서 삼두마차로 불리우는 저 청년갱과 8갱, 12갱들을 보시오. 거기에 나가보면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이 정말 입을 딱 벌릴 지경입니다. 집집승우리들에는 돼지, 닭, 오리, 계사니들이 득실거리고 온실에서는 쑥갓, 부루, 오이들을 철앞서 수확하니 어찌 영양제식당의 식탁이 풍성해지지 않겠소. 자, 그러니 갱일이 안될리가 있소. 우리 다시한번 명심합시다.

탄부들의 생활이 기름져야 석탄생산이 높아진다는  
걸 말ियो.》

회의에서 긴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라 이  
번에도 얘기는 짧았다.

아버지는 잠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리  
혁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앉아있는쪽에 눈길을 박  
더니 그들에게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들이 원하고있는바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아버  
지였던것이다.

이윽해서 아버지의 저력있는 음성이 장내에 울  
렸다.

《동무들, 오늘 우리는 당이 부르는 석탄전선으  
로 탄원해온 35명 제대군인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  
을 일떠세웠습니다.》

요란한 박수갈채가 터졌다.

《그렇지만 살림집건설의 완공을 선포하기에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소.》

뒤를 잇는 아버지의 말에 장내는 순식간에 잠잠  
해졌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인상들이다.

이때 앞쪽에서 누군가 《지배인동지!》 하며 일  
어섰다. 혁진이였다.

《지배인동진 혹시 저때문에 그러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아무렴 덩치크  
고 인심좋은 이 탄광마을에 제품 하나 받아줄 집  
이 없겠습니까?》

35명의 제대군인들보다 뒤늦게 탄광에 온것으로  
해서 서부갱지구에 새로 일떠선 마을에는 그의 집  
이 없었다. 우에서 통과된 설계에 따라 이미 기초  
파기가 끝나가고있었고 더우기는 거기 어디에 결붙  
여 지을만 한 맞춤형 부지조차 없었던것이다.

나는 탄광에서 침수갱복구가 끝난 즉시로 그가  
쓰고살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하였다는것을 국화를  
통해 들은터였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요. 물론 35동의 살  
림집들은 훌륭히 건설되었지만 거기서 리용해야 할  
음료수가 걸렸습시다. 현재는 서부갱가까이에 있는  
수원지에서 보장받게 되어있는데 수질이 시원치 않  
습시다. 물맛이 짹짹하고 풀어지라고 물에 담그었  
던 미역도 되려 뻗뻗하게 살아나는 정도란 말ियो.  
그런데 저 국사봉너머 마을들에서는 산에서 흘러내  
리는 자연수를 음료수로 리용하고있는데 그 물맛이  
정한게 정말 팬찮습시다. 그래서 전 새 마을에 국  
사봉너머에서 흐르는 자연수를 음료수로 끌어오는  
공사를 진행하자는겁니다. 우리 제대군인돌격대력  
량으로 말ियो.》

《?!》

《?!》

온 장내가 아연해졌다. 살림집완공의 기쁨에 잠  
겼던 사람들이 일시에 아버지에게 의혹의 시선을  
던졌고 혁진과 나란히 앉아있던 리혁은 벌떡 상반  
신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나의 심정도 다름바 없었다. 아버지는 살림집완  
공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것을 암시하고있었다.  
그것은 결국 서부갱복구가 늦어진다는것을 의미하  
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탄광에서는 이번 건설로  
많은 시간을 놓쳤다.

탄부들의 생활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려는 아버지의 심정은 십분 리  
해된다. 하지만 탄광형편도 생각해야지 않올가. 침  
수갱복구가 늦어진면 뭉니뭉니해도 책임은 지배인  
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

《지배인동지!》

마침내 리혁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희들의  
생활을 그토록 관심해주시는 그 마음들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지만 지배인동지, 우리 제대군인들  
은 거기에 반답니다.

물론 국사봉너머의 물이 좋은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서부갱지구까지 끌어오려면 국사봉허  
리를 에도는데 드는 수천메터가량의 수도관이 있  
어야 하겠지요. 아니, 내가 말하자는건 자재문제  
만이 아닙니다. 이 지방 겨울날씨에 수도관이 동  
파나지 않게 하자면 적어도 한메터반정도의 깊이  
로 땅을 파제껴야 한다는데 저 국사봉은 모두가 알  
다싶이 온통 암반투성입니다. 이게 실리가 맞는 공  
사입니까?

한개 탄광을 개발하는 품과도 맞먹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포로 참새잡는 격 아니, 고래 한  
마리 잡겠다고 바다를 통채로 찌우는 격이란 말입  
니다. 지배인동지, 저희들에 대한 녀려를 더는 말  
아주십시오. 우리 제대군인들은 하루빨리 침수갱을  
살려 석탄을 캐내는게 소원입니다.》

사리정연한 리혁의 말에 회의참가자들은 수궁하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다음에는 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다. 너나  
없이 고대해온 침수갱복구를 위한 돌격대조직을 당  
장 선포하기를 바라며 지배인의 입만 바라보았다.

《역시 사관장출신의 제대군인이 다르구만. 그럼  
내 하나 물겠소. 인간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가 무엇이라고 보오?》

《물, 불, 쌀입니다.》

《그것 보시오. 동무도 첫번째로 꼽을만큼 물은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귀중한것  
ियो. 그런데도 이 지배인이 수질이 좋지 못한 음



료를 리용하리란걸 뻔히 알면서도 동무네들을 그냥 입사시켜야 옳겠소. 저 국사봉너머에 좋은 음료수가 있는데도 말이요.»

《지배인동지…》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시켰다.

《그만하구요. 회의를 결속합시다. 침수갱안에 차있던 물이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소. 기술파에서는 내가 이미 파업을 준대로 국사봉너머의 자연수를 음료수로 끌어오는 방도를 빨리 대책해야겠소. 내 두루 알아보니 저 국사봉밑에 오래전에 탄을 캐먹던 고갱이 있는데 그 방향이 서부갱쪽으로 나있을수 있다는거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얼마든지 서부갱지구의 새 살림집들에 필요한 음료수문제도 풀고 침수갱복구도 제기일에 시작할수 있소.》

아버지의 확신에 찬 어조는 리혁이를 안심시킨듯했다. 그가 몹시 흥분된 얼굴로 혁진이와 조용히 수군거리는 모양이 시야에 비껴들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났다. 한달전, 성에서 내려온 한 일군이 아버지를 만나 같이 우려하던 일이 떠올랐다.

《물론 제대군인탄부들의 살림집을 지어주는 건 일꾼으로서의 옳은 처사라고 보오. 난 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언제 어느때에 집을 지어주는가 하는거요. 살림집건설이야 성에서 관심하고있는 서부갱복구를 끝낸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소. 난 어쨌든 앞일이 근심되는구만.》

그때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나 그의 의견을 부정하는 태도였다.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인간의 의사대로만 흐른다면 얼마나 좋으랴. 만일 국사봉밑의 고갱이 서부갱쪽이 아닌 판방향으로 나있다면 그땐 랑패다. 침수갱복구가 늦어지는건 더 말할것 없고 아버지의 명예는 바람에 찢기위 땅바닥에서 날리는 녀마신세가 될것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호— 하고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가 끝났던것이다.

### 3

아버지는 밤이 깊어서야 집에 들어섰다.

《인제 오세요.》

혼자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애써 반색을 지으며 아버지에게서 웃웃을 받아들였다.

《낮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가 나를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다.

《그저 좀… 아버지, 그 갱이 정말 서부갱쪽으로 통했을까요? 난 어떤지…》

《들어가보지 않고 밖에서 백번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만일 서부갱쪽으로 나있지 않다면 그쪽으로 굴을 뚫어서라도 국사봉너머에서 흐르는 자연수를 끌어들어야 한다. 그건 그렇고 애야, 너 리혁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느닷없는 물음에 나는 일순 당황했다.

오늘일로 해서 뇌리속에 새겨진 리혁의 영상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탄광 참모성원들을 비롯해서 술한 회의참가자들이 있음에도 주눅들지 않고 지배인을 상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펴나가던 체대군인다운 성격… 론리정연한 사고력… 그보다도 석탄생산을 먼저 생각하며 거기에서 자기 존재를 찾으려는 그의 인간됨은 향기처럼 가슴속에 흘러들었다.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어도 그에게서는 벌써 탄부로서의 체취가 짙게 풍기고있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 깜짝 놀랐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을 가까이 한것처럼 얼굴이 핫핫 달아올랐다.

대답을 기다려 여직 나를 지켜본듯 아버지가 의미있는 웃음을 짓고있었다.

이때 다행스럽게도 전화종소리가 들렸다. 국화가련합기업소에서 아버지를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영서탄광 지배인 전화받습니다. 예, 서부갱 말이지요. 너무 걱정마십시오. 침수갱복구를 계획한대로 내밀겠습니다. 나는 우리 탄부들을 믿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아버지는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화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지배인동지, 저 국화입니다. 미연동무가 있으면 좀 바꿔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에게서 송수화기를 넘겨받았다.

《미연이니? 정양소앞에 있는 소공원으로 말이다. 지금 당장 나와줄수 없겠니. 아까 저녁근무를 나오다가 리혁동물 만났더랬는데 널 좀 만나게 해달라더구나. 침수갱복구를 제기일에 시작하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야. 그런데 음— 그 동물 만나거들랑 조심해. 불에 데지 않게 말이야. 사랑이란 불길은 분별을 모르거던. 호호…》

뜻밖이었다. 리혁의 처사에 일순 당황해나며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눈길이 갔다.

이쪽파는 아무 인연도 없는듯 아버지는 무릎우에 서부갱도면을 펼쳐놓고 거기에 사색을 묻고있었다.

그도 나를 만나자는 리유가 저 서부갱을 살리는 문제라고 했다. 그것은 탄광을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이 밤중에?! 더구나 아까 회의오는 길에 만났었던 그가 아닌가.

국화처럼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가봐 겁이 났다. 그런데도 나의 마음은 자꾸 집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있는 정양소쪽으로 쏠렸다.

(그 동문 내가 기술과에 있기때문에 만나자는거야. 그러니 가자.)

나는 이런 위안속에 다시 작업복차림으로 나서긴 하였으나 아버지결을 지날 때는 속이 호드득 떨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리혁은 나타나지 않았다. 거의 한시간을 기다렸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꼭 어떤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무슨 사연이 있으려니 하면서도 내자신이 어이없이 여겨졌다.

달빛도 유난스레 밝은 이밤, 소공원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서성거리는 나를 알게 모르게 본 사람들의 웃음가마리속에 들었을것은 불보듯 뻔했다. 래일이면 소문이 짜하니 날것이다. 지배인 딸 혹은 기술과처녀가 어떤 총각을 기다려 밤새 정양소앞 소공원을 지켰다고.

순간 온몸이 모닥불을 뒤집어쓴듯싶었다.

나는 어느새 집쪽으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부지런히 옮기는 구두발소리가 급하고 소란스럽게 밤의 정적을 깨고있었다.

#### 4

다음날 아침 나는 안개속을 뚫고 서부갱으로 달리고있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달음질을 멈출수 없었다. 이른새벽 아버지가 침수갱안으로 들어갔다는것이다.

《네 아버지가 서부갱으로 떠났다. 침수갱복구가 늦어지면 당앞에 결의한 탄생산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면서 갱안에 직접 들어가 모든걸 확인해야겠다 누나. 위험한줄 알면서도 난... 막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난 내게 사연을 얘기해주던 어머니의 눈빛은 근심에 싸여있었다.

물을 거의 다 퍼낸 지금 누구든 갱안에 들어가 갱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퍼내야 할 석탄죽과 버럭죽의 량이 얼마며 새로 들여야 할 동발이 어느만큼 필요한가를 알아야만 복구전투에서 계획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작전을 펼수 있는것이다.

몇년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어서 거기로 혼자 들어간 아버지가 도무지 마음놓이지 않는다.

허둥허둥 달음질하는 내앞에 그때 정말로 나를 놀래우는 일이 벌어졌다.

서부갱어구에 거의 다달았을무렵이었다. 갑자기 앞쪽에서 웬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니 희뿌연 안개가 뭉게뭉게 서려도는 길가로 누군가 쿵 하고 굴러떨어졌다.

화닥닥 놀라는 내앞에 신음소리를 내며 엉거주춤 일어서는 사람은 다름아닌 리혁이었다. 밧도와 어딘가 급하게 다녀오는 길인듯 땀배인 얼굴엔 피곤이 무겁게 실려있고 무엇에 걸쳐있는지 찢어진 바지가랭이가 너덜거렸다.

《차, 이런 덤벼치기는... 처녀앞에서 망신 잘한다.》

뒤따라 나타난 혁진이가 리혁의 몸을 부축이며 빈정댔다. 그러니 그들은 함께 어디에 갔다오는 모양이었다.

리혁은 나를 알아보자 대뜸 반색을 지었다.

《오늘은 정말 우릴 위해 마련된 날인것 같구만. 혁진이, 그렇지? 저 국사봉의 자연수를 끌어오는 문제를 기술과 동무들과 토론하려했는데 미연동무가 이렇게 척 나타나주었으니 말ियो...》

《그러니 동문 그 음료수때문에 밤패며 뛰어다니는가요?》

나는 저도 모르게 어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격해진 감정은 리성을 잃게 했다. 어제 밤 그가 소공원에 나오지 못한것도 침수갱복구문제때문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던 나였다. 그런데?!...

《모두가 서부갱을 살리겠다는 한생각밖에 모르고있어요. 동무가 음료수때문에 이렇게 헤매고있을 때 어떤분은 위험을 각오하고 저 침수갱에 들어가셨어요. 내 보기에는 동무의 그 귀중한 정열이 석탄생산이 아닌 다른데 바쳐지고있는것 같군요.》

《미연동무.》

혁진이가 소리쳐불렀으나 나는 그들을 등지고 돌아섰다.

몇발짝 걸음을 옮겼을 때 뒤쪽에서 무엇인가 틀렁 떨어졌다. 리혁의 손에 쥐여져있던 정태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갱입구에 이르렀을 때 마침 갱안에서 여러줄기의 불빛들이 어둠을 헤가르며 이쪽으로 다가오는것이 보였다.

잠시후 아버지가 기사장을 비롯한 두세명의 사람들과 갱밖으로 나왔다.

《동무들도 참, 이제 그만 떠드오. 다른 사람들이 알면 큰일이나 난줄 알겠소.

아니, 리혁동무가 어떻게 된거요? 맹산림지로 동발목을 실으러 아침에 떠나게 되어있지 않소. 동무도 내가 걱정스러웠나?》

아버지는 혼연스레 리혁에게 룡을 건넸다.

나는 내 뒤쪽에 따라선 리혁을 띠어보았다. 그러니 그가 침수갱복구에 쓰일 동발목을 실으러 가게 된 모양이다.

《전 지배인동지가 갯에 들어가신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전...》

《됐소, 됐소. 동무도 같은 소리구만.》

리혁의 말을 밀막아버리고난 아버지는 그를 등지고 돌아서 기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리혁이도 다 못한 말이 있는지 망설이다 돌아서 운수대쪽으로 향했다.

급하게 걸음을 다우치는 품이 몹시 덤비는것 같았다. 아버지에게서 당한 무시로 자존심이 상했던 탓인지 아니면 시간의 촉박감에서였는지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칠번 하고서도 열여섯힌 웃웃자락을 기폭처럼 날리며 언덕길을 달리는것이였다.

그의 뒤모습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사람의 생각이 어쩌면 밤낮 바뀌듯 달라질수 있을가. 그것도 하루밤새에...)

## 5

황황히 길을 떠난 리혁은 종내 일을 쳤다. 맹산에서 동발목을 싣고오다 차사고를 친것이였다. 저녁녘 동발을 실은 첫차가 도착했을 때 탄광지령실에서는 리혁의 행위를 로골적으로 비난했다. 삽시에 그의 사고경위는 온 탄광이 알게 되였다.

그는 닷새기한으로 네차분의 동발목을 실어오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그는 왜서인지 립지에 도착하자 그곳 작업성원들의 식량을 실으러 탄광에 가기로 된 예정을 훨씬 앞당기도록 책임자를 구슬려내서는 그 차편에 한차분의 동발을 실었다. 그리고 나머지 세차분은 정해진 적재량을 훨씬 초과해서 두차분으로 나누고 그중 한차분을 싣고 떠났다. 처음 차는 별일없이 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령에 올라 내리막길에 들어서자마자 차는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동발 두대를 이어 세운것을 기동삼아서 높다랗게 쌓았던 짐이 앞쪽으로 내리쏘리면서 차운전을 방해했다. 리혁은 급히 차를 제동시켰다고 한다. 다행히도 차는 얼마쯤 길우를 지치다가 벗어났다. 순간 적재함우에서 우직소리와 함께 동발목들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와당탕 툽툽! 첩빙! 첩빙!...

차에서 굴러내린 동발목들은 령밑으로 흐르는 강물속에 사정없이 떨어졌다.

아버지를 찾아 서부갱으로 향하는 나의 눈앞에서는 귀한 동발목들이 강물우에 등등 떠실려가는 광경이 선히 그려지고있었다.

탄광에서 동발은 생명이니 같다. 그래서 동발이자 곧 석탄이라고 하는것이다.

그런데 리혁은 탄부라면 누구나 제 살붙이처럼 아끼는 동발들을 수십대나 강에 떠내려보냈다. 침수갱복구로 굶는 탄부들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을 엿어주었다.

침수갱입구근처에 한차분의 동발목들이 부리워있고 옆에 리혁의 차가 서있었다. 그 차결에 아버지가 앉아있었다.

국사봉마루 어딘가를 응시하고있는 아버지의 기색은 몹시 어두웠다.

그렇수밖에! 아버지는 리혁이를 호되게 추궁했으리라.

나는 아버지결로 다가갔다. 발밑에 널린 담배꽁초들이 눈을 아프게 자극했다.

아버지가 이상스러웠다. 보다 큰 성과가 약속된 래일을 위해 절세없이 뛰어다니는 아버지여서 내게 인박혀진 그 모습은 언제나 사업의욕으로 충만되고 열정과 락판에 넘쳐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낯선 모습으로 비껴지는것은 웬 까닭일가.

퍼그나 훑어보이고 심한 자책속에 모대기는듯싶은 나의 아버지... 리혁의 실수가 침수갱복구에 지장을 준것은 사실이지만 그쯤한 일에 락심할 아버지가 아니다.

《미연아.》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너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 탄광사람들 말이다. 이 아버지에게 지배인자격이 있다고 믿고있을 상싶으냐?》

의혹이 더욱 커진다. 일꾼으로서의 아버지의 능력은 탄광뿐아니라 성에서까지 인정하고있다.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자신에 대한 객관의 평가를 다시 확인받고저 하는것은?...

아버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대답하였다.

《아니,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멀었구말구.》

《리혁동무때문에 너무 속쓰지 마세요. 그도 이번 일에서 교훈을 찾았을거예요.》

《교훈?... 그랬을테지. 하지만 이번 일로 더 큰 교훈을 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이 지배인이

란 말이다. 그렇다. 리혁이가 동발목들을 강물에  
떠내려보낸 건 결국 나 때문이었다. 그의 실수이기  
전에 나의 과오였어. 내가 구실을 제대로 못한 탓  
에... 우리 탄부들에게 부모다운 진정을 바치지 못  
한 탓에...》

《?!...》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캐낸 기름진 석탄이  
순식간에 버럭더미로 변했다 해도 이처럼 놀랍고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온 탄광이 리혁이를 경  
원시하며 책임문제를 운운하고있다. 그런데 아버  
진?...

《아니, 아버지!》

당혹한 나의 말마디를 자르며 먼곳에서처럼 아버  
지의 자책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야, 난 혼자 있고싶구나.》

아버지는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국화가 나를 찾아왔다.

《미연아, 리혁동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니? 혁  
진동무랑 왜 보이지 않을까.》

《?!》

어이없었다. 국화가 리혁의 행처를 내게서 알수  
있다고 여기다니...

그는 나를 얼핏 보고나서 호 하고 한숨을 내쉬  
었다.

《미연아, 난 네가 리혁동무를 어떤 눈으로 보는  
줄 알아. 하지만 넌 그 동무의 진심을 너무도 모  
르고있어.》

《내게 무슨 말을 하자는거냐? 넌 누구를 두둔  
하는거야.》

나는 격해서 부르짖었다. 속에서 리혁에 대한 원  
망이 가마속의 엿물처럼 끓어번지였다.

국화는 한참이나 말없이 서있다가 다시 말을 이  
었다.

《나도 혁진동무를 통해 알게 되었다만 어제 밤  
리혁동무가 너를 갑자기 만나자고 했던 건 국사봉밑  
에 오래전 탄을 캐내던 고갱이 있다는 걸 알았기때  
문이었어. 침수갱복구를 하루빨리 시작하기 위해  
는 새 살림집마을의 음료수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  
다는 걸 알고있는 그 동무들에게 고갱소리는 그야말  
로 반갑기 그지없는 희소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  
희 기술과에 그때의 갱도면이 보관되어있지 않을  
가 해서 너를 만나러 가던 리혁동무 누군가에게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갱에 대해 알수 있다는 걸 알  
았다. ...》

...혈색거리며 국화의 집에 들어선 리혁이었다.  
그러나 로인의 말은 그를 실망케 했다.

《거기 들어갈뻔은 아예 말게. 하두 갈래가 많

아서 자칫하면 땅속귀신이 되고말아. 오죽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막자구 맞구멍난 두 갱  
구를 막아버렸겠나. 안돼, 난 그곳을 대줄수 없  
어.》

청년의 젊음과 겁모르는 혈기를 녹잡히려는 로인  
의 고마운 마음이였다.

하지만 리혁은 더욱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건 단순히 몇십세대의 살림집들  
에 필요한 음료수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  
인님도 우리 탄광에서 석탄이 팡팡 쏟아져나오기  
를 바라시지요. 기름진 석탄이 수백만톤이나 묻혀  
있는 줄 뵈히 알면서도 몇년째 한그람도 캐내지 못  
하고있는 저 서부갱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원하시  
지요. 사실 저는 이 시간에 기술과의 한 동무를 만  
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그 동무에게서 원망을 살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렇지만 내가 국사봉의 샘줄기를 빠른 시일안에 끝  
어둠길 방도를 찾아냈다는 걸 알면 그 동무도 기뻐  
할겁니다. 석탄산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탄광처너  
니까요.》

로인은 끝내 리혁이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리  
혁이가 안전대책이 없이 혼자 고갱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약속을 그려주었다.

그런데 그가 희색이 만면해서 떠나자 로인은 점  
차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덤벼치며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리혁의 거동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밤새 뜬눈으로 잠자리에서 뒤치락대던 로인은 교  
환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 손녀를 무작정 되  
돌려세우고는 함께 국사봉으로 올라왔다.

아니나다를가 크고작은 바늘잎나무들이 무성하고  
이곳저곳에 널린 풍화된 버럭더미들에 잠판목들이  
뿌리내린 골짜기의 비탈면에 사람 하나가 들어갈만  
큼 구멍이 평하니 뚫려있었다. 리혁의 소행은 로  
인을 번쩍 정신들게 했다. 그가 손녀의 도움을 받  
아가며 뚫린 갱구를 들여다보고있을 때 기술과장과  
다른 한사람이 거기로 올라왔다. 그들이 국사봉에  
오르게 된 사연을 알자 로인은 대뜸 담벽처럼 앞을  
막아나섰다. 리혁의 일로 놀랜 로인을 그들이 설복  
해낼리 만무하였다.

그들이 로인과 함께 지배인을 만나러 갔을 때에  
는 리혁이가 이미 땡산림지로 떠난 뒤였다. ...

몸이 휘청했다. 현훈증이 이는 속에 오늘 이른  
아침 길가로 굴러내리던 리혁의 모습이 눈앞에 안  
겨들었다. 눈에 피발이 서가지고도 만족한 웃음속  
에 나를 마주보던 그... 그러니 그는 아버지가 침수  
갱에 뛰어들어 그 시각 혁진동무와 함께 갈래를 알수



없는 고갱속을 헤매고있었구나. 아버지처럼 생명의 위험은 아랑곳 않고 갱속에 뛰어들었던 그를 내 이제 무슨 낯으로 대한단 말인가....

자책속에 가슴을 팡팡 두드리던 아버지의 심정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리혁은 고갱속에서 서부갱쪽으로 나있는 맞은편갱구까지의 굴길을 술한 갈래굴들에서 찾아내기가 조런치 않았을것이다. 결국 그는 끝을 보지 못한채 새날을 맞고 할수없이 밖으로 나와야 했다. 맹산림지로 떠나야 했던것이다. 성공의 문턱에 한발을 들여놓은채 떠나야 했던 그의 심신이 어찌 달지 않았으랴. 결국 그의 조바심은 고갱속에 다시 들어갈 시간을 얻기 위해 엉뚱하면서도 모험적인 결심을 굳혔으리라. 아버지는 국화의 할아버지에게서 전후사연을 듣게 되었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음료수일로 고갱속에서 교박함을 밝힌 그를 맹산으로 떠밀어보낸데 대해 후회했을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리혁이가 사고를 저지른것이다!

자식이라면 누구나 아버지를 존경하는 법이다. 하지만 존경의 기초는 상대적으로 다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은 공적에서,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받는 신뢰의 높이에서, 그가 차지하고있는 사회적직무에서... 나의 경우 아버지를 자랑으로 여겼던것은 능력있고 일욕심많은 지배인이라는 성의 평가와 함께 탄부들의 운택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온것으로 해서 탄광마을사람들이 품고있는 신뢰의 감정이였다.

아버지와 그리고 드문히 집을 찾곤 하는 아버지의 친구되는분들을 대하면서 나는 그들의 두어깨에는 결코 가볍다고 할수 없는 짐들이 각각 하나씩 지워져있다고 생각해왔다. 하나는 생산이였고 다른 하나는 생산자대중을 위한 생활보장문제였다.

일군이라면 웅당 결머져야 하는 두 짐, 벗길수도 벗어놓을수도 없는것인줄은 알면서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저하된 생산실적을 운운하면서 한쪽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기도 하는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몇년동안 준비해오던 침수갱 복구를 뒤로 미루고 제대군인들의 살림집건설부터 시작했고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음료수문제를 사활적인것으로 보고 대했으며 바로 그것때문에 리혁이가 저지른 사고까지도 자기의 파오로 받아들였다. 마치 철부지자식의 잘못을 스스로 결머지는 아버지처럼...

탄부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아버지의 진정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기쁨과 희망, 웃음을 가득가득 부어주는 마를줄 모르는 샘줄기로 될것이고 그것은 또한 탄광을 이끄는 힘의 원천으로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아버지가 고마왔고 더욱 존경이 갔다.

인간의 뜨거움에 매혹되고 그에 자기를 바치는것을 도리로 아는 사람들로 뭉쳐진 힘은 아무리 어려운 난관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법이거늘 아, 이런 따뜻한 대지우에서 맞고보내는 탄광의 날과 날들은 또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것이나.

국화는 말을 계속했다.

《넌 리혁동무가 자기에게 배정된 살림집을 혁진동무에게 양보한것도 모르고있지. 아니, 그건 사실이야. 리혁동문... 그 동문 바로 이런 사람이야.》

《!...》

지금의 이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내 속마음을 투시하듯 찬찬히 여겨보는 국화앞에 나는 더 마주서있을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고갱입구위치를 물었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던 국화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 6

고갱입구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만큼한 구멍이 평하니 뚫려있었다.

전지불에 가느다란 분홍빛피대실줄이 갱안으로 늘어져있는것이 보였다. 리혁이네가 굴길을 헛갈릴가보아 갱입구에서부터 그것을 늘어놓으면서 전진하는것 같았다.

나는 피대실줄을 따라 전지불을 비쳐가며 굴안으로 들어갔다.

한동안의 신고끝에 저만치 앞쪽에서 불빛이 번뜩이는것이 보였다.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에서 인기척을 느낀 모양이다.

《거기 누가 왔소?》

리혁의 목소리!

무슨 말로든 나의 존재를 알려야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목이 짝 메여오르며 도무지 입을 열수가 없다. 대신 그를 향해 다시 기여갔다.

《동무가?》

리혁은 몹시 놀라와했으나 나는 그를 마주볼 엄두조차 낼수 없었다. 그를 외면하며 그냥 앞으로 전진하려 했다. 혁진이가 텐겁하며 나를 붙잡았다.

《어찌자는거요? 여진...》

《위험하다는거겠지요? 하지만 날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더 만류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나를 되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깨달은것이다.



대신 그들은 나를 뒤로 밀어냈다.

처음 얼마동안은 굴길을 기어가기가 험했다. 그러나 굴이 깊어지면서 굴천정이 무너져내린 곳이 여러군데나 있었다.

작업도구라고는 정대 돌뿐이어서 통로를 열기에는 퍼그나 힘에 부쳤다.

우리는 굴천정을 자주 살피가며 무너져내린 돌들을 하나하나 들어냈다. 긴장속에 힘겨운 한초한초가 흐르고있었다.

나는 처음 얼마동안은 몰랐으나 두번째 봉락구역을 헤쳐낼 때부터 이상한것을 감촉했다. 리혁이가 정대로 뚱기쳐서 넘겨주는 돌들을 한쪽구석에 옮겨 쌓으면서 보니 크고작은 그 돌들에 빨간 자국들이 점점이 찍혀져있는것이 아닌가.

참 이상도 하네. 장갑끼 손으로 그 자국을 쓸어 보았다. 순간 손가락끝이 몹시 아파나더니 거기에 또 다른 빨간 자국이 생겨났다. 나는 그제서야 리혁이도 나도 장갑이 다 닳아빠져 상한 손가락끝에서 피가 내배고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 리혁의 어깨에 걸린 통구리에서는 피대실줄이 그냥 풀려나갔다.

굴길은 거의나 수평상태였다. 서부깡쪽으로 나있는 갱구까지 이런 조건이 유지된다면 그 반대천입구쪽의 보다 높은 위치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를 얼마든지 갱안으로 끌어들이수 있다. 결국 국사봉 밑으로 관통되어있는 고갱길이만큼의 수도관만 해결하면 서부깡지구의 새 마을에 음료수를 끌어들이는 일은 다 풀린것이나 같다.

희망의 불꽃은 차츰 나른해지는 몸을 앞으로 떠밀었다. 하지만 리혁이네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엮친데엮친 격으로 전지불마져 회미해지더니 이내 주위는 어둠속에 잠기고말았다. 주머니를 더듬어 예비로 가지고온 다른 전지를 찾았으나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것이 없었다. 굴길 어디선가 흘린것이 분명했다.

돌연 리혁이가 나를 찾았다.

《미연동무!—》

그가 되돌아서서것 같았다. 안전등빛이 갱벽에 기대인 나를 겨누고 분주히 엇가른다.

바로 이때였다. 와르르 굴천정이 무너져내리는 소리와 함께 리혁과 혁진의 다급한 웨침이 동시에 터졌다.

《리혁이!》

《혁진이!》

굴속은 잠시 고요한 정적속에 묻혀버렸다. 나는 잔뜩 겁에 질려 소리쳤다.

《리혁동무! 혁진동무! 무슨 일이에요?》

《가만 거기에 있소. 굴이 무너지면서 혁진이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소. 그런데 젠장, 안전등이 꺼여졌소. 내가 그만...》

리혁은 나와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로 한쪽팔을 허우적이었다.

그에게서 기름내, 땀내 섞인 체취가 물씬 풍겼으나 내뻗친 손은 그냥 허공만을 휘저을뿐이었다. 리혁이가 감히 다가올념을 못하고있는것이다.

《어디 다쳤소?》

《괜찮아요. 기운이 진했을뿐이에요. 그런데 동문?...》

《난 일없소. 일두 참. 국사봉에 깔려 오도가도 못하겠군.》

《겹이 나는 모양이군요. 걱정말아요. 우린 나가게 될테니까요.》

리혁이가 소리없이 웃는것 같았다.

《미연동무, 어제 밤엔 정말 안됐소. 내쪽에서 먼저 만나자구 해놓구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말ियो. 국화동무가 막 야단하더군. 동무가 날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말ियो.》

(도대체 용서는 누가 받는다는거예요. 그건 국화가 꾸며낸 말이에요.

하지만 동무가 다시 날 불러준다면 그땐... 그땐...)

《하지만 난 믿고싶었소. 동무도 젊음으로 비약하는 이 나라의 새 세대 청년이 아니겠소.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말ियो.

평범한 가을날의 아침 그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동안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려놓았다는데 미리 와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생산공정을 꾸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종업원들의 생활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생산문제를 론의할 가치가 없다고 준절하게 말씀하시였다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책임지고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겠다고, 방직공장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소.

우리 원수님은 바로 이런분이시오. 생산의 중요성이나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수익성보다도 그 담당자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활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사랑의 최고화신이시오.

미연동무, 이 이야기를 들려준분이 누구줄 아오?

# 잊지 못할 밤이여

박 명 출

10미터  
이제 10미터 막으면  
길길이 날뛰던 바다의 먹살을 움켜쥐고  
6호제방막이 끝나는  
긴장한 전투를 앞에 둔 이밤

해풍에 탄 거무스름한 얼굴  
둘러앉은 당원들의 엄숙한 눈빛  
현장사무실에선  
한 청년돌격대원에 대한  
조선로동당화선입당식의

지붕우에 나뭇기던 붉은기도  
잠시 나래를 접고 지켜보는듯  
철썩철썩  
장석을 때리는 파도소리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는듯

그의 화선입당을 보증해 높이 쳐든  
굴착기팔같은 저 손들  
나이지숙한 직장장아바이는  
80년대속도창조의 나날에  
위훈떨쳐 당원의 영예를 지니었던  
그날을 그려보는것이리

《마식령속도》창조의 선구자 제대병사  
굴착기운전공동무는  
스키장건설장에서  
당원의 영예를 떨치던 그날을 되새겨보는것이리

꿈에조차 지니고싶었던  
당원의 영예를 안고  
평범한 나날에 평범치 않게 살아온  
당원들처럼 살기를 바라며  
바라보는 눈빛 저렇듯 엄숙한것이리  
높이 든 손 가볍지 않은것이리

이제 당세포총회가 끝나면  
자리차고 대자연과의 치열한 결전장  
간석지제방으로 달려가  
그대의 화선입당을 보증한 당원들과 함께  
6호제방 10미터를 단숨에 막으려니

아, 영원히 변심모를 충정으로  
우리 당을 받드는 또 하나의 결사옹위성돌이  
자리잡는 이밤  
잊지 못할 이밤에  
조국의 대지엔 새땅이 태어나고  
우리 당엔 또 한명의 당원이 태어나고있어라

바로 지배인동지요. 그날 회의를 끝내고 지배인동  
지를 만났을 때 이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난  
우리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일군들의 풍모에  
가슴이 뭉클했소. 아, 난 정말 좋은 사람들속에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요.»

나는 리혁이쪽을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았  
다. 비록 어둡숙이었지만 그와 함께 아버지의 모습  
이 선명하게 눈앞에 안겨오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간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  
들고저 온넛을 깡그리 바쳐가는 열정넘친 그 모습  
이...

이런 훌륭한 청년의 진심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못마땅히 여겨왔으니 내 일생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번 하였던가.

나야말로 한길 사람속도 들여다볼줄 모르는 청맹  
파니, 맹꽂이였어.

이 시각 나는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다. 침묵으  
로 이 순간을 감수하기에는 내 심장의 박동이 너  
무도 컸다.

하지만 나는 이때조차 말을 뱉수 없었다. 갑자기  
혁진이가 있는 막허버린 통로 저쪽에서 여러 사람  
의 귀익은 목소리가 울려퍼진것이다.

《리혁동무!—》

《미연동무!—》

《애들아!—》

아버지였다! 기술과장과 국화의 할아버지였다!

그들은 서부갱쪽에 나있는 고갱구를 열고 막힌  
통로를 헤치며 우리를 향해 마주오고있었다.

# 두걸 화전기

리 빈

(전호에서 계속)

정세가 이러했던만큼 화전놀이마당에 나타난 림제를 보고 량반들이 반가와할리가 없는것이였다.

이것은 그들과 림제사이 어느 모퉁이에서든 불화가 터질수 있는 반목의 전제였다. 까닭에 이를 두고 백경의 마음 편할리 없었다.

림제는 누가 보거나말거나 아랑곳없이 버선을 마구 벗어 활활 집어던지고 빨래줄의 새무리인양 시내가에 빼곡이 들어앉은 량반들사이에 끼여들었다.

여기저기에서 《...물에 잠긴 발만이 아니라 온몸이 다 씨원하군!》, 《정신이 펄쩍 든다!》, 《십년체증이 푹 떨어지겠는걸, 허허!》, 《아따, 체증뿐인가. 온몸의 만병이 이 탁족시내물덕에 말짱 씻겨내려가지!》, 《탁족에 화전, 이 좋은 풍속을 마련한 우리네 조상님들 고맙고 고마울시고!》 하는 찬탄들이 연방 튀어나왔다.

림제가 날아갈듯 상쾌한 기분으로 《화전놀이 봄명절에 이같은 탁족이 없다면 싱겁기 짝이 없지. 과연 탁족이 화전의 진미를 낭거니!》라고 시라도 읊조리듯 감동을 터놓으니 옆에 앉은 량반자 하나가 얼른 그의 말을 받아서 《그 말씀 명답이요. 발이야 집에서도 늘 씻거늘 이와는 판다르지 않소. 발을 씻으니 자연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게 이런 때 먹는 화전이야말로 전부 살이 되고 피가 되지요!》하고 기꺼이 맞장구를 쳤다. 림제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였다.

《그 말씀 참으로 명답이요. 나는 화전놀이에 앞서 이렇듯 시내물에 발을 잠글적마다 깊이 생각되느니 화전놀이시절의 시내물은 진달래물이 들어 약효가 특출한줄 우리 조상들이 벌써 알고 화전놀이에 발씻기 한공정을 결들인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요.》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과연 바로본말이라고, 조상덕이 아니고서야 우리 어찌 이런 락을 볼수 있겠는가고 공감을 표시하였는데 거기에는 진심이 어려있었다. 잠시후 화제가 다른데로 옮겨질즈음 이미 림제와 풋낫이나 익히였던 선비 하나가 그를 돌아보며 《백호선생, 이런 때 시 한수 짓지 않겠소?》하고 물었다.

《이 화창한 봄날 즐거운 명절에 시 한수 남기지

못하면 그제 무슨 선비겠소. 조금 기다리오. 한창 가슴속에 시상이 무르익고있으니까. 그런데 글뿐이겠소. 춤도 춰야지!》

림제는 그의 말을 흔연히 받아들이며 당장이라도 활개를 벌릴듯 벌떡 일어나 부진부진 물가운데로 들어갔다. 아니, 정말 물 한복판에서 춤을? 저 백호선생 파격선비라더니... 하는 뜻의 놀라운 눈길들이 그에게로 모아졌다. 군수 강사문이도 그가운데 하나였다. 림제는 이런 분위기는 아랑곳없이 선길로 경충경충 물을 건너 농부들을 찾아갔다.

백경이 황급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림제는 사족(량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농부들을 천하게 대하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하여 어디서나 서민들과 허물없이 트고지내는 사이였다.

림제가 술판에서든 장기오락판에서든 서민들과 한창 어울려돌아갈적에 보면 그의 신분을 가려낼수가 없었다.

농군들편에서는 녀인들과 조무래기들이 사나이들과 한데 어울려 흥성거리고있었다. 발을 먼저 씻고 난 사나이들은 짚신을 다시 신을 생각을 하지 않고 시뻘건 맨발채로 시내가에 몽글몽글한 돌을 고여 번철을 거느라 부산을 피웠다. 그가운데는 밀이 벌떡한 큰 솔도 있고 화전에 흔히 쓰이는 세발달이솔도 섞여있었다. 한편에는 갖가지 명절음식들이 차곡차곡 담긴 광주리들이 흰 무명보자기를 쓰고 싸전의 쌀자루들마냥 줄지어놓였는데 마치 대우라도 낸듯 반질거리는 막걸리오지방구리며 두루미처럼 목이 쭉 빠진 청주병들도 드문드문 보였다.

팔소매끝을 살짝 걷어올린 녀인들이 무엇이 그리 좋은지 끊임없이 웃고 떠들며 흰밀가루버치를 하나씩 앞에 놓고 줄끔줄끔 물을 친다, 진달래꽃잎을 버무린다, 번철이나 솔밑에 삭정이를 쑤셔넣는다 하며 가뜩이나 잔 손을 드바빠 놀렸다.

울긋불긋 곱게 차려입은 처녀들이 청아한 《화수가》와 더불어 총각들을 따라 산기슭의 여기저기를 부리나케 쏘다니며 싱싱하게 활짝 핀 진달래가지들을 꺾어 아름아름 날라왔다. 부녀들과 애들이 그것을 받아 밀가루반죽버치에 뜯어넣기도 하고 따로따로 채반우에다 모아놓기도 하였다.

림제는 이들의 활기넘치는 움직임을 정신없이 바라보며 이 생활 한복판으로 뛰어들고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눌렀다.

드디어 번철이며 술밑마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림제는 부드러운 봄바람에 실려 사방으로 퍼지는 연기냄새가 어릴적 밥짓는 어머니결에서 아궁이의 내내를 맡을 때처럼 흐뭇이 느껴졌다. 어쩐지 눈곱이 시큰하였다. 그가 남들에게 눈물을 보이게 될가보아 저어되어 고개를 돌리니 눈길이 멎은 곳이 개울 건너편이었다. 거기서는 량반들이 지적을 깔고앉아 담소를 하거나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를 듣고있는 모습이 다름뿐 화전을 부치기 위한 하인하녀들의 움직임은 농군들과 같았다. 잠시 후 그곳에서 동당동당 장고소리가 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기녀들이 출판을 벌려놓자 농부들은 이에 질세라 가만있지 않았다. 기운차게 새담을 울리고 북을 쳤다. 간간이 쟁매기가 끼어들면서 흥을 부쩍 돋구었다. 그가운데 성미 급한축들은 참지 못해 어느사이 한잔 기울였던지 얼굴이 불긋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서 빨리 지저내오. 저쪽한테 우리가 지겠소!》, 《꽃지짐을 기다리다 목젓 정배 보내겠다!》 하고 큰소리로 너인들을 다그쳤다.

그 독축을 사람보다 먼저 그릇들이 받아들였던지 번철과 술밑마다에서 참기름이 바질바질 끓으며 고소한 냄새를 사방으로 내뿜었다.

그 냄새가 참말 목젓이 떨어쳐나갈 지경으로 기막혀서 모두 저도 모르는 사이 닭알침을 꿀꺽꿀꺽 삼켰다. 집에서 챙겨온 안주로 한잔 술을 들이킨 사나이들은 몇이 안되었지만 그들과 한본새로 흥이 나서 돌아치는 농부들모두의 얼굴색도 마치 반감에 얼근한듯 불그레 물이 들었다. 흥에 겨운 림제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어허! 이것 바라. 술단지들은 아직 아구리가 봉한채로 있는데 몽땅 얼굴이 불카하니 웬놈의 감투끈인고?》

백경을 만나러 평산에 드문히 들리는 사이 사견적이 있는 농부들은 그가 틀이 없는 패남아인줄 아는 까닭에 기꺼이 응수해나섰다.

《붉은 진달래꽃빛에 물든때문이지요.》

《봄별에 취했소이다.》

《기분에도 취하구요. 무엇에 취했든 취한 얼굴 어찌 붉지 않으리까.》

그들의 진실한 대답에 림제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듣고보니 정말 그렇소. 진달래빛에 물들었소, 봄별에, 기분에 취했소.… 옳은 말이요. 화창한 봄날, 명절의 오늘을 아주 실감있게 나타낸 명담이란 말이요. 헌데 저 량반님네들이 이런 진미를 알 수 있을까?》

어수룩하게 생긴 사나이 하나가 그런 말을 기다리고라도 있었던듯 얼른 대꾸해나섰다.

《안되지요. 어림없지요. 진달래야 흙속에서 나는 꽃이요. 그래서 화전에선 흙냄새가 풍기는 법이라 오늘의 진미를 흙으로 빚어진 우리 농부만큼 아

는이 누구겠소이까. 오늘의 주인이야말로 우리들밖에 더는 없지요!》

자못 금지높이 울리는 그의 신심이 넘치는 장단에 농부들모두가 손뼉을 치면서 세상에 명담이 하나 있다면 오직 그 말이라고 지지해나섰다.

림제는 흡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흙냄새를 진달래와 관련시켜 자랑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 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니!) 하고 내심 감동을 금치 못했다.

다른 삭정이불이 피어오르는 밀퍼진 세발술들과 번철들마다 마주앉은 너인들이 진달래꽃을 버무린 훌훌한 밀가루반죽을 국자로 떠서 청유(참기름)가 재글재글 끓고있는 번철우에 점점이 떠놓았다.

칙! 치-칙!

고소한 기름냄새가 진달래향기와 어울려 허공에 퍼지자 주련이 놓인 여러 번철들의 돌레에서 요란한 손뼉소리와 함께 《히야!》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한것은 화전-꽃지짐이란 번철에서 델듯이 따끈따끈한것을 곧추 입으로 집어다넣어야만 제맛인것으로 하여 벌써부터 많은 사나이들이 꺼룩한 군침부터 앞세우며 번철들의 돌레에 대어섯씩 둘러앉아있었기때문이었다. 식어서 차가워진 화전은 벌써 화전이 아니기에 불김으로 뜨겁게 달구어 익힌 음식이라는 의미로서도 화전이라 일컫는것이다.

어떤 아낙네들은 꽃잎을 먼저 번철에 놓고 그우에 반죽을 덮은 뒤 또 그우에 꽃잎을 얹어서 뒤집는 방법으로 화전을 지저냈다. 이때의 화전은 앞뒤 판에 꽃잎사귀가 착 붙어있는것이 우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보기 좋은 음식 역시 맛도 좋기마련이다. 농군들은 제집에서 싸온 음식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것부터 넉넉넉 집어삼키며 좋아라 떠들었다. 그저 입을 우물거리고 씹는 흥내만 널빤 장닭이 콩알을 통채로 채듯 화전 한잎을 한입에 꿀떡 넘기곤 하는 농군들을 보고 한 너인이 《아주버니, 좀 참아요. 그렇게 익지도 않은걸 잡수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밋지 않게 가벼이 탓하는 소리에 그 대답 질작이었다.

《아주머니, 그러지 말구 내 사정 좀 봐주슈. 모두가 복숭아씨같은 큰 눈들을 휘굴리며 화전을 도독질해가듯 훌쩍훌쩍 채가는판에 언제 다 익기를 기다리며 한가스레 씹는단 말이요. 도대체 익은걸 먹으려다간 구경두 못하겠쎄다, 구경두요. 까짓것, 절만나마 설어도두 뜨끈한 배속에 들어가면 다 익구두 남올테니 걱정올랑 마슈, 어-험!》

누군가 급히 발을 달았다.

《보아하니 자네 콩밭에다 서슬치겠어.… 아주머니, 그 반죽버치 치마밑에 쓸어넣소. 번철에 익힐새없이 급한 저 사람 성차지 않으면 생반죽버칠 통채로 들이킬테니까. 그렇게만 되는 날엔 우리모두가 손가락이나 빨다가 눈이 쾅해서 돌아가야 할 게거든!》



와하하!

좋은 날이었다.

백경이 한 아낙네에게 슬그머니 일렀다.

《한접시 얼른 담아 선생께 올리라구. 눈치가 영  
곱발바닥이로군, 쫄쫄! 점잖은 선생께서 어찌 번철  
에 마주앉는단 말인가.》

녀인이 부랴부랴 화전접시를 소반에 놓아 가져가  
자 림제가 마치 달려드는 따벌이라도 털어버리는듯  
급히 손을 내흔들며 마다하였다.

《고맙네만 아스라구. 내가 남이 받쳐주는거나  
먹을바에야 집에서 먹지 예까지는 왜 왔을고!》

이러면서 천연스레 농부들트에 비집고 들어가앉  
는 그를 보고 백경이 난색을 지었다.

《저, 저... 너무하구만. 좀 삼가하지 않구, 쫄  
쫄!》

백경은 못마땅히 허를 차기는 하면서도 제가 받  
았던 저가락을 그앞으로 내어밀었다. 림제는 그것  
도 물린 다음 번철밑에 타들어가는 싸리가치 하나  
를 집어들어가치고 허리를 똑 꺾어서 저가락 한쌍  
을 만들었다.

《이래야 제격이요. 산에서야 산맛을 봐야지.》

들깨잎만 한 화전 한점을 입에 훌쩍 집어넣던 림  
제가 별안간 《아!》하고 가벼운 비명을 터쳤다.

모두의 눈이 둥그레졌다. 백경이 다급히 물  
었다.

《결렸습니까?... 댔습니까? 이런 변이라구야.》

백경은 무슨 변이라도 만난듯 안절부절 못했다.

사실은 입안이 데는듯이 뜨거워 어망결에 내  
친 소리였으나 꽤나 림제는 손을 뉘뉘 내저으며  
《무슨 소릴? 꽃지짐을 따라 허가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기에 그만 급해서... 화전맛이 그 아무리 기  
가 막혀도 하나밖에 없는 허야 남겨둬야지, 허  
허!》하고 그럴듯이 둘러쳤다. 백경이 흥겹게 받  
아넘겼다.

《백호선생이 이제 방금 당한 변처럼 허가 막 따  
라넘어갈만큼 우리네 화전이야 별맛중에 별맛이지  
요!》

늙수그레한 농부 한사람이 얼른 그의 뒤를 이었  
다. 그는 마치 말자루를 남에게 떼올가봐 겁을 내  
듯 서둘러 《이자 백경선생 말씀했듯 허를 끌고 넘  
어가는 보배음식이 화전인가 하면 우리 나라 수많  
은 민족음식이운데 목젖에도 기별할새 없이 그저  
훌쩍 넘어가는 음식이 오직 하나 있으니...》라고  
저 혼자만이 알고있는 비밀인듯 으시대며 기세 좋게  
엮어내리는 말을 화끈 단 번철에 반죽을 떠넣느라  
분주하던 녀인이 날래게 가로챘다.

《그것도 화전이지요!》

사방에서 환성이 터졌다.

《웁소!...》

《이런 화전 진미를 모르고서야 어찌 봄을 안다  
하리오.》

《봄뿐인가, 인생도 모르지!》

《하기야 풍속을 떠나 인생이란 있을수 없지.》

《...》

이렇듯 저저마다 기쁨을 터치는데 녀인에게 결말  
을 떼운 늙수그레한 농부 하나만이 쓰다달다 말 한  
마디 없이 그저 병병히 서있었다.

순박한, 그래서 친근한 농군들이 터놓는 진심에  
림제는 깊이 감동되었다.

《웁소. 천만번 지당하오! 현대 그렇듯 훌륭한  
게 어디 화전뿐이요. 옛적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  
어 후대에 물려준 풍속들이야 전부, 전부 다 훌륭  
하지!》

이보다 더 절절한 격찬의 말을 찾지 못해 안타까  
와하던 림제는 눈앞에 벌어지는 다른 광경에 더욱  
가슴이 달아올랐다.

림제의 곁에서 한 농군이 술잔을 들고 일어나 맞  
은편 번철로 다가가더니 그와 동갑또래쯤 되어보이  
는 사나이에겐 잔을 권하는 한편 다른 한손을 그  
의 어깨우에 얹고 가벼이 흔들며 《이보게 장서방,  
그사이 나를 많이 옥했지. 자네 딸혼사에 간언질  
을 했대구. 난 그때 나쁜 마음은 꼬물두 없이 그  
저 신랑권사람이 묻는 말에 사실을 털어놓느라 한  
마디 빠친것이 그만 동티가 나서 그탓에 파혼변이  
날번 했으니... 내 잘못했네. 정말이야, 내 오늘 자  
네에게 용서를 비네.》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죄  
를 하는것이였다.

《아니게아니라 그동안 썩어지라구 난 자넨 옥했  
어. 본의든 아니든 자네 내게 해를 끼쳤거든. 그런  
데 다른 때두 아닌 오늘 이 좋은 명절날에 화의를  
청하니 내 기꺼이 받아들여네. 좋은 날 자네의 그  
사죄의 말 한마디는 내 가슴의 옥구레미를 썩 녹여  
버렸어. 우리 오늘로써 지난날을 말끔 잊읍세!》

권하는 잔을 받아들고 이렇듯 솔직하게 대답을  
하며 화해술을 단숨에 쑥 내는 상대방의 모습에 감  
격했던지 사죄를 표시한 사나이는 그앞에 허리굽혀  
반절까지 하였다.

잇달아벌어진 다른 생활이 림제의 눈길을 끌  
었다.

번철들이 늘어선 저쪽끝에서 마을의 좌상로인이  
젊은이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림제앞에서 화전을  
부치고있는 녀인곁에 멈추어섰다. 녀인이 지짐칼을  
든채 바투 다가선 두사람을 의아쩍게 쳐다보자 좌  
상로인이 젊은이에게 일렀다.

《장모앞에 무릎을 꿇게!》

놀란 녀인이 한걸음 뒤로 물러앉는데 로인이 미  
소를 머금고 입을 열었다.

《이보라구 안골댁, 오늘같은 좋은 날에 좋은 일  
이 생겼으니 좋아하라고요.》

로인은 쭈그리고앉아서 엎드린 젊은이의 떡판처  
럼 편편한 잔등을 부드럽게 어루쓸며 계속하였다.

《안골댁, 임자네 이 사위녀석이란게 찍하면 제

처한데 주먹질을 해서 어른들의 속두 많이 썩이구 이웃간에 소란두 많이 피웠지. 내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길래 몇마디 타일렀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 그래서 회개시킬 마음에 녀석을 이렇게 제 장모한테 데리구온거네.》

젊은이가 절절히 다짐하였다.

《장모님, 장모님이라구 부르기조차 부끄러운데… 이 사위 다시는 못된짓을 하지 않을터이니 믿어주시시오. 내 성질이 워낙 고약해먹기두 한데다가 도깨비장물이 좀 들어가지만 하는 날엔 그놈이 요동을 쳐서 그만… 내 오늘부터 술을 끊구 반드시 떼떽한 사람구실을 하겠습니다. 그래 난 오늘 화전놀이에서 술같은건 뽕새두 말지 않았어요.》

로인이 자못 엄숙하게 얼른 그의 뒤를 이었다.

《장부일언중천금이라, 사나이 말 한마디 천금같이 무거운줄 반드시 잊지 말게.》

젊은이는 이렇듯 자기를 위해주는 로인이 고마웠던지 그를 공경스럽게 쳐다보며 《어르신님, 그 말씀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고 굳게 결의를 표시했다.

안골댁도 어찌나 감동이 컸던지 두눈에 눈물이 그렁하여 기꺼이 대답했다.

《내 사위가 내 사위지 어디 갈라구. 잘못이야 고치면 그만…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다구. 손벽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구. 거 뭐 유식한 말루 〈고장난명〉이라 하던가. 우리 딸년이 입이 지내 채서 툭툭 대답질을 하였을테니 사내 배심에 왜 주먹이 나가지 않았겠나. 계집들이란 너나없이 주둥아리덕에 얻어맞거니. 아무랬든 내 딸이 더는 주먹구경을 안하게 됐으니 그 아니 다행인가. 내 사위 도량이 커. 아무럼!》

녀인은 사위의 어깨를 대견스레 두드려주고나서 로인에게 《정말 고맙소이다. 우리 사위 바로 잡아 주신 그 은공 어찌 잊으리까.》하고 진정의 사의를 표시하였다. 번철들마다에 등그렇게 둘러앉은 사람들은 서로서로 마주바라보며 이 좋은 날 이렇듯 좋은 일만 생기니 얼마나 좋은가고 마치 제 집 경사인양 기쁨에 겨워 떠들었다. 때를 같이하여 립제와 두어번 장기판을 마주한적이 있는 고을의 유명한 의원이 모두의 눈길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움직임들을 나타냈다. 그는 못할짓이라도 저지른듯 한 켠 구석에 수궁이 앉아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별떡 일어나서 누구든 다 제 말을 들으라는듯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으며 마치 부처앞에서 뽕불이라도 외우듯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서민사족할것없이 우리 평산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은 병을 고쳐준다 해서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이는 은인으로까지 보고있는데 사실로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यो. 의술을 재세로 약값을 제값이 지나게 받아먹는가 하면 아무런 밀천도 들지 않는 침 한대에도 한푼을… 한푼도 낼것이 없는 집에

는 외상을… 의술은 인술이거늘 내가 침대를 든 이래 늘 마음에 걸려왔지요. 내 죄가 큼니다. 내 돈벌이로 의원의 량심을 더럽히지 않고 오로지 인술로 의원노릇을 하면서 여러분들앞에 고개를 번쩍 쳐들고 살테요.》

목이 메는듯싶은 그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킨 모양 모두 일어서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벌써 만병이 푹 떨어집니다.》, 《인정이 첫째 약이라는 말은 선생같은분의 성품을 두고 나온 말이지요.》, 《선생님, 지내 자책을 마십시오. 선생이야 원래 부러 탓할바없는 인술의원이 아니었습니까!》라는 등의 사의를 아끼지 않으며 말로만은 부족했던지 그앞에 꾸벅꾸벅 절을 하였다.

립제는 목이 꼭 메이고 눈굽이 시큰하도록 가슴이 뜨거웠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얼마나 참다운 생활인가! 화창한 날씨도, 활짝 핀 진달래도, 감미로운 화전맛도 좋지만 이날에 즈음하여 사람들의 마음속 그들이 사라지고 따뜻한 정이 살아나는것이 더더욱 좋지 않는가! 화전놀이야말로 정녕코 우리 단군민족의 아름다운 풍속이로다. …

그러고보니 이상스럽게도 감동이 새롭지 않는가.

대대로 내려오는 풍속이어서 립제 자신이 해마다 화전놀이에 몸을 잠그곤 하여왔건만 오늘의 화전놀이는 어쩐지 처음보는 광경인듯 새삼스럽게도 가슴이 벅차오르니 과연 어인 일일까?

이 감정의 여파런듯 속에서 끓어오르는 흥분을 립제는 그대로 모두앞에 토해놓았다.

내 말을 좀 들어보라. 나에게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신선으로 보인다. 웬고하니 따끈따끈하고 쫄깃쫄깃하고 향긋향긋한 화전을 배부른줄 모르고 드립다 먹고 취하는줄 모르고 술을 마시고 피로한줄 모르고 춤을 추며 돌아가니 이 정도면 신선이지 신선이란게 별다른것이겠는가. …

한마디라도 빼놓을세라 주의깊이 귀담아들던 사람들은 두더지처럼 한뼘 땅만 두지느라 사람취급조차 받기 힘들던 우리 농군들이 오늘은 화전풍속덕, 백호선생덕에 신선이 다 되여본다며 못내 감격을 금치 못해 서로서로 나름대로 립제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립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소탈한 답례를 보내며 방금 자신이 열거한 꽃지짐밧의 세가지 향취와 그 맛에 혹하여 모르고 즐기는 세가지 흥취를 성구 형식을 빌어 《화전삼미삼당》이라고 화전놀이의 특징을 함축하여 내어놓으며 군중을 향해 《어떻소?》하고 기란없이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물을거나 있는가, 백호선생답게 아주 적중하고도 실감있는 표현이라고 반기면서 너도나도 다투듯 한마디씩 보태었다.

《서로서로 마음속 그들을 씻고 화목을 이룩하니

하나의 보배로다.》

《맑은물에 발을 씻고 한몸을 보호하니 이 아니 보배인가.》

《백호선생 함께 있어 좌석에 꽃이 피니 이 또한 보배시고.》

이때였다. 다른 누가 품고있는 제 생각을 알질려 먼저 꺼내놓기라도 할가보아 겁이라도 내는듯 백경이 서둘러 앞에 나서 여럿의 의견을 한데 모아 아귀짓듯 폭넓은 소리를 하였다.

《따끈하고 쫄깃하고 향긋해서 삼미요, 배부른 줄 모르고 취하는줄 모르고 지칠줄 몰라 삼망이라. 여기에 또 화목해져서 보배, 몸이 보호되어 보배, 백호선생 있어 보배이니 즉 삼보(三寶)라. 이 모든것은 즐거움을 근본으로 하거늘 세개씩 셋이니 〈화전구락〉이 분명하오, 화전구락!》

그의 열정적인 해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농군들은 화전구락, 화전구락하고 연송 외우며 그 말이 정말 신통하다고, 그런즉 화전놀이야말로 얼마나 좋은가고 찬양을 금치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저편으로부터 어떤 사람 하나가 시내를 건너 백경을 찾아왔다. 그는 슬그머니 백경의 옆구리를 찔러 몇걸음 피해가서는 훌끔훌끔 림제를 결눈질하며 몇마디 무어라고 수군거렸다. 불그레하게 물들었던 백경의 낮빛이 금시 해쓱해지는듯싶었다.

《그때 끝내 강군수가 불집을 일으킬 잡도린가. 때를 못 골라 하필 오늘 이런 마당에서?》

백경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울분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림제의 귀에까지 날아들었다. 했건만 그는 조금도 개의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백경이 집에서 가지고온 두견주(진달래꽃술)잔을 들고 《먹세그려, 먹세그려, 무진무진 먹세그려. 두견주에 화전 안주 아니 먹고 뭘 먹으리. 오늘에 배똥으면 평생의 한되리라.》하고 이미 세상에 나도는 누군가의 시조를 정황에 맞게 고치어서 흥얼흥얼 읊조렸다. 눈치가 말짱한 장고잡이가 그 운물에 맞춰 동당동당 운치를 돈구었다. 앉아서도 엉덩이를 들썩거리던 농부들이 마침 지나해진 참이라 림제의 흥타령에 똥기쳐지거라도 한듯 후닥닥후닥닥 일어나 《삼미삼망삼보구락, 이 아니 좋을소냐!》, 《진달래꽃 활짝 웃고 종다리 쌍쌍 날아드니 이내 마음 구름되어 천하를 오락가락!》, 《오늘 화전무진 먹고 백년무병 살고지고!》하고 법석 떠들며 대며 흥에 겨워 춤을 쳤다.

그러나 백경은 속이 한줌만 하여 안절부절을 못하고있었다. 개울건너편 랑반들의 놀이터로부터 방금전에 그를 찾아왔던 사람이 귀뜸해준 말에 의하면 랑반들이 지금 백호선생이 여기 나타난것은 무척 재수없는노릇이라고 하면서 무어라고 쑥덕거리는데 아무래도 눈치가 심상치 않다는것이였다. 그 사람은 필경 이것은 군수의 밀지에 따른 모의같다

고 제 짐작까지 덧붙였다.

(저 강사문이란 위인 끝끝내 백호선생을 걸어첼 십산인가. 트집이란 잡기마련이거늘... 가뜩이나 백호선생을 미워하던 그가 이번 저를 찾아간 백호선생앞에서 말문이 막혀 공공거렸다 하니 다른건 몰라도 그에 대한 앙갚음은 하려두수 있다.)

백경은 어쩌면 좋을지 몰라 안타까왔다. 피할 방도라던 술쩍 빠져버리는 길밖에 없는데. 그런 권고를 들으려 할 백호인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그가 달고 향기로운 꽃지 집을 맞도 모르고 우물우물 씹고있을 때였다.

아전 하나가 내물을 건너오더니 림제에게 《선생님, 지금 저쪽에선 시짓기가 한창입니다. 안전께서 선생님을 부르시오이다. 소인더러 선생님을 꼭 모시고 오라는 분부가 계셨소이다.》라고 하며 빨리 같이 가기를 독촉하였다.

흔연히 《오냐.》하는 대답과 함께 림제가 닝큼 일어섰다. 백경이 황급히 그의 팔소매를 잡았다.

림제가 안심시켰다.

《그대가 나를 붙잡는 까닭이야 내 어찌 모르겠소. 걱정해주어 고맙소. 하지만 마음놓소. 군수가 날 건드릴만 한 위인이 못될뿐더러 설사 그쪽으로부터 어떤 억지가 나에게 향해진다 하더라도 그런것에 손발이 묶일 백호가 아니니까.》

《뭘 개통이 무서워 피하겠소. 부딪치는 날에는 소리가 날밖에 없는데. 이 좋은 날 상서롭지 못한일이 벌어지면 선생의 체면이...》하고 백경은 근심을 놓지 못해 안이 달아하면서도 그의 뒤를 따라섰다.

강사문의 앞으로 다가간 림제가 《강공이 나같은 한개 파궤을 고을시회에 불러주어 고맙소.》하고 천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강사문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백호선생이 마침 우리 평산땅에 와계신데 선생을 내놓고야 무슨 시회를 운운하겠소. 나무람 마시고 부디 좋은 글귀를 내어 시골선비들의 눈을 좀 띄워주오.》

부탁은 자못 진지하였으며 꾸밈이란 전혀 엿볼수 없었다. 림제는 문득 의혹이 들었다.

(날이 좋으니 이 사람 마음까지 좋아졌나? 혹시 결발림이라면?...)

림제가 이렇듯 군수의 말뜻을 좋게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잠간 생각을 정리하는 사이 백경은 무슨 상서롭지 못한 징조를 감촉이라도 한듯 눈이 쫓쫓하여 두사람을 줄곧 지켜보았다. 한창 시상을 고르거나 뭔가 쓰느라 끙끙 갇자르고있던 랑반들 역시 두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그 눈길들에는 《어찌하여 안전께서 저런 빠꾸기를 우리 백로속에 끌어들었는가요?》하고 나무리는 뜻이 드러나있었다. 그사이 떠오른 시상이 두엇 되기는 하였으나 이렇듯 어성버성한 공기를 느끼지 못할 림제가 아니여

서 강사문의 부탁이 시답지 않았다.

권세에 비위맞추기가 질색인데다가 군수는 물론 이 자리의 모든 량반들이 있다면 정도의 차이일뿐으로 자기를 뒤에서 황진이와 관련시켜 손가락질을 일삼았을 생각을 하니 몹시 기분이 잡혔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짐짓 태도가 너그러워진 군수의 부탁을 외면한다면 인사불성으로 편협한 처사가 될 것이기에 그것도 안될 노릇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글재주가 없어 글을 짓지 못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리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망신이 또한 어디 있겠는가.

림제가 저으기 불안하여 잠시 망설이고있노라니 마치도 그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헤아려 안정의 여유를 주려는듯 강사문이 문득 화제를 돌렸다.

《백호선생, 며칠전 선생이 인사차로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선생의 말을 듣고 그후 생각이 깊었소. 선생이 명월의 묘소를 찾아 추모시를 남긴것이 과연 비난의 대상이란 말인가?》

자신이 스스로 제기한 물음에 자신은 물론 주위 량반들 전부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인지 강사문은 얼마간 사이를 두었다가 자못 의미심장히 뒤를 이었다.

《나는 그때 명월 황진이에 대한 극히 적으나마 백호선생의 설명을 듣고 느낀바 커서 점잖은 유지들을 만나 그에 대한 논의를 벌리는 한편 명월이 세상에 내놓은 글을 여러편 찾아 깊이 새겨읽었소. 결국 황진이에 대한 백호선생의 찬양은 정당하며 따라서 황진이는 유감스럽게도 신분이 낮을뿐 재능과 인격상에서 민족의 자랑스러운 근거를 취하게 되었소. 이런 의미에서 며칠 뒤에 있을 상경의 길에 나도 황진이의 묘소를 찾아보려오. 물론 백호선생처럼 훌륭한 추모글은 못 남기겠지만...》

첫시작부터 무겁게 울리는 군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던 량반들은 그가 입을 다문 뒤에도 나름의 생각이 깊었던지 묵묵히 움직일줄 몰랐다.

림제는 격동되었다.

강사문의 태도가 이렇게도 달라지다니?! 아올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것을 백안시(빔게 보다.)하던 못사족까지 묵상에 잠긴것은?!

그렇다, 몰상식한자 황진이를 잘 모를 때 시비질이지 그가 지성인으로서 황진이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을 때는 찬양을 금치 못하리라. 지금의 이 강사문처럼. 《사필귀정(만사는 반드시 옳은데로 돌아간다.)》이거늘!

감동된 림제는 강사문에게 《고맙소!》하고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의를 표시하면서 《강공의 믿음에 보답하려고.》하고 선선히 다짐을 둔 다음 결의한 아전에게서 종이와 붓을 받아들고 숨 한번 들이쉬 사이 없이 일필휘지로 몇줄 휘갈겨졌다.

둘레의 모두가 긴장하게 그를 지켜보는 속에 례방이 림제의 시지를 얼른 집어 군수에게 바쳤다.

글을 들여다보는 강사문의 눈이 등잔마냥 커지다가 인차 환하게 밝아지는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연송 머리를 끄덕여가며 두번을 곱씹어 읽고난 강사문은 제 손으로 직접 공기만큼 큰 은잔에 넘치도록 술을 부어들고 림제앞으로 다가왔다. 백경의 눈에 의욕이 어렸다. 량반들은 물론 아전, 하인, 시중군들모두의 기색도 그와 다를바 없었다.

삼시에 정적이 깃들었다.

그도 그럴것이 고을관장이 직접 술을 부어들고 벼슬도 재산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폐는 전혀 있을상실지 않은 일이였기때문이었다. 하물며 군수 강사문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림제임에랴.

림제가 혼연히 그 잔을 받아들자 강사문의 입에서는 시가 격조높이 울려나왔다.

정관탱석소계변  
백분청유자두견  
쌍저인래향만구  
일년춘색복중전

(시내가에 돌을 고여 번철을 걸고  
흰 가루에 참꽃섞어 꽃지짐을 지저널제  
한점 집어 먹어보니 넘치는 향기  
한해의 봄빛이 온몸에 가득차네)

율기를 마친 강사문이 자못 감개무량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절절히 계속했다.

《백호선생, 이 글이 얼마나 훌륭하오. 깊은 뜻, 기발한 표현, 소박한 문체... 그가운데서도 〈일년춘색복중전〉이란 결구는 음미해볼수록 가슴 후덥지 않는가. 화전이라는 조상전래의 유풍에 대한 격찬과 화전의 가치가 다 여기에 담겨있으니! 원컨대 우리 평산선비들, 백호선생의 이렇듯 고결한 시풍을 본받지요!》

그의 진심에 둘레의 량반유산객들이 가책되었던지 이제 와서는 림제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안전의 말을 듣고보니 백호선생은 물론 황진이에 대해서도 역시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서로 솔직한 심정을 터보였다.

강사문은 자기옆에 림제를 바투 앉히고 다시 술을 부으면서 남들이 들을가보아 저어라도 하는듯 《백호선생,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말들을 백호선생과 황진이에 대하여 이왕에 오해를 했었으며 그 불찰을 두고 늦게나마 후회한다는 뜻으로 받아주소.》하고 은근히 부탁하였다.

림제는 고맙소라고 진심의 사의를 표하고싶도록 감동이 컸으나 어쩐지 그런 대답을 하기가 거북하였고 그렇다고 잠자코있기도 딱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하고 얼버무리고말았다.

《울소. 지난날에는 흥을 보고 오늘은 용서를 비



니 무슨 감투끈인가 할게요. 황진이를 서경덕선생과 관련시켜 한 선생의 해설을 들은 후 나는 사람은 신분에 앞서 인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교훈을 찾았소. 그래 생각이 많던차에 오늘 접한 선생의 화전시는 진정 선생을 다시금 돋보이게 해주었소. 그 글에 조상전래의 유품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고 문인의 깨끗한 양심이 거울처럼 비껴 있지 않겠소. 〈문죽인야〉라 글은 곧 사람이거늘 그렇듯 고결한 선생을 비난했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인사불성이 어디 있겠소. 선생을 만난 기회에 많이 배웠소. 고맙소.》

림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 역시 다른 강공을 보게 되어 참말 기쁘오. 그런데 고맙기는 하오만 과찬의 말씀은 좀 삼가주오. 듣기가 썩 거북하오그러.》

《그리하지요.》

강사문이 선선히 받아들였다.

《원래 진정한 명사들은 자기를 놓고 하는 찬양을 좋아 안하는 법이요. 명사와 범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소. 하지만, 하지만 내 이제 찬양도 혹평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 하나만은 꼭 말해야겠소.》

그는 입을 다물고 내 말을 귀담아들으라는듯 신중한 눈길로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다. 자못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속에 모두 긴장되었다. 강사문은 중대사를 의논하는듯 기색이 심각하여 입을 열었다.

《백호선생, 나는 우리 나라 역대 학자문인들의 저작을 수많은 읽은 선비가 아니겠소. 그런데 오늘 선생의 글처럼 큰 감동을 준 글은 일찌기 없었소. 백호선생, 이 글을 위해 얼마나 깊이 마음을 썼소? 예로부터 글쓰기를 일러 〈로심초사〉 〈루심각골〉이라 하거늘, 이렇듯 피타는 노력에 뛰어난 시재가 안발침되었으니 그렇듯 훌륭한 명시가 태어날수 있음은 당연한 리치요!》

그는 좌중에게 눈길을 돌리며 호소하였다.

《부락전대 사족여러분, 선생의 이 글을 부디 무심히 대하지 마오.》

주의깊이 듣고있는 량반들의 얼굴에 공감의 어렸다.

림제가 일어섰다.

어느 사이 개울전너의 농부들 몇이 량반들의 좌석뒤로 다가왔다. 여럿이 또 뒤를 이어 물을 건너 오고있었다. 림제는 왜서인지 그들이 보고싶던 사람들처럼 반가웠다. 그사이 정이 깊어졌는가.

(아마 저네들은 나를 놓치고싶지 않아서, 하기에 저들에게로 도로 데려가고져 그래 오고있는가. 아니면 내가 군수며 못량반들의 미움을 받고있는줄 알고있으니 여기서 내가 무슨 웅색을 당하고있을가

보아 그것이 걱정되어... 친근한 사람들!)

그는 농부들로 하여 더욱 후터워지는 마음속으로 부러 우러나오는 진정을 터놓았다.

《강공께서 글짓기에 대해 하신 말씀은 옳소. 마음을 태우고 뼈를 깎아 쓰는 글이니 귀중한것이 아니겠소. 이렇듯 글짓기가 힘들기는 이 세상에 글자가 생겨난 이래 누구도 피치 못할, 또 어떤 경우에도 변할수 없는 법이요. 하지만 강공, 아무래도 이제 나는 법과 좀 다른 말, 나 한사람의 경우에 국한된 사실을 밝히고저 하니 량해하오. 나는 평생에 짓는 글 한자한자를 강공이 옳게 봤듯 속을 태우고 애를 쓰며 써왔지만 오늘의 화전시만은 그와 달랐소. 시재가 있는것도 아닌 나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것 그대로를 다만 글로 옮겨놓았을뿐이요. 이를테면 화전놀이 그자체가 시로 이루어졌다 할가. 만약 오늘의 화전시가 시다운 풍격을 갖추었다면 그것은 한 선비의 애써 무르익힌 시상도 타고난 시재도 아닌 화전놀이풍속덕이요. 진정이요.》

강사문은 감개무량하여 림제의 손을 굳게 잡으며 《그러니까 두견화전풍속이 시를 낳았다 그 뜻이겠소?... 참으로 백호선생다운 명답이요. 선생은 보배로운 화전시가 풍속덕이라고, 이 말은 진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진정으로 믿어지기도 하거니와 한편 이것은 선생의 겸손한 성품을 말해주는것이기도 하오. 한것은 그 어떤 글이든 재능과 노력을 그 바탕으로 하여 태어나는 법이기때문이요. 겸손치 못한 사람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수 없소. 실지로 속에 든것이 많을 때라야 사람이 겸손해지기마련이라 〈익은 난알 고개숙인다〉했거늘 이런 의미에서도 나는 백호선생을 존경하오.》 하고 숨가쁠 지경의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잠간 숨을 돌리고나서 엄숙하게 뒤를 이었다.

《오늘 내가 느끼고 깨달은바를 말로 다 드러내자면 봄날의 긴 하루가 모자랄게요. 내 말만 가지고 명절을 쉴수 없으니 여기 모인 사족들과 평민농부들에게 한마디만 더하고 그치겠소. 오늘의 두견화전명절을 빌어 우리 단군겨레의 모든 풍속을 어떻게 보다 널리 장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복돋아가겠는가를 다들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라오!》

량반들도 농부들도 누구 하나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모두 기색이 자못 숭엄했다. 민족의 풍속앞에서는 신분이 관계되지 않는다. 정적... 술바람도 시내물도 흐름을 멈춘듯. 이윽하여 정적이 흔들렸다. 량반들뒤에 둘러선 농부들이 림제를 향하여 공손히 선절을 하였던것이다.

바로 이 나라 아름다운 풍속의 주인들이...



# 소박하고 참신한 목소리로 당정책을!

김 청 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소박하고 평범한 보통인간이 어떻게 영웅으로 자라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단편소설 《무지개》〔서청송 작 《조선문학》(2014년 7호)〕는 소박하고 참신한 목소리로 당정책관철에 이바지하는 진실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진실성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론하게 되는것은 위훈의 동기에 대한 생활적인 선정이다.

너는 왜 혁신자가 되려고 하는가?

너는 왜 남달리 위훈을 세우고싶어하는가?

수많은 대답들이 예측된다.

사실 현실주제소설들의 거의 대다수 주인공들이 이 물음에 대답할 사명을 가진다. 주인공들은 자기들의 구체적인 생활로부터 자기나름의 각이한 대답을 준비한다.

이때 단편소설 《무지개》의 녀주인공 소영은 어떤 대답을 고르는가.

《그 총각을 마음에 둔 다음부터 혁신자가 되고 싶고 영웅이 되고싶었다.》고.

그 총각을 마음에 둔 다음부터!

얼마나 소박하고 솔직한 대답인가.

번쩍거리는 대답도 아니고 복잡한 대답도 아니고 심오한 대답도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고 때문에 누구에게나 대번에 납득되는 생활의 리치이다.

생활의 리치!

처녀는 총각에게, 총각은 처녀에게 서로 잘 보이고 싶고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내심 채여보는것이 생활의 리치이다. 겉으로 완연히 드러나게가 아니라 내심으로 채여보는것이여서 누구에게나 쉽게 알려지지 않을따름이지 리치는 불보듯 명백하다.

사실 소영은 어떤 처녀인가.

방직공장 노동자합숙 108호실은 소문난 혁신자호실인데 유독 소영이만 평범하다. 성격적으로 볼 때 무엇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격, 자신에 대한 그 누구의 지나친 관심, 지나친 참견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누구에게도 속을 주려 하지 않는다. 오직 평범한 생활, 자기 위치만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처녀는 분명 일에서도 혁신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소영의 생활 한복판에 한 청년이 성큼 들어선것이다.

《5.1절야유회에서 만났던 그 총각. 어느 체육단 선수라고 했다. 키가 하늘에 닿을듯 기골이 늘씬한 청년.》

이름은 권충길이다.

그는 야유회뒤끝에 소영을 따로 만나 금메달을 받는 날 찾아가겠다고 사나이다운 약속도 했었다.

《소영동무, 기다렸지요. 혼련하느라 소식을 못보내 미안합니다. 혁신자가 되어주십시오. 상봉을 그리며. 체육선수 권충길.》

운명적인 첫 손전화통보문을 받았을 때 처녀의 심정.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놀랐다. 이 동무가 어떻게 내 손전화번호를 알았을가. 당장 그 번호로 전화하고싶었다. 하지만 꼭 참았다. 아니야, 내가 몇몇해졌을 때 전화를 하자. 그때까지만...》

《그날 소영은 무섭게 일했다. 마치 이 직장에 저 혼자 있는것처럼 울리뛰고 내리뛰었다. 그날따라 자기 키가 하늘에 닿은듯 으쓱하니 커보였다. 그리고 저녁총화시간에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딱딱하고 패로운 직장장의 후더분한 칭찬을 받았다.》

여기까지 소설은 미끄러지듯 읽히운다. 소영은 혁신자가 되고싶어하고 땀흘리며 일하니 칭찬도 받고... 모든것이 무난한듯싶다. 그러나 문제는 무난한듯싶은 이 지점에서 새롭고도 심각한 인간문제가 시작된다는데 있다.

소영은 단순히 혁신자가 되고싶은 정도가 아니라 영웅이 되고싶어했으며 그의 이 소원은 직장장이 구축하는 담벽에 세차게 부딪친다.

일군-안호일직장장은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경쟁심이 남달리 높다. 그에게는 군사복무시절부터 함께 경쟁해오는 상대방이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생산총화에 함께 참가하는 동급직장장이었던 그 사람이 영웅직포공을 키워내고 지금은 부지배인으로 승급되었다.

안호일의 가슴에는 자기도 하루빨리 영웅직포공을 키워내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그 책임자로 안팎으로 나무랄데없이 훌륭한 진향이를 짚는다. 직장장은 권사공이던 진향을 직포기작업반으로 옮기고 자기 정량보다 몇대의 직기를 더 조절해준다. 일련의 피해가 있었다. 몇명의 처녀들이 기대를 진향이에게 넘겨주었던것이다. 그속에 소영이도 있다.

이에 대하여 진향이 반발한다.

《영웅도 혁신자도 되고싶어요. 그러나 나 혼자 되어선 뭘해요. 난 되고 소영인... 소영이가 뒤떨어

지면 그것이 무슨 직장의 명예이고 선동원으로서, 초급단체위원장으로서 나의 본분을 다했다고 하겠어요. 그 애는 직기를 나보다 더 잘 다루어요. 난 그 애보다 권사기를 더 잘 다루구요. 난 그 애를, 소영이를 혁신자로 내세워주고싶어요.》

진향은 호소한다.

《직장장동지, 전 어제 밤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여주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구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옳게 살았는가,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고 돌이켜보았어요. 직장장동지, 소영이 소원을 풀어주자요.》

소영이 소원!

진향이 소원!

두 처녀의 소원은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또 큰 것인가.

한 총각에게 마음들고싶다는 소영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또 높이 전진하고있는 것인가.

우리 시대 혁신의 료리가 새롭게 밝혀지기 시작한다.

《누구에게 기대를 맡기든 돌아가는 시간은 같다. 기능급수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생산량도 거의 일치하다. 사람은 내세워주면 된다. 그러나 한사람때문에 열사람이 희생당할 때가 있다. 그것은 책임진 일군에게 달려있다. 일군은 항상 대중의 우산이 된다고 하지만 그 대중속에서 편안한 사람도 있다. 대중이 얻은 명예, 로동계급의 피와 땀으로 쌓은 직장이나 공장의 공로가 그 일개인의 이

름을 보석처럼 빛내일 때도 있다. 그러면 명예욕이 생기고 관료주의가 자라나 진실과 거짓을 가려보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대중속에는 의심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며 순박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

소영의 순박한 소원이 직장장 안호일의 명예욕에 의해 피해를 보는 그것이 과연 작은 문제일 것인가, 큰 문제일 것인가.

서로 다른 아름다운 색들이 꼭 하나로 합쳐져야만 가치가 있는 무지개, 어느 하나의 색깔이라도 흐리면 그것은 벌써 무지개가 아니다. 흐려질번 한 소영의 소원은 진향과 같은 진짜배기 선동원에 의해, 108호실 모든 처녀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의해, 또 직장장의 자책을 거쳐 드디어 활짝 피어난다.

이로써 소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시대의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해, 온 나라가 한식술로 사는 집단주의에 대해, 우리 일꾼들이 마땅히 경계하고 시시각각 자신을 다잡으며 반성해야 할 명예욕과 관료주의에 대해 소박하나 절절히 말하였다.

소박하고 참신한 목소리로 우리 당정책을!

대사도 묘사도 특히 위훈에 대한 동기가 너무나도 모두 소박한 소설이었다.

그러나 결구는 예리하고 심각하였다.

평범한 방직공처녀들의 일상생활속에 당정책을 깊이 묻고 우리 시대 혁신의 료리를 밝힌 여기에 이 소설의 가치가 있다.

보다 더 소박하고 보다 더 진실하며 보다 더 참신한 새 소설을 문단은 기다린다.

## ////// 작가일화 //////////////////////////////////

### 《또 취했군...》

영화문학작가 한복규는 일단 작품의 세계에 빠져들면 거기에 완전히 심취되어 자신까지 잊어버리는 열정의 인간이었다.

그가 새로 착상하고있는 어느 한 영화문학의 장면을 파고들며 퇴근길을 걷고있을 때의 일이었다.

자기 집을 훨씬 지나쳤는데도 그는 허둥지둥 가던 길을 계속해 걸으며 중얼거렸다.

《안돼! 안되구말구. 식량창고에 불을 놓다니.》

마주오던 사람 하나가 끔찍한 그 소리에 펄쩍 놀라 우뚝 멈춰섰다.

살펴보니 흥분으로 별절게 상기된 상대의 얼굴이 말이 아니다.

(저 량반이 실성을 했나?)

이때 평소부터 한복규를 잘 알고있은듯 한 사람이 그옆을 지나다가 끼어들었다.

《여보시오, 한선생! 집을 지나쳤수다. 허허... 또 취했군...》

그때에야 자기가 집을 퍼그나 지나쳐 걷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린 한복규는 오던 길로 다시 돌아서며 자기로서도 어이가 없었던지 히죽이 웃었다.

《허, 내 이 그만...》

그리고나선 얼마 못 가 또다시 사색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아니, 아니야. 식량창고엔 꼭 불을 질러야 해!...》

손을 내뻗쳐 허공을 갈라내리며 버럭 내지르는 소리가 아까보

다 자못 더 커졌다.

사람들이 흘금흘금 돌아왔다.

《사람두, 취해두 몸신 취했군...》

그결에서 또 한사람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술을 자신것 같진 않은데요.》

《술이라니?...》

《방금 취했다고 하지 않았소?》

그때에야 깨도가 된 먼저번 사람이 설명했다.

《저분은 늘 저렇게 사색에 취해사는 작가선생이라오. 취하지 않고서야 글이 나오니까!...》

리 경 명

# 미곡벌의 가을풍경

한 옥 란

구수한 난알향기에 취해  
별을 향해 창문을 열면  
가을바람에 설레이는 누런 황금벌  
논배미넘어 수로뚝을 넘어  
열어놓은 창문으로 안겨드니  
나의 집이 별을 안았는가  
별이 나의 집을 품어안았는가

마당가에 나서도 달려오는 황금벌  
별에 들어서면 옷자락에 매달려  
어리광치는 황금이삭  
푸른 물 출렁 흘러가던 수로엔  
난알향기 과일향기 실은 황금물 흘러가고  
무연한 벼바다우엔  
백학이 황금새가 되어 훨훨 나는데

—에라 만수 풍년이로구나...  
늘어지게 풍년가 길게 뽑으며  
벼수확기 물고 별에 나오는 총각  
언제나 모든 일에 앞장서기 좋아하는  
기사장네 셋째아들에게 뒤질세라  
낫날을 번쩍이며 별을 향해 가는  
농장벌의 꽃 청년분조처녀들의 모습은  
별을 무대삼고 나선 풍년무대 무용수인듯

늙은이들도 이 바쁜 가을날에  
닭모이 뿌려주며 손자손녀만 돌보라  
숫돌들고 수로가에 너도나도 나와앉아  
농장원들 지원자들 낫을 갈아주는 모습은  
마치 전쟁때 고성마을로인들  
소달구지에 포탄탄약상자 싣고  
고지로 오르던 그 모습 그 마음

가을철 이런 날 이런 때야

인심후한 이 마을 할머니들  
령감들에게 뒤질세라 앞서거니뒤서거니  
가을걷이경쟁에 불이 달린 젊은이들에게  
쌀알이 동동 뜬 내 집 감주맛 보라며  
철철 넘치는 감주사발 들고 권하는 그 마음  
전쟁때 남강마을녀성들의 그 마음 그 모습

얼마나 좋은가 미곡벌의 가을풍경  
보둑에 세워놓은 현장속보판에  
새 소식 알리기에 바쁜 선동원의 붓끝에서  
불이 일듯 바쁜데  
저 봐라 뒤따라 쌓아놓은 벼동가리우에  
긴 목 빼들고 앉은 백학떼  
그 모습 또한 명화중 명화!

그 누가 지었나 미곡리 그 이름  
쌀이 많아 미곡리  
가을풍경 아름다워 미곡리  
또한 미인이 많아 미곡리  
날마다 번성해가는 미곡리는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곡리는 나의 정든 농장이라고 하시며  
찾아오시여 사랑을 주시고  
가시면서도 남겨주신 사랑으로  
미곡리는 선군시대의 상징!

별에 넘치는 오늘의 이 기쁨 그대로  
별에 펼쳐진 오늘의 이 풍경 그대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보여드리고싶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오실듯싶어  
기다림에 기다림에 황금빛 더욱 짙어가는  
오, 선군10경 미곡벌의 가을풍경이여  
오! 미곡벌의 가을송가여!



## 소설가가 찾은 새 《령마루》

강 영 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대중적영웅주의의 본질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며 우리 문학에 그러지는 영웅의 성격은 사람들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전형적인 환경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이땅 어디 가나 대자연개조의 거창한 현실이 펼쳐지고 비약의 나래가 퍼덕인다.

수도의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대건축물들, 세포동판소식, 마식령이야기. ... 우리 인민은 진정 전설속의 장수와도 같이 새로운 기적을 창조한다.

전설속의 장수!

일찌기 이렇게 탄복하며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을 인상적인 소설을 창작한 한 소설가가 있다.

그가 바로 장편소설 《령마루》를 창작한 작가 엄단웅이다.

1980년에 창작된 장편소설 《령마루》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던 시기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형의 새 인간의 전형을 창조한 우수한 소설이다.

이 소설을 창작하고나서 그가 남긴 수기 《탐구와 고민의 나날》을 새삼스럽게 되읽어보게 된다. 한것은 그의 수기가 오늘날 대자연개조전투장마다 탐구의 좌지를 정하고 새시대가 바라는 명작창작에 펼쳐나선 우리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기때문이다.

소설가 엄단웅이 배낭을 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결기한 ㄹ광산의 로동계급을 찾아 떠난것은 1976년 봄이었다.

처음에 작가는 광산에 가서 한두달 파고들면 광산실정을 료해하게 될것이고 따라서 소설의 종자도 줄거리도 쉬이 쉼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면 무엇을 파고들것인가.

작가는 현지에 도착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취재수첩에 적어넣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적어넣은것은 자신이 여직 알지 못하던 땅속의 비밀과 채굴공업에 대한 기술실무적지식들이었다. 광산의 지하구조는 어떻게 생겼으며 굴진과 채광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며 현대적채굴설비들과 기계들은 어떤것들인가? 그는 몹시 바빠 보내는 광산기사를 잘 붙잡

고 채광학에 대한 초보적인 기초강의를 듣기도 하고 광산기술과에 가서 재래식수동식착암기며 현대화된 착암대차의 구조, 성능, 명칭을 적어넣기도 하였으며 채굴공정을 리해하기 위해 막장지령실에 가앉아있기도 하고... 실로 바쁘게 한달나마 흘러 취재수첩 한편이 다 채워졌다. 그러나 이상한것은 기술실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아지는것이였다.

광산이란 난생처음 보는 작가가 불과 한달사이에 현대채굴공업발전에 따르는 지식의 요새를 점령해 보려니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광산에 내려와서 주선을 이렇게 정한것이 과연 지당한것인가? 지식습득이 중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창작의 주선으로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렇다면 소설가의 주선은?

이에 대하여 엄단웅은 수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광산기사장과 함께 거의 해발 2 000메터나 되는 수직갱건설장으로 간적이 있었다. 차는 깎아지른듯 한 아슬아슬한 산벼랑을 끼고 굽이돌며 여러 시간 산정으로 돌아올랐다. 산이 어찌나 높은지 창밖을 내다보면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령마루에 오르자 숨을 돌리려고 차에서 내렸다. 사위를 둘러보니 험준한 산발들이 머리를 추켜들고 파도쳐 일어섰는데 그 웅장한 대자연의 위용앞에서 나는 한동안 났을 잃고 지켜보고있었다.

허리에 흰 안개를 백포처럼 두르고 거연히 머리를 추켜들고있는 그 영웅적기상은 신비롭고 숭엄하기까지 하였다.

〈저기 저 봉우리의 높이가 2 300메터인가 되고 이쪽 범처럼 생긴 저 봉우리가 2 100메터입니다. 이 근방의 산발들은 모두 2 000메터이상들이지요.〉

기사장은 손으로 산발들을 가리켰다.

얼핏 보기에 그 산발들은 그의 말대로 우리 나라의 명화, 맹호도나 투견도에 나오는 사나운 짐승들이 여기저기 눌러앉은것 같았다. 그러고보면 봉우리들은 마치 두발을 척 쥘고앉아 조으는듯 앞을 내다보는 범의 머리같기도 하고 흘러내린 산발들은 마치 고풍처럼 패인 범의 갈비대같기도 하였다.

자연이란 얼마나 웅장한것인가.

나는 수억년전 지구의 지각운동으로 이루어졌을 이 대자연의 신비로운 창조물앞에서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위압감을 느끼였다.

〈범처럼 사납게 생긴 저 산악이 어떤것은 속이

# 아들과 함께

박 성 일

푸른 새싹 나무모 안고  
산으로 오르는 이 아침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나섭니다  
이 봄날 꼭 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인생의 먼먼 길을  
애국으로 걸어야 할 아들이기에  
밝은 앞날을 그려보며 심는  
부디 이 나무와 인연을 맺어주고 싶습니다

태양에 대하여  
흙과 자양분에 대하여  
뿌려주는 물과  
애솔포기 나무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비바람 불고 눈비와도  
이 땅에 튼튼히 뿌리박고  
태양을 향해 정수리 높이 들어야  
곧바른 기둥으로 자라남을

연약해 꺾이지 않고  
메말라 시들지 않으며  
억센 나무로 자라

이 땅의 아름다움을 더해줄수 있음을  
제 손으로 심으며 알게 하고 싶습니다

땀을 흘리며  
힘과 정열을 쏟으며  
이 대지와 여기서 행복할 후손이  
첫정 맺는 사연깊은 날이 되기를

당에 대하여  
조국에 대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하고싶은 말 다함이 있으랴만  
나무를 심으며 나무와 함께 성장하며  
제자신이 심장으로 느끼게 되기를

먼 후날  
이 나무에 포ற்ற한 년륜이 새겨질 때  
아들의 인생길에도  
애국이라는 년륜이 굵게 새겨지게 되기를

아, 푸른 새싹 나무모를 안고  
산으로 오르는 이 아침이  
한생 추억하게 될 어린시절의 기쁜 날이 되라고  
나는 이 뜻깊은 나무심기로  
아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

텅 비어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세로 무수한 갯도를  
를 뚫고 채굴공간을 형성해왔으니깐요. 말하자면  
갑대기만 남은 종이범이지요. 이제라도 폭약을 장  
치하여 폭발시키면 평지처럼 풀썩 물러앉을겁니다.  
앞으로 저 산발들이 하나하나 모두 인간의 힘에 의  
해 정복돼나갈것입니다.)

기사장의 말이였다....

나는 생각에 잠겨 장엄한 그 산발들을 다시한번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렇다. 기사장의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산속으로 열기설기 뻗은 무수한 갯도와 채굴공간으  
로 하여 어떤 산속은 텅 비어있다. 산이 무너져내  
리지 않도록 지압을 유지하기 위해 남겨놓은 잔주  
만 아니면 이제라도 무너져내릴것이 뻔하다. 우리  
가 올라오면서 지나온 갯지휘부가 아득히 굵어보이  
는데 실오리같은 광차꼬리가 땅밑으로 천천히 기여  
들어가고있었다. 이 거대한 산악에 비기면 사람이  
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큰 바위우를 기여가는 작은 물체만 한 크기도 못  
된다. 그러나 작게만 보이던 그 사람들은 우주공간  
에 솟아오른 거대한 지각의 한부분을 파내어 껍데  
기만을 남겨놓지 않았는가. 그러고보니 불가항력적

인 그 어떤 힘의 위압을 느끼게 하던 이 대자연우  
에는 그 어떤 보다 크고 위대한 힘이 군림하고있다  
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힘이란 얼마나 강한것인  
가. 하기에 예로부터 인간은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  
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여직 어째서  
룡을 낚는 전설의 장수같은 이 인간들을 보지 못하  
고 지내왔는가?)

그리하여 소설가는 사람들속으로 들어갔다.

그속에서 소설의 주인공 현우림기사장을 찾았으  
며 매력있는 녀기사 윤혜영을 만났고 박상만갱장과  
강희철을 비롯한 세대군인들, 금옥이와 같은 처녀  
들을 찾았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지식도 기꺼이 배웠다.

말하자면 소설가는 인간중심의 새 《령마루》를  
찾은것이다.

그의 장편소설의 제목이 《령마루》일진대 그것  
은 단순히 광산을 이루는 거대한 산발만을 의미하  
지 않는다. 그것은 거창한 대자연을 정복하는 인간  
의 힘의 령마루, 당의 의도를 끝까지 관철하는 길  
에 자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바쳐가는 로동당시대  
주인공들의 삶의 령마루를 상징한다.



# 수의를 입힐수 없다!

—남녘의 한 수인에게 보내는 시—

한 동 선

잠들수 없구나 북쪽의 이 한밤  
의분은 그냥그냥 이 마음을 뒤채겨  
잠자리 차고일어 바라보는 남녘하늘엔  
먹장구름 음험하게 드리웠으니  
아, 답답한 가슴 두드리며 내 시를 쓰노라  
점가마갈은 감방속 수인의 모습 그리며

《보안법》은 심판했다  
《폭도》도 방화범도 아닌 평범한 주민을  
복을 증오하라고 강요하는 통일의 역신들  
마음의 북행길에마져 차단봉을 지르려고  
야차같이 날뛰는 《보안법》의 악귀들은  
그 선량하고 대바름에 수의를 입혔구나

평범하게 살아온 정직한 수인이여  
그대 어찌 평범할수만 있었으랴  
동경과 찬양에도 죄명을 붙이는 세상임에야  
언권의 목을 짓누른 인권의 폐허  
《보안》의 법정에 폭탄을 던지듯 그대는 웨쳤나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자주로 선군으로 빛뿌리는 우리 조국  
공화국을 등대로 바라보는 민심은  
뭍으려 뭍으려 해도 그 민심은 나래치는 불새임을  
공판마다 불을 뿜어 그대는 웨쳤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철창속에 흐른 세월 벌써 몇몇해인가  
밤꿈마다 안락의 유혹이 손목을 이끌어도  
인간의 참된 삶은 목숨보다 더 귀중해  
기꺼이 철창속에 사는 남녘의 현현장부여

그대의 웨침은 악법을 기절시킨 대포소리였다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용감하다 그대 철의 사나이여  
악법의 기소장을 휴지장으로 날린 장거여  
인권폭거에 맞선  
낯모를 그대의 이름을 내 투사로 부르나니  
싸우라 형벌이 항복할 그날까지  
신념으로 도고한 그 머리 더 높이 꺾끗하라  
전세계의 랑심이 그대와 한편이다

이밤도 나와 함께 잠 못들고있을  
투사의 어머니여 안해여 자식들이여  
정의와 랑심이 숨쉴 곳이란  
그 땅엔 더는 없거니  
자랑하라 수인이 지닌 백옥같은 랑심  
자랑하라 수인이 지닌 참대와 같은 절개  
수인은 통일의 길 활개치며 가고있다

무너지리라 무너지고말리라  
자유 민주 통일을 짓씹는 악법의 아성은  
천사람 만사람을 철창속에 가둔대도  
민심천심에는 수의를 입힐수 없거니

기다리라 만나자 부등켜 포옹하자  
화합을 불러 내민 겨레의 손길에  
악행으로 화답해온 패덕의 무리 끌어낸 그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기폭이  
수의를 입은 그대를 감싸안으리라  
그대 철창속에서도 그려본  
위대한 인민공화국의 성스러운 기발이!...

.... 상 식 .....

## 세계식량의 날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의 창립  
일인 10월 16일은 매해 《세계식  
량의 날》로 되고있다. 《세계식  
량의 날》은 1979년 11월에 진행  
된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제20차  
총회에서 제정되었다.

《세계식량의 날》의 구체적인  
과제는 ① 세계적범위에서 기아  
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것, ② 농  
업과 식량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  
식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쌍무

적, 다목적, 비정부적노력을 강  
화하도록 하는것, ③ 발전도상나  
라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추진시  
키는것, ④ 기아와 영양부족, 빈  
궁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적 및 국  
제적단결을 강화하고 식량 및 농  
업개발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  
여 관심을 높이는것, ⑤ 농촌주  
민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  
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채택에 더 적극적

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 ⑥ 발  
전도상나라들에서 경제 및 기술  
적협조를 고무하는것 등이다.

매해 《세계식량의 날》마다  
《농업생산에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 등과 같은 하나의  
기본주제가 정해지고있다.

《세계식량의 날》은 지구상에  
서 기아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의 노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 엄 마 야

—남녘의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원 영 옥

아들아!  
금시 이제라도  
엄마를 부르며 달려올듯  
사진속엔 웃는 그 모습  
아들아!  
어머니는 너를 위해 분향의 초불 지핀다  
지금도 귀전엔 정다운 네 목소리  
어머니몸에선 너의 숨결 흐르는것 같구나  
엄마!  
마지막숨줄 끊기던 순간에도  
안타까이 찾았을 그 엄마  
너를 지켜주지 못한 엄마가 네앞에 있단다  
죄많은 이 엄마  
사진속의 너의 눈빛조차 마주보기 괴롭구나  
《행복시대》 준다고 떠별이던  
살인악마에게 속히워 산 엄마들의 죄가 이렇게 크나  
구만리앞길을 뚫고 동강낸 청와대의 마녀를  
어린 생명들을 바다밑에 처넣은 악녀를  
청와대의 안방에 앉혀놓은 남녘의 비통함이어!  
용서해다오 아들아  
어머니 심장의 뜨거운 피로  
너의 보금자리 엮어왔건만  
이 남녘땅에선 어머니사랑만으로는  
너를 지켜줄수 없었구나  
분향의 초불을

이제 또 얼마나 태워야  
너의 령혼을 고이 잠재울수 있으랴  
아들아!  
너를 지켜주지 못한 이 엄마를 저주해다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남녘어머니들의 가슴속에  
복수의 불길 타고르다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  
그 눈물로는 쌓인 슬픔 다 가실수 없기에  
항쟁의 거리에 펼쳐나섰다  
내 목숨 다하도록 지켜주려나  
이 땅의 아들딸들을!  
내 목숨 다하도록 기어이 복수하려나  
불행의 화근 청와대의 무리들에  
이 한몸 철추가 되어 내려치리라  
인간생지옥을 불사르는 화약이 되리라  
그 불길 활활 타올려  
너의 령혼 잠재우려나  
그날엔 이 엄마도 참된 엄마 되려나  
삼천리강산에 복수의 불길 타고르다  
아들아  
이 땅에 밝은 세상이 오는 그날에  
태양의 축복속에 엄마도 너도 다시 태어나자  
엄마의 품을 향해 첫걸음 떼어다오  
그리고 세상에 소리높이 불러다오  
엄마야!

## 외국작가소개

### 고리끼, 막썸

알렉세이 막씨모비치 고리끼는 1868년 3월 28일 니쭈니 노브고로드시(지금의 고리끼시)의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고리끼란 불행하다는 뜻이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그는 소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구두방, 식당 등에서 심부름꾼, 잡부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려서부터 가난속에서 갖은 천대를 받으면서 자라난 고리끼는 누구보다도 혁명투쟁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었다. 그는 혁명가들과 사귀어 혁명적영향을 받아 혁명투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여러번 짜리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도 하고 류형살이도 하였다. 자랄 때 외할머니와 식당료리사의 도움으로 책을 많이 읽은 그는 1892년 《마카르 츠드라》

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였으며 이때부터 그는 자기의 성을 고리끼라고 쓰기 시작했다. 그후 여러편의 단편소설과 함께 장편소설, 희곡도 창작하였는데 장편소설 《포마 고르제예브》, 희곡 《소시민》, 《최하층》, 《별장의 사람들》, 산문시 《해연의 노래》 등은 그 대표적작품이다. 이때로부터 고리끼는 짜리제도에 반항하는 인민대중의 기분을 노래하는 자유의 투사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해연으로 로씨야문단에 나타나게 되었다. 1905년 짜리반동통치를 반대하는 혁명에 참가하여 전제제도를 타도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로 하여 그는 투옥되었으나 인민들의 강한 항의와 압력에 의하여 한달만에 석방되었다.

1905년 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11월에 레닌과 만났고 1906년 당의 위임에 의해 미국을 여행하였는데 이 시기 장편소설 《어머니》를 창작하였다.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일어났을 때 고리끼는 선참으로 쏘베트정권을 지지하였으며 사회주의문화건설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고리끼가 로씨야에서의 첫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로 된다는 혁명의 수령들인 레닌과 쓰팔린, 볼셰비크당의 옳바른 지도가 있었기때문이다. 혁명적인 고리끼에 대해 증오를 품고있던 프로쓰끼도당은 그의 아들을 야수적으로 암살하였으며 1936년 6월 18일에는 고리끼를 죽였다.

## 축구왕의 어제와 오늘

지금 세계 축구무대에서 어느 선수가 첫손가락에 꼽히는가. 에스빠냐의 싸비인가 아니면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그 선수는 두말할것없이 리오넬 메씨이다. 그는 지금 뽀레, 마라도나 못지 않은 축구선수로 공인 되어있다.

키가 170cm도 안되는 메씨가 그 무엇에 의해 것처럼 아득한 높이에 오를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천성적인 축구재능을 가진 소년 메씨가 아르헨티나의 네웰스 올드 보이스트립에서 실내축구를 한것이 하늘을 날고싶어하는 새에게 나는 법을 빨리 익힐수 있도록 하였다면 13살에 병치료를 위해 간 에스빠냐는 메씨가 마음껏 기술을 배울수 있는 창공으로 되었다.

메씨를 받아들인 바르셀로나축구구락부팀은 장차 그가 팀의 주역을 감당하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축구는 메씨의 생활의 전부로 되었으며 메씨는 팀의 기둥으로 되었다.

타고난 재능은 아르헨티나 축구소년의 이악한 훈련태도와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세계적인 명수들이

바다를 이룬 에스빠냐에서 남보다 빨리 그리고 두드러지게 빛을 낼수 있었다.

메씨의 가장 위력한 무기는 발바깥부위이다.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면서 득점기회를 엿보다가 문전으로 돌입하는 메씨의 발에서 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매달아놓은듯이 떨어질줄 모른다. 에스빠냐의 한 보도물은 메씨가 발바깥부위에 점착제를 바른것 같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나 싸비까지도 인정하는 이 왼발바깥차기는 그로 하여금 마라도나와 뽀레와는 전혀 다른 자기의 축구시대를 맞아들이게 하였으며 갓 스무살을 넘긴 그를 축구왕으로 되게 하였다.

현재 메씨가 소속된 바르셀로나팀은 에스빠냐 1부류축구련맹전에서 패권을 다투는 구락부들의 대항에 부딪치고있으며 그로 하여 메씨는 가장 강한 적수들의 포위속에 들어있다. 이러한 조건은 메씨의 기술이 제자리걸음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강팀들과 동료, 적수들의 도전과 경쟁속에서 메씨의 뛰어난 개인기술은 나날이 더욱 세련되고 완성되어가고있다.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10호 (루계 제804호)

###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3(2014)년 10월 1일
발 행	주 체 103(2014)년 10월 5일

ㄱ-461000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